금주의 법구-〈법구경〉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9월 10일)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9월 28일 임기를 시작했다. 중앙종무기관과 조계사 사부대중의 환영 속에 입장한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집무실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진우 스님, 불교 중흥 '첫 걸음' 내딛다

9월28일 제37대 총무원장 취임
총무 호산 · 기획 성화 스님 등
부실장 · 국장단 15명에 임명장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을" 당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신임 부실장 · 국장단 임명장 수여를 마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제37대 집행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임기 개시일인 9월 28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단 임명을 시작으로 37대 집행부 업무를 개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8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집행부 교역직 소임자 인선을 단행했다. 총무부장에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재무부장 우하 스님, 문화부장 탄원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 호법부장 서리에 현민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에 미등 스님이 임명됐다. 사서실장은 정기종회 이후 임명될 예정이다.

국장단 인사도 이날 단행됐다. 총무국장에 향림 스님, 기획국장에 일엄 스님, 홍보국장 지안 스님, 감사국장 정오 스님, 재무국장 혜등 스님, 문화국장에 용주 스님, 사회국장에 현우 스님이 임명됐다. 호법부 호법국장에 선화 스님, 조사국장에 지묵 스님, 상임감찰에 금오 · 덕운 · 선안 · 진효 · 혜능 스님, 호법과장에 보타 스님, 조사과장에 우승 스님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사업국장에는 법수 스님이, 사서국장에는 일규 스님,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진광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에 성민 스님,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에 선효 스님이 임명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는 덕운 스님, 문화사업국장에는 대우 스님,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서리에 지현 스님이 임명됐으며 사서실 사서에 도명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6대 집행부의 성과를 잘 이어받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책임감으로 함께해 달라"며 "각기 주어진 소임에 충실히 임해 조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37대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이 담긴 공약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포교에 중점을 두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공식출범하면서 향후 어떤 변화를 일궈낼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도들의 공의를 토대로 단일후보로 출마해 선거절차 없이 당선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종단 안정과 화합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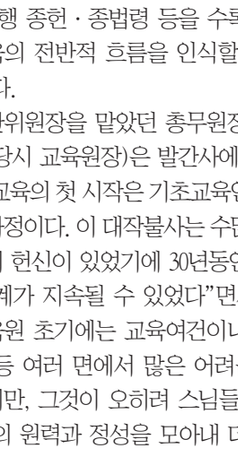
진우 스님은 최우선 종책기조로 '소통'을 강조한 만큼 취임 첫날부터 적극적인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앞서 당선인 신분에서부터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권역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종교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신당역 스토킹피해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남다른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취임 후 첫 공식행보로 청년들과의 점심간담회를 열고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격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주요 종책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고 종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 덕분이다. 이어 정부 관계자와 신도회 임원단의 예방에서도 편안한 대화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에, '소통하는 총무원장'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일찌감치 각인시켰다는 여론이 많다. 새롭게 출범한 제37대 집행부의 행보가 불교계 안팎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조계종 행자 수계교육 30년 역사 망라하다

교육원 '행자 수계교육 30년사' 발간



진우 스님 원력이 담긴 사업
1991~2021년 행자 수계교육
기구 · 사진 · 기사 등 수록해
30년간 9795명 출가자 배출
행자교육 전반 흐름 '한눈에'

조계종으로 출가한 모든 행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교육기관이 있다. 바로 '행자교육원'이다. 행자교육원은 1991년 3월 행자교육원 설치령이 제정되고, 그해 8월 행자교육원이 개원됐다. 1991년 9월 16일 해인사에서 봉행된 수계산림을 1기로 한 행자교육원은 2021년까지 61기가 수료하며 명실상부한 조계종 승가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통해 행자교육원은 지난 30년 동안 9795명의 행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출자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게 했다.

조계종 행자교육원의 역사와 교육변화 등을 망라한 백서가 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서봉)은 9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981년 단일계단 설립 이후 1991년 행자교육원 출범으로 체계화된 행자 수계교육의 성과를 담아낸 〈행자 수계교육 30년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행자 수계교육 30년사〉 발간사업은 "수행의 첫 걸음인 종단 행자교육의 역사와 그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백 · 율사들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 진우 스님(現 총무원장)의 원력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중앙기록관의 협조를 받아 보관 서류를 열람 · 기록하며 발간 작업을 진행해왔다. 출간 예정일은 지난 7월이었으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열 · 수정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 9월에 발간하게 됐다.

〈행자 수계교육 30년사〉에는 행자교육원의 태동과 출범, 교육원 별원 독립을 거치며 확장된 행자교육의 개념과 그간의 역사를 정리한 '조계종 행자 수계교육 30년 약사'를 비롯해 그간 행자교육을 이끌어온 스님들의 회고집이 수록됐다. 회고집 인터뷰에는 성우(前 조계종 전계대화상) · 무관(조계종 전계대화상) · 동주(前 조계종 어산어장) · 지현(조계총림 율주) · 지운(계단위원) · 수진(조계종 고시위원장) · 경성(해인총림 율주) · 덕문(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 효명(쌍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 지형(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 율주) · 일연(前 동학사승가대학장) · 상덕(중앙종회교육분과위원장) · 일진(前운문사승가대학장) · 적연 스님(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이 참여했다.

또한 역대 교육원장, 지도위원장 등 임원 스님과 수계현장 사진을 내용별로 분류 · 수록했으며, 각 기수별 교육기구표, 활동사진, 관련 기사들을 담았다.

부록으로는 행자 수계교육 통계자료를 비롯해 본사별 행자 통계, 교육일정표, 현행 종헌 · 종법령 등을 수록해 행자교육의 전반적 흐름을 인식할 수 있게 했다.

편찬위원장을 맡았던 총무원장 진우 스님(당시 교육원장)은 발간사에서 "출가자 교육의 첫 시작은 기초교육인 행자교육과정이다. 이 대작불사는 수많은 스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30년동안 여법한 수계가 지속될 수 있었다"면서 "행자교육원 초기에는 교육여건이나 교육과목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스님들 한 분 한 분의 원력과 정성을 모아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간된 〈행자 수계교육 30년사〉가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 · 활용돼 행자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이 개발되고, 현 시대 승단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은 "〈행자 수계교육 30년사〉는 행자교육원을 거친 스님들에게는 자신의 기록이자 출가 초심을 다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백서는 전국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승가교육 연구자들에게는 시대에 맞는 승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관련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위기 해법, 명상포교·대사회역할로 모색”

총무원장 진우 스님, 9월 29일
취임 이튿날 종무원 기조 강연
명상힐링치유·통합포교센터 건립
재정 기반 구축 위한 방안 고민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조계종을 넘어 한국불교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제37대 집행부는 보다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위기극복에 나서고자 합니다. 명상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또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포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여정에 책임감을 갖고 원력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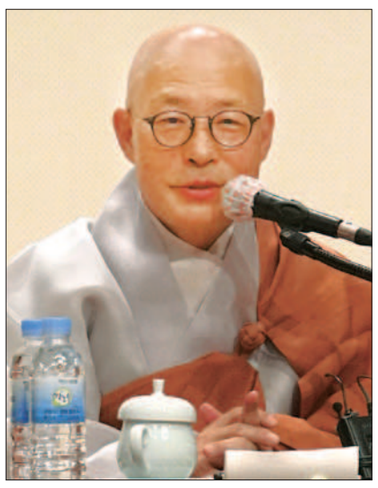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튿날인 9월 2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소임자와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기조강연에서 스님은 핵심 종책공약들에 대한 아젠다를 공유하고 불교위기 극복을 위한 종책 추진에 남다른 책임감으로 실무적인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주요 추진과제로 △명상힐링치유센터 건립 △불교통합포교센터 건립 △재정기반 강화 대안 △열암곡 부처님 바로세우기 △불교요양병원 건립 △불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현안 해결 △사회적 약자 등 대사회적 역할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진우 스님은 불자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 속에서 명상 대중화가 해법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스님은 “마음의 종교인 불교가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역할은 마음 치유, 즉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이라며 “부처님 가르침 속에 모든 내용이 담겨있지만 지금까지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기에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역별 명상힐링치유센터를 건립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명상을 접하면서 삶을 변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교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체득해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다짐이다.

스님은 “불교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한다”며 “이론적으로 전법하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친근하게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녹여내 가장 직관적인 형태로 현대인들에게 변화를 통한 감동을 주는 방법이 바로 명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은 취임 이튿날 교역직 소임자와 종무원을 만나 기조강연을 통해 불교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상월선원이 펼치는 수행결사 또한 명상의 일종으로, 국민들에게 불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실천으로서 전달하는 방안이라고 봤다. 이에 스님은 “상월결사 걷기순례에 종단이 결합해 그 의미를 더욱 확산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포교전략”이라고 말했다.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불사인 불교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님은 “한 대형요양병원을 종단이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 및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이르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기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열암곡 마애불 바로세우기 불사에 대해서도 “낙담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부처님을 천년 넘는 세월동안 쓰러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년대계본부의 확대 가능성도 예고했다. “한국불교, 그리고 우리 종단의 백년대계를 고민하고 기획하기 위해 보다 담대한 계획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확대개편을 통해 종책사안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획 도출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단 외부의 대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한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달라는 요청에 스님은 “사회적 약자, 빈곤, 노동, 기후환경 문제 등 많은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불교의 역할은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호소를 넘어 기술적으로 개입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치유하고 보듬는 불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 진우 스님은 당선인 신분으로서 첫 행보로 장애작가들의 작품전을 찾았고, 신당동 스토킹피해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사회문제를 향한 실천적 행보를 보인 바 있다.

기조강연의 막바지, 각 사안에 대해 종무원들의 공감을 확인한 스님은 대략적인 실무부서를 지정하며 책임감 있는 종무실현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시절인연으로 소임을 맡은 만큼, 역량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부실장 스님들, 국장 스님들 뿐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모든 종무원들이 37대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이 같은 신념과 원력을 공유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적극 소통…포교·치유·상생 키워드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행보는

첫 일정은 ‘미래세대와 함께’
9월28일 간담회서 청년소통
정치권엔 ‘화합 정치’를 강조
신도 임원엔 ‘포교’를 화두로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9월 28일 취임 동시에 광폭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청년세대를 선택, ‘소통’을 실천했다. 정부인사 예방에서는 ‘화합과 상생’ 정치를, 조계종 신도단체 임원들과 만난 자리선 ‘포교’에 대한 전략을 화두로 던졌다.

진우 스님은 9월 28일 첫 공식행보로 2030미래세대를 선택했다. 한국불교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과 만나 불교가 젊은 세대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조계종은 이날 조계사 3층 담소에서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미래세대 청년포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대학생불교연합회 조석주 회장과 유선재 서울지부장, 전혜정 포교간사와 조계사 오윤겸 청년회 대학생부장, 불교크리에이터 3기 혜장 스님, 2기 자홍 스님·이재영 씨, 연등회 다국적 서포터즈 아이엔요 티티, 하자르 씨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점심공양을 함께하는 편안한 자리였지만,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포교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도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청년세대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쉽고 현대적인 포교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소통과 교류가 필수적”이라며 “불교에 대해, 또 청년불자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종단이 어떤 일들을 통해 함께하면 좋을지 등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뒷바라지는 종단이 맡고자 하니 각자의 생각과 의견은 물론, 제안도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소통하자.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후에는 예방 일정이 잇따랐다.



진우 스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예방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는(사진 오른쪽) 화합과 상생을, 청년불자들에게는 소통을 강조했다.

첫 공식예방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인사를 전달하기 위해 종단을 찾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스님은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종교계는 국민들의 마음치유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종교와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경제가 어렵고 여러 상황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교의 정신적인 힘이 사회안정과 갈등해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특히 수석실이 대통령실 불자회와 논의해 진우 스님을 초청해 마음치유의 법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이어 예방한 신도회 임원단에는 “새로운 전법, 포교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며 화두를 던졌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윤식 회장과 박대섭 국군불자회장, 송일호 교수불자연합회장, 조석주 대학생불교연합회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의 예방을 받고 “대중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할 수 있는 전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명상 대중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승려복지제도 10년 발자취 담긴 백서 발간

승려복지회, 9월 27일 발간
법령 제·개정, 방향성 담겨



승려복지 제도 시행 10년의 활동과 성과 등 그간의 발자취를 정리한 백서가 발간됐다.

승려복지회는 9월 27일 “승려복지법 제정과 시행 10년을 기념해 2010~2021년 승려복지회 활동과 성과, 승려복지법에 따른 승려복지제도의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4개 목차로 이뤄진 백서는 △승려복지법 제정 관련 활동 △현행 승려복지제도의 내용 △승려복지회 10년의 활동과 성과 △향후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부록으로는 승려복지회 연표와 각 위원회 소개, 관계 법령 제·개정 현황, 승려복지회보 발행 현황,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승려복지법령 등이 수록됐다. 승려복지회는 이번 백서 발간으로 향후 승려복지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세우는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로서의 위의에 맞게 노후를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승가 공동체의 존엄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 강조하고 “승려복지회는 종단과 교구의 승려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정책을 생산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단장 김영석
포교사일동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www.pogyusadan.org

원행 스님, 박수 속 총무원장 임기 마무리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9월 28일 퇴임식
원력 모아낸 성과에 주목
"초심으로 수행정진하겠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사부대중의 아낌없는 박수 속에 4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사부대중의 아낌없는 박수 속에 4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2018년 출범한 36대 집행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초유의 위기상황에도 한국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원력을 모아내는 등 쉽지 않은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행 스님은 "사부대중이 함께한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저는 이제 다시 산으로 돌아가 초심의 자세로 수행정진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은 9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퇴임식을 거행했다. 종단 내부 행사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36대 집행부와 함께한 소임자 스님들과 새롭게 출범하는 37대 집행부 교역직 종무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원로회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도 함께해 원행 스님의 노고와 성과를 치하하고 축하를 전했다.

퇴임식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4년간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화합으로 종단 안정을 이끌고 종단 숙원불사를 잇따라 화향하는 등 쉼없이 정진해 온 노고에 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아쉬움도 컸다. 대중들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의 송별사에 맞춰 "원행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를 외치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 치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그동안 이루어온 기적과 그 수확을 확인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원행 스님은 지난 2018년 취임 후 화합과 혁신이 미래불교라는 서원으로 종단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초석마련을 위해 진력했고, 코로나19라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서 종단을 잘 이끌어 왔다"고 치하했다.

특히 "수확의 결실인 열매를 얻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때로 시절인연이 허락되고 모두의 화합이 있어야 진정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오늘 우리는 원행 스님과 36대 집행부가 수확한 수많은 결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임기는 4년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종단 발전이라는 원력으로 실천해 오신 노고의 시간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기에, 그 원력과 노고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원 대종사는 '회자정리 거자필반' 의미를 짚으며 "함께할수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다. 새로운 세상에서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길에서 계속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퇴임사에서 함께한 대중들에 대한 남다른 감사와 소회를 전했다. "많은 격려와 협조로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예를 올린다"며 합장인사로 말문을 연 스님은 대중의 박수에 "감회가 새롭다"며 미소로 화답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단상에 서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백만원력결집불사가 적지 않은 성과를 냈고 순항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지휘 하에 종단이 더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여려분들 역시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부대중은 범해 스님의 선창에 따라 "원행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를 재차 외치며 원행 스님의 임기 마지막을 함께했다. 퇴임식 후 모두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가벼운 걸음으로 일주문 밖을 나서는 원행 스님을 대중들이 합장한 채 배웅했다.

불교계 복지관, 노인의날 기념행사 '풍성'

가을맞이 여행 · 템플스테이
국악공연 및 공모전도 이어져


서울노인복지센터는 9월 29일, 노인의 날을 맞아 진행될 10월 한 달간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을 열었다.

10월 경로의 달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10월 21일까지 약 한달간 풍성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고금(古今), 옛것을 즐겨요' 주제로 열리는 행사들은 문화향유를 통해 옛스러움을 지금의 정취로 다시금 느껴보는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10월 5일과 11일, 13일 세차례에 걸쳐 강릉과 단양을 여행하며 10월 4일과 11일, 18일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템플스테이는 문화체험과 명상, 차담 등으로 꾸려진다.

지역 어르신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도 열린다. 10월 13일과 14일에는 센터 1층 주차장에서 나눔바자회와 함께 지역의 농산물을 소개하는 상생부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2층 로비에서는 짚풀 꼬기, 가훈 써주기 등 옛것을 다시 배워볼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부스도 함께 한다.

관장 희유 스님은 "수확의 계절, 노인의 날과 더불어 축하공연, 프로그램, 여행 등 어르신들을 위해 의미 있는 순간을 남겨드리고자 한다"면서 "옛것의 정취를 다시금 느껴보며 또 다른 특별한 지금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6220-8500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신재원)은 10월 5일 오후 1시,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개원 19주년 및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9988해피투게더'를 개최한다.

'녹색광진그린나루'를 주제로 열리 '9988해피투게더'는 환경 및 건강을 생각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지역문제(쓰레기 줄이기) 해결을 위해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환경 운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건강 부스가 운영된다. 02)466-6242

판교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일운) 등 성남시 내 노인복지관들은 10월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성남시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초청,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갖는다. 국악 및 트로트 공연에 이어 노인복지유공 표창, 경로헌장 및 노인강령 낭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031)620-2810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주지 혜철)은 노인인권존중대회 공모전을 개최, 관내에서 이용자간 상호존중, 인권보호, 배려 등에 대한 수기를 공모하고 우수작 5편에 대해 10월 7일 발표회를 갖는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법화종 총본산 안정사, 종단 품으로…정상화 종결

총무원, 9월 28일 안정사 회복 착수
집행관 대동해 고시문 게재
불법점거 상태 사실상 해제
"총본산 위상도 되찾을 것"
총무원장 직무정지도 기각



법화종 정상화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총본산 안정사가 종단 품으로 돌아왔다. 총무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관과 함께 안정사에 진입,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무단점거를 해제시키고 종무 방해금지 고시문을 게재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해종세력으로 치탈도첩된 前종회의장 성운(심재학) 스님 등이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상대로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기각됨에 따라, 모든 논란이 종결돼 종단 정상화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법화종(총무원장 관효)은 9월 28일 종단 총본산 통영 안정사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회복했다.〈사진〉 이날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진과 前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 안정사 주지 원담 스님은 법원 소속 집행관과 경찰관 대동 하에 안정사에 진입해, 총무원 · 주지 직무 방해금지 고시문을 경내에 게재했다. 안정사는 종단 총본산이자 제1종찰이지만, 종단 내부혼란의 여파로 해종세력과 외부인사 등 권한 없는 이들에 의해 불법점거된 후 회복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이에 총무원과 총무원이 공식임명한 주지 원담 스님은 前주지 이재열(승헌, 체탈도첩), 김연기(호암, 승적 없음)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9월 1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가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화종 총무원의 안정사 진입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오랜 세월 방치됐던 안정사가 총본산으로서 사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이런 가운데 前종회의장 성운 스님과 보선 스님이 20대 총무원장 관효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9월 28일 판결을 통해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 또한 성운 스님 측에서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사유는 심재학(성운 스님)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양형이 과다하게 여겨질 여지가 있어 본안 판결을 지켜본다는 취지"라며 "관효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것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성운 스님 등에 내려진 징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관효 스님의 총무원장으로서 정당성을 재확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과 안정사 회복으로 남은 과제들을 확실하게 정리했으니 이제 정상화 과제는 완수했다. 남은 것은 종단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고민과 실천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지희 기자

불교계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불교기후행동 · 사노위 등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



"지구 이러다 다 죽어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규모 행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된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행사에 동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호소했다.〈사진〉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불교기후행동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불교단체들은 9월 24일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9 · 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기후위기 정책 전환에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진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만 5000명, 경찰추산 1만 명이 참가했다.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 스님과 순례단장 법관 스님 등은 목탁을 치고 지구 모양 연등을 든 채 행진에 참여했다.

집회에 앞서 불교기후행동은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부스를 설치하고 지구연등을 제작하며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또 기후위기 정책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환경 보호를 염원하는 108배를 올리며 부처님 가르침을 시민들에게 전했다.

불교기후행동은 상임대표 일문 스님은 "불교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2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2 생명살림 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0월 25일(화) 오전 10시 (법문 11시 20분)
◈ 장 소 : 수원 봉녕사
◈ 내 용 : 기도 · 염불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선업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장, 불교상담개발원장)
◈ 문 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3년 만의 팔재계 법회…3200포교사 운집

포교사단 9월 24일 법주사서 팔재계수계법회

27기 320여명 포함, 대거 모여
김영석 단장 "적극 포교" 포부
범해 스님 "전법원력 드높이길"


조계종 포교사단은 9월 24일 보은 법주사에서 3200여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팔재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를 딛고 다시 한 번 전법포교의 원력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9월 24일 보은 법주사에서 제18회 팔재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팔재계수계대법회에는 32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포교원 스님들과 교구본사 스님들이 참석해 이들을 격려했다.

이번 팔재계 수계법회에서는 2022년 고시를 통과한 신규포교사 320여 명을 필두로 1기부터 총 3200여 포교사들이 참여했다.

팔재계 수계법회는 보통 1박 2일간 철야정진을 비롯한 오후불식 등 다양한 정진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회향을 기해 수계가 이뤄지지만 이번 제18회 팔재계 수계대법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하루로 일정이 짜여졌다. 참석한 포교사들은 오후불식과 함께 〈금강경〉 합송으로 전법 의지를 다졌다. 팔재계 법회에서는 오랜만에 모인 지역단간의 교류도 이뤄졌다.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포교사들은 조계종의 전법포교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가불자의 중추"라며 "앞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신행포교와 계층포교 활동을 전개해가겠다. 오늘 팔재계 수계법회를 계기로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인 전법포교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그동안 전법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각지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활동을 이어온 포교사들이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며 "오늘 팔재계 수계는 단순히 여덟 가지 계율 수지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지계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수행과 전법 원력을 다시 세우는 자리이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팔재계수계법회에서는 묵묵히 활약해온 포교사들과 포교사팀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상 개인상은 전북지역단 김덕순 포교사, 총무원장상 팀상은 광주전남지역단 북부총괄2 어린이팀이 수상했다.

또 포교원장상 개인상은 서울지역단 김현숙 포교사, 부산지역단 서영우 포교사, 대전충남지역단 길명호 포교사, 강원지역단 이주영 포교사, 울산지역단 조원석 포교사, 제주지역단 이화영 포교사가 받았다. 포교원장상 팀상은 서울지역단 서부총괄 통일포교팀, 부산지역단 지역중앙 군 지국천팀, 대구지역단 동부 불교문화해설 동화팀, 강원지역단 속초총괄 군포교팀, 경남지역단 동부총괄 군포교 가야팀, 경북지역단 동부 지역봉사 자리이타팀에게 돌아갔다.

수계법회 후에는 신임 27기 포교사에 대한 품수식도 이어졌다. 320여 포교사 대표로는 최연소 포교사인 조주연, 한지훈 포교사가 대표로 나와 포교원장 범해 스님으로부터 일반포교사증과 단복을 수여받았다. 이어 윤지홍 신임 포교사를 대표로 전도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원력을 세웠다.

청련사, 생전예수재 세미나 개최

10월 8일 청련사 대적광전에서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와 사단법인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가 10월 8일 오후 2시 청련사 대적광전에서 '경제 동교범패 청련사 범맥과 어장 상진 범음성 세계'를 주제로 불교음악학회 제4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교 천도의식인 생전예수재의 의미와 역사를 돌아보면서 1200년 전통을 간직한 청련사 예수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청련사는 20세기 초부터 경제(京制) 동교(東郊)파에 속한 주요사찰로, 1910년 청련사로 출가했던 능해 스님(1892~1979), 덕봉 스님(1911~1994), 청호 스님(1915~1999), 춘담 스님(1915~1960), 벽파 스님(1939~2011), 백우 스님(1934~2015)이 계보를 이어왔다. 현재는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를 이끄는 어장 상진 스님이 생전예수시왕생칠재를 설행해오고 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을 좌장으로 양영진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의 '청련사 예수재와 바깥채비소리 연구', 이용식 전남대 교수의 '청련사 예수재와 안채비소리 연구'가 발표된다. 2부에서는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를 좌장으로 위재영 국립국악관현악단원의 '청련사 예수재에 수반되는 기악 연구', 고경희 한국춤협회 이사의 '청련사 예수재 작법무 연구' 등이 발표된다.

상진 스님은 "이번 학술 세미나가 생전예수재의 역사문화적 의의를 새롭게 인식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련사는 이에 앞선 10월 4일 청련사 야외법당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 지정 기념 생전예수시왕생칠재를 설행했다. (031)836-2439 노덕현 기자



美해군 장병의 한국불교 체험 부산에 입항한 美해군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 승무원들이 9월 25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 방문해 사찰음식 체험 등을 진행했다. 한미 우호 증진행사로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승무원들은 참선과 발우공양 등으로 한국불교를 이해했으며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놀이를 즐겼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한미 동맹을 다지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3대불련 창립 60주년 앞두고 동문 결집 모색

대불련 총동문회 9월 24~25일 제18회 전국동문대회 개최



전국동문대회에는 400여 대불련 동문들이 모여 원력을 모았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전법 활성화와 청년불자 지원을 다짐했다.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변대용)는 9월 24일과 25일 무주 태권도원과 백련사에서 제18회 전국동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동문대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열린 행사로 400여 대불련 동문과 대불련 회원 학생들이 참여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최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대불련 동문 선후배들의 원력을 모으는 대학전법센터 건립 불사를 진행 중에 있다. 동문대회에서는 전법센터 건립에 대한 뜻이 새롭게 모아졌다.

변대용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대불련 역사의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갖고 있는 원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꿈꾸었던 희망이 무엇인지를 떠올린다"며 "동문들의 원력과 후원으로 결집하는 결사 속에 희망이 싹튼다"고 당부했다.

무주 백련사 회주 평상 스님은 "오늘 동문대회에 참석한 대불련 선후배들이 있었기에 한국 불교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여기 모인 분들이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희망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조석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60년차 회장은 "이제 대불련 법우들 중에는 부모님이 대불련 회원이었던 이들이 늘고 있다"며 "불연이 항상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불련 총동문회는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온 대불련 동문들에게 자랑스런 대불련인상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故 한정희 여사 출연금으로 조성된 시곡 장학금이 모범적이고 학업이 우수한 대학생 불자들에게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난치병 어린이 지원

역대 최고 2억 4천만 원 모금
국내외 아동 29명 후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올해 2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9월 2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22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선정심의를 열고 금액 및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9월 30일 진행된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연중캠페인을 통해 총 2억 4000만 원이 모연됐다. 2001년부터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이래 최고 모금액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 환아 19명, 라오스 환아 10명 등 총 29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2억 40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은 국내 난치병 아동 지원, 6600만 원은 해외 난치병 아동 지원에 쓰인다. 긴급 치료를 위한 예비비로 4800만 원을 배정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아동 나이와 중증, 경제력 정도 등을 고려해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10월 중 전달될 예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모금에 동참해 최대 성과를 낸 만큼 더 많은 환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24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제14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생명나눔 열기, 음악과 함께 가을 산사 물들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⑩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현장

남양주=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9월 24일 남양주 불암사서
14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희망의 내일' 주제로 열려
장학금 · 환자 치료비 전달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아 남양주 불암사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24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제14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2007년 시작해 올해 14회째를 맞은 산사음악회는 대중들에게 문화를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음악회는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오늘, 희망의 내일'을 주제로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봉선사 주지 초격, 일면장학회 이사장 일관 스님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배우 남일우, 김용림 부부, 생명나눔 후원회원과 불암사 신도,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대면 음악회인 만큼 체험과 공연을 즐기려는 가족단위 관람객이 대거 몰리면서 불암사 경내가 오랜만에 북적였다.

행사에 앞서 산사음악회의 분위기를 북돋아줄 식전행사가 진행됐다. 불암사 합창단과 마하나눔소리의 북공연이 이어졌다. 화려한 북공연은 많은 관중의 환호와 박수를 이끌어 내면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신명 나는 무대에 이어 일면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2001년 창립된 일면장학회는 배움에 열정을 가진 학인스님들에게 공부와 수행 정진을 지원하는 한편 불자학생들도 지원해 불교 인재를 양성하고자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다. 일면장학회의 명칭은 前 조계종 호계원장과 초대 군종교구장,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일면 대종사의 법명에서 따온 것이다. 장학금 지원은 올해로 22회가 됐으며 매년 전후반기를 합쳐 약 30여 명에게 장학금 3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은 학인스님 9명, 학생 8명 등 총 17명에게 장학금 1280만 원을 지원했다.

또 난소낭종으로 치료가 급한 김모 씨를 이달의 치료비 지원 환자로 선정, 100만 원과 일면 스님 자서전, 단수를 전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환우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연간 60여 명의 환자에게 2억여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동국대 참사람사회공헌센터에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센터가 모집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일면 스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법인발전기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이자 생명나눔 축구단 단장인 추성호 부회장은 일면 스님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며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응원했다.

본 행사가 마무리 되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이 무대에 올라 산사음악회의 시작을 열었다. 이어 가수 최정철, 배아현, 신성, 김소유, 양지원, 은가은 등이 출연해 선선한 바람이 가득한 불암사의 가을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사회는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이익선 아나운서가 맡았다. 이날 음악회는 BBS불교방송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됐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불암사 산사음악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의 감동뿐 아니라 생명나눔의 참뜻을 알리고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해 준 기증자와 공로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면서 "한 해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더불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도 실천하는 문화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매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공연장 앞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이 진행됐다. 또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송산노인복지관과 마하무용단이 운영하는 바자회도 열렸다. 의류, 신발 등 생필품과 국수, 파전 등 먹거리 판매수익은 전액 겨울철 난방비 지원 등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원하는 복지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1994년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생명나눔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28년이 됐다. 장기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면장학회는 학인스님과 학생 17명에게 장학금 1280만 원을 전달했다.



가수 최정철, 배아현, 신성 등이 출연 가을밤을 풍성하게 했다.


관람객들로 불암사 경내가 오랜만에 북적였다.





2022 제3회

생명나눔대상

후보자 추천

생명나눔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추천해주세요

시상부분 대상, 홍보상, 생명상, 나눔상

시상내역 대상(500만원), 홍보상(100만원), 생명상(100만원), 나눔상(100만원) 및 상패

신청기간 11월 6일까지

시 상 2022년 11월 19일(토) – 제13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행사 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

문 의 02-734-8050 / www.lisa.or.kr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행 선사 원력 도량 참배한 세계 석학들 "원더풀"

한마음과학원, 9월 27일 국제학술대회 워크샵 개최

한마음과학원 국제학술대회 참여한
세계 석학들 20여 명 부산지원 찾아
한마음유치원·대웅보전 등 도량탐방
대행선사 교육철학 · 대작불사 감탄
들차회 찻자리·음성공양에 박수갈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9월 27일 부산지원 일원에서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워크샵'을 진행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한마음유치원을 견학하는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세계 석학들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을 방문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원력이 담긴 불사의 결과를 확인한 석학들은 연신 감탄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9월 27일 부산지원 일원에서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워크샵'을 진행했다.

워크샵에는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과 혜동 스님, 혜찬 스님, 혜진 스님, 혜각 스님, 브렛 G. 샤프스 교수(미국 브리검영대) 한스욕 에플레 교수(독일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리가르도 다니엘 블랑꼬 박사(아르헨티나 의료협회), 김재영 교수(서강대), 한마음과학원 학자 등 20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방문해 대행선사의 교육철학을 현대 교육에 적용한 현장을 둘러봤다. 한마음 유치원은 "정신세계와 마음의 도리를 알아 물질세계에 바로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 설립됐다. 참석자들은 유치원 수업 현장을 지켜보며 유아들의 학습 현장과 및 시설을 직접 견학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도량을 탐방하며 대웅보전을 방문했다. 대웅보전에서 참가자들은 부처님께 참배한 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설립 역사를 설명하는 영상을 시청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불사는 한국 최고의 장인이라 손꼽히는 중요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이 도편수로 진두지휘했으며, 주불인 석가모니불은 목아 박찬수 조각장이, 후불 목탱화는 문화재 기능보유자인 청원 스님이 담당했다. 기와는 중요문화재인 이근복 번와장, 옻칠은 정수화 칠장이, 단청은 김성규 단청장이, 외부 벽화는 이연욱 화백이 참여했다.

부산지원은 1987년 12월 13일에 개원했으며 개원 이후 대행 선사 초청법회를 부산 KBS홀과 사직실내체육관 등에서 6차례나 개최하며 포교 활동을 이어왔다. 부산 KBS홀에서 열린 법회에는 연이어 2000여 명이 동참해 한국불교에 반향을 일으켰다. 1997년 9월 28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봉행된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대행 선사 부산대법회에는 3만여 명이 참석해 성금 2억 5000만 원을 모금 · 전달해 고려대장경연구소의 팔만대장경 전산화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원장 혜도 스님은 "부산지원에서 오랜 세월 수행과 포교활동을 이어왔다"며 "불사를 하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참가자들은 해수관음상에 참배한 후 들차 찻자리에서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한마음선다회는 야외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들차 찻자리를 열었으며 차 한 잔에 담긴 정성과 선의 정신을 전했다. 한마음선다회는 백차, 말차, 황차 등 5대 차류를 맛볼 수 있는 찻자리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다화(茶花)로 손님들을 맞았다. 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과 정필윤 지휘자의 음성공양과 윤재웅 선생의 피아노 연주곡이 더해지자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소감을 전했다.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성장이란 단어가 떠올랐다"며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성장하는가는 중요한 숙제다. 우리도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오늘의 환대에 깊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리가르도 다니엘 블랑꼬 박사는 "찻자리와 음악들이 정말 아름답고 도량을 돌아보는 시간이 행복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한마음과학원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마음, 과학, 종교'를 주제로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미국 · 캐나다 · 독일 · 이스라엘 · 아랍에미레이트 · 대만 · 아르헨티나 등 8개국 20여 명의 석학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석학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촌의 문제를 되짚고 공생, 통합, 평화의 방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송삼종 부산공무원불자회 신임회장 취임

9월 23일, 쿠무다서 이 · 취임식

송삼종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이 부산공무원불자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9월 23일 부산 송정 쿠무다 콘서트 홀에서 '부산시 공무원불자회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 최대경 부산시공무원불자회 고문, 이희태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회장, 신기열 부회장, 김홍종 부회장, 장병주 사무총장을 비롯한 공무원 불자들이 참석했다.

송삼종 신임회장은 "우리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항상 한 차원 높은 덕목을 요구받으며 살아간다. 보다 공정해야하고 보다 청렴해야 하며 품위를 지키고 윤리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불자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은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아래 서로 힘을 합치고 연대를 돈독히 하여 우리 공무원불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신행불자회로 발전하도록 진심으로 발원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9월 23일 부산 송정 쿠무다 콘서트 홀에서 '부산시 공무원불자회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개최했다. 송삼종 신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사는 전임 회장의 공로를 치사하고 공로패와 사진첩을 전달했으며 이후 이병주 밴드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1991년 9월 당시 부산시청 내무국 시정과장으로 재직하던 주동관 전 상수도본부장을 초대 회장으로 시작됐다. 출범 당시 20여 명의 불자들이 일과 후 회의실에서 법문 테이프를 들으며 모임을 이어갔으며, 1996년 당시 교통기획과장으로 재직하던 최익두 고문이 2대 회장에 추대돼 2009년 7월까지 18여 년 동안 모임을 이끌었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이갑준 고문이 제3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16개 구 · 군 불자회 창립으로 모임을 확장해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우리불자회 봉사단을 구성해 금정노인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팔관회, 사명대사 추모대재 등 불교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월요 참선반 운영, 사단법인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와 협약식, 부처님오신날 공양물 나눔 행사 등을 전개해 2020년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수여하는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꾸준한 활동과 회원 모집으로 현재 1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부산불교 활성화 위한 간담회

9월 25일, 20여 신행단체 참석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중요해"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9월 24일 선문화교육관에서 '부산불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신행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포교신행단체의 현황을 파악해 개선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교구본사 범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포교국장 눌은 스님과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부산개인택시법륜회, 부산불교방송 사진가회, 범어사 불교대학총동문회, 금정총림 포교사회, 부산불교지도자포럼, 국제포교사회 등 신행단체 대표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신행단체에서는 무엇보다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에 대한 발전과 향후 계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원규 부산불교방송 사진가회 감사는 "어린이들이 편하게 사찰을 찾기에는 너무 엄격한 기준이 많고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와 공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9월 24일 선문화교육관에서 '부산불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신행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용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처장은 "파라미타는 불교기관이다. 스님들과 사찰의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범어사 템플스테이가 학생들을 위해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경내에서 뛰어놀고 사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포교방향을 논의하겠다. 또 파라미타 활동 시 적극 동참하도록 의견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안건 및 논의를 가져오면 더욱 더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불교대학 활성화, 각 신행단체 활동 정보도 공유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소통하고 현실적인 대안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오늘 참석해준 모든 신행 단체에 감사하다.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범어사로 역할을 다하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聯, 제14대 회장 보운 스님 추대

9월 27일, 제51차 임시총회 개최

"수천 수만 부산시민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과거 수천 년 간 이어져 온 한국불교의 신심, 부산불교의 원력을 늘 새길 것입니다"

부산불교연합회 제14대 회장에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 27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제51차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을 추대했다.

임시 총회에는 재적 108명 중 위임 8명, 참석 63명 총 71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정관 제15조 2항에 의거해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총회에서 고문 정각 스님이 보운 스님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원 스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의결됐다.



보운 스님은 "부산 불자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 삼보를 외호하며 신심을 놓지 않았다. 부산을 '불도(佛都)'라 부르는 이유이다"며 "남다른 부산 불자들의 신심에 힘입어 1980년 부산불교연합회가 불법홍포를 기치로 창립됐다. 부산불교의 원력을 늘 새기고 부산불교연합회는 부산시민들을 위해 언제나 저물지 않는 불빛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장 보운 스님은 금용암 주지 범수 스님을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지명했으며, 회원 스님들의 찬성으로 임명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제1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

9월 24일, 천년고찰 및 자연환경 주제

영축통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9월 24일 통도사 경내 일대에서 제1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생대회는 개산대재를 기념하여 열렸으며, 주제는 '창건 1377주년인 통도사 천년고찰 및 자연환경'이다.

참가한 전국 초중고 200여 명의 학생들은 불지종가 통도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화폭에 담았으며, 함께 참여한 학부모들은 가을 국화로 수놓은 도량에서 여유를 만끽하며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회향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개막식에서 "개산 이래 통도사는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담아 고유의 정신을 이어온 대가람"이라며 "개산조 자장율사의 정신과 오랜 시간 이어온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상자는 9월 27일 통도사 홈페이지와 양산미술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시상식은 10월 4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각 70만 원, 은상 각 30만 원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입상작과 출품작은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양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 부산, 난치병 환우 돕기

9월 24일, 부산 영광도서 8층

부산지역 본부 창립 16주년 기념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 열어
공연 등 다양한 재능 기부 무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가 9월 24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8층에서 '난치병 환우 돕기 생명나눔 기금 마련을 위한 라온(LA · 溫) 하루찻집'을 열었다.

하루찻집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창립 16주년을 기념하여 부산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의 오공양작법, 동림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등 다양한 재능기부 무대로 진행됐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개막식에서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오늘 행사는 자비와 나눔을 위한 행사로 뜻깊다"며 "아울러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불교계에서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동안 신뢰를 인정받고 활동한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느껴져 의미가 남다르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빛고을 공무원불자 한데 모이다

광주불교연합회, 9월 25일 제1회 합동수계법회 봉행

광주시청 · 경찰청 등 연합 108명 공무원 불자 탄생 수계, 지역사회 헌신 다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와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는 9월 25일 관음사에서 '제1회 광주지역 공무원불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광주지역 공무원 불자들의 합동수계법회가 봉행돼 화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와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신도회장 이범식)는 9월 25일 관음사에서 '제1회 광주지역 공무원불자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서는 108명의 새로운 공무원 불자가 탄생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수계식에는 광주광역시청불자회, 광주경찰청불자회, 동구청불자회, 서구청불자회, 남구청불자회, 광산구청불자회 등 5개 주요 관공서의 공무원 불자들이 참여했다.

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도성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갈마아사리(소운 스님, 관음사 주지), 교수아사리(중현 스님, 증심사 주지)를 비롯해 동현 스님(신광사 주지), 무진 스님(약사사 주지),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 상진 스님(광덕사 주지), 법진 스님(운천사 주지), 혜준 스님(호국금강사 주지), 수암 스님(관음사) 등 10명의 증명법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병훈, 민형배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행사는 명종 5타를 시작으로 도량결계 의식, 기념식, 증명계사 등단, 청정수 합수(3보사찰), 계율에 대한 설법, 수계의식, 축하공연, 사찰음식 공양으로 진행됐다.

도성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승단에 귀의하는 종교다. 그리고 오늘 수계를 받은 5가지 근본계율을 통해 청정한 삶을 이어가면서 수행을 하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의 종교"라고 강조하며, "오늘 계를 받는 삼귀의계와 오계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더욱 커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범식 신도회장도 인사말에서 "법성계의 '초발심시 변정각'처럼 처음 보리심을 내는 순간이 중요하다. 오늘 공무원 불자는 그런 보리심을 내어 자신의 깨달음과 가족과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시작하는 자리"라고 격려했다.

첫 수계법회에 참여한 공무원 불자들의 감동도 이어졌다. 이정신 광주시청 불자회장은 "법명을 받고 불자로서 첫 출발하는 자리라 큰 감동을 받았다. 공무원 불자로서 공직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광주지역 공무원불자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진행한 올해 첫 연합행사인 이날 수계법회는 광주불교연합회 부설사)빛고을나눔나무와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불교단체를 위해 수계법회 외에도 템플스테이, 사찰순례 지원, 리더스아카데미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쌍계총림 쌍계사 개산 1298주년 대축전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는 9월 29일 쌍계사 대웅전에서 개산 1298주년 및 창건1182주년 기념 대축전을 진행했다.

대축전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을 비롯해 본 · 말사연합회장 이암 스님, 보리암 성조 스님, 유나 종성 스님, 용문사 승원 스님, 용화사 종묵 스님, 칠불사 도응 스님 등 대중스님들과 경남 포교사단 안정임 서부지역 총괄팀장 등 포교사들이 참여했다.

영담 스님은 "개산 1298주년 및 창건 1182주년 기념대축전을 계기로 고산 대선사 유지를 잘 받들어 문도들과 본 말사 스님들이 '불식촌음'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지장정사, 헌식대 지장보살 점안식



울산 남산 지장정사(주지 현우)는 9월 24일 지장정사 경내에서 헌식대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에는 지장정사 현우 스님, 증명법사 대한불교옴조계종 총무원장 정우 스님, 전통복장 정담 스님, 청광 스님, 영선사 홍산 스님, 고견사 지성 스님, 열린선원 창윤 스님, 사다함 위하라 마힌다 스님 등 스님들과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및 관음조합창단, 구경각 밴드장, 덕산 갤러리 원장 등 대중이 참석했다.

지장정사 주지 현우 스님은 "울산 남산을 찾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 쌍봉사 11년간 이어온 孝잔치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쌍봉사(주지 보경), 동부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11년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9월 23일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올해로 11번째로 진안군내 11개 읍면 75세 이상의 어르신 100분이 초청됐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평생을 진안에서 살아오면서 후배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진안군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생신 축하자리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쌍봉사 보경 스님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전통 '탁발', 양동시장서 재현

지금은 사라진 한국불교의 전통 탁발의식이 시장에서 재현됐다. 광주파라미타청소년연합(지부장 소운)은 9월 24일 광주 양동시장 일원에서 '제3회 전통탁발재현 문화행사'를 갖고 오랫동안 잊혀진 한국의 탁발의식 재현행사를 봉행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소운 스님,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상임대표



동천 스님을 비롯해 김이강 서구청장, 이범식 신도회장, 김용목 양동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식전행사인 양동시장 상인을 위한 호박죽 나눔공양을 시작으로 희망콘서트, 조선대 풍물팀의 길놀이가 이어졌다. 이어 기념식과 탁발 행사를 통해 마련된 '희망나눔 장학금 전달'과 함께 만장기, 동자승, 탁발 스님, 광주운전불자회, 포교사단, 신도 등 100여 명의 긴 탁발 행렬이 양동시장을 장엄했다.

탁발을 끝낸 일행은 이어 양동시장 상인과 지역민을 위한 기도와 축원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관음사, 이웃위한 공양미 콘서트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가 9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익산 시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제5회 공양미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공양미 콘서트는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의 찬불가 등 합창곡 공연, 국악인 김유라 학생, 소리야 난타팀, 지역활동 가수 등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덕림 스님은 "익산 도심에 위치한 관음사의 특성상 산사음악회 보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고민하다 공양미 콘서트를 열게 됐다"며 "관음사 신도들과 불자들이 모아주신 공양미를 익산시청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대, 선운사 대웅전 기둥 실측 발표

보수공사중인 선운사 대웅보전(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기둥을 실제크기로 제작한 전시회가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는 9월 24일 선운사에서 선운사 대웅보전 기둥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지도교수 남해경)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선운사 대웅보전 5번 기둥을 실측하고 3D로 설계해 제작한 이 작



품은 4.5m×4.5m 넓이에 높이 9m에 이르는 대형 구조물로 대웅보전의 실제 기둥과 같은 크기로 제작됐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개막식에서 "대웅보전 건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한옥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정과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는 전북대 조기환 부총장과 임정호 고창군의회의장, 김만기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등이 참석했다. 전시는 10월 3일까지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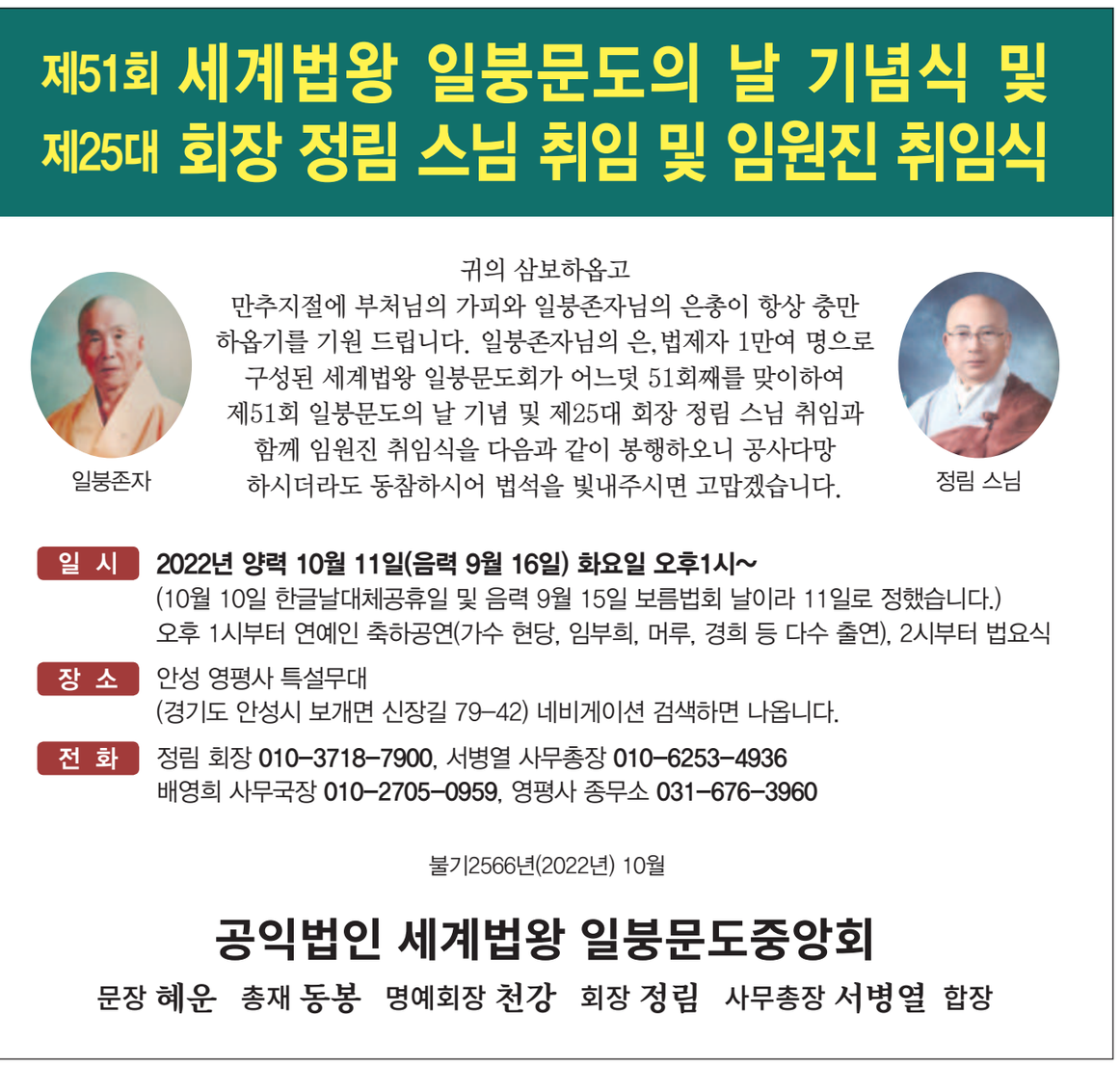
창녕 약수사 9월 25일 미륵불 점안식



창녕 약수사(회주 지암)는 9월 25일 오전 10시30분 미륵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현섭당 지암 대종사(법상종 종정)는 법어를 통해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뿌리채 뽑아 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불에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며 "사바세계를 비춰주시는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언제 어느때나 항상 나를 가꾸고 성찰하는 자세를 잃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청주 정화사 회주 경천 스님, 대구 천궁암 회주 소운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아시아 불교유물, 뉴욕 경매 대거 출품

53억 원 상당 불교미술품 3점
카슈미르 예술양식 관음보살상
11세기 조성 마하칼라상 '눈길'
통일신라시대 금동불도 출품

박영빈 객원기자



소더비 가을 경매에서 주요 출품작으로 등장한 불교 유물들. 사진출처=더 밸류

아시아에서 조성된 다양한 불교유물들이 미국의 경매에 대거 출품됐다. 가을 경매시즌을 맞이하여 '아시아 위크 뉴욕' 으로 주제를 정한 주요 미술품 경매사들이 아시아 미술품들을 전시하면서 다양한 불교유물들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미술품 전문 온라인 매체인 '더 밸류' 는 지난 9월 19일, 소더비 경매에 출품된 3점의 불상과 불화를 중심으로 경매에 등장한 불교유물들을 소개했다.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회사인 소더비는 경매시즌을 맞이해 아시아 불교미술을 중심 주제로 한 '다르마 앤 탄트라(Dharma and Tantra)' 경매를 진행한다. 소더비 측은 주 출품작으로 11세기에 제작된 티베트 청동 관세음보살상, 16세기의 중국 금동 보장 마하칼라(寶帳 Mahakala)상, 12~13세기 티베트의 바즈라바라히(Vajravarahi) 만다라를 선보였다. 3개 작품은 현재 최저 낙찰 예상가만 총 370만 달러(한화 약 52억 9천만 원)으로 추정되어 미술계와 불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세음보살상은 카슈미르 예술양식을 따른 11세기 서부 티베트 불교예술의 걸작으로 이미 지난 2000년도 춘계경매에서 한 차례 출품된 바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또 12~13세기에 그려진 것을 추정되는 바즈라바라히 만다라는 시대에 비해 완벽한 상태로 역시 지난 2018년 프랑스 크리스티 경매에서 당시 한화 8억 3천만 원 가량에 낙찰된 것으로 화제를 끌었던 작품이다.

가장 주목 받는 작품은 11세기 중국에서 조성된 보장(報障) 마하칼라상으로 당시 티베트불교를 강력히 지원했던 명나라 제10대 황제 정덕제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이다. 특히 좌대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1514년에 당시 황실의 말을 관리했던 태감 오량(吳亮)의 발원으로 조성됐음이 확인돼 더욱 가치를 발하고 있다.

더 밸류는 "소더비가 이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한 것은 매우 뛰어난 선택"이라며 "오량은 당시 단순한 말을 관리한 내관이 아닌 군사문제와 관련된 모든 재정문제를 담당했다. 보장 마하칼라가 당시 재산의 수호와 함께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으로 신앙되었기에 그 둘의 연관성은 매우 흥미롭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시기에 또 다른 내관의 발원으로 조성한 티베트 양식의 금동불이 현재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에 소장된 것으로 조사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동일 경매에는 당나라때 조성된 금동 대세지보살상과 요나라 때의 금동 가섭존자상이 함께 출품됐으며 높이 29cm 가량의 통일신라시대의 한국 금동여래입상과 한국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14세기 반가사유좌상도 출품됐다.

영미권에 불교 전한 1세대 티베트 노승 입적

'게쎄 껠상갸초' 영국서 입적
전 세계 센터 1300개소 개설
큰스님업적 기리며 애도 물결
"교단 분열 일으켰다" 평가도



NKT의 창설자로 해외불교계의 평가가 극명히 갈리는 게쎄 껠상갸초 스님.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영미권에 불교를 전한 1세대 스승으로 꼽히는 티베트 출신의 게쎄 껠상갸초 스님이 영국에서 입적했다. 세납 91세, 법랍 83세. 스님의 입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전 행보에 대하여 인터넷 상에서는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9월 22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과 '트리사이클' 은 스님의 입적과 불자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지난 9월 17일, 스님이 창설한 티베트불교 교단인 '신 까담빠 전통(New Kadampa Tradition)' (이하 NKT)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입적사실을 발표했다. NKT측은 "스님께선 매우 평화롭게 입적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다" 고 전했다. 또한 "스님은 평소에 '그대들이 나의 일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셨다. 이제 그 때가 우리에게 왔다. 스님이 뿌리신 평화와 희망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자비로운 소망이 성취 될 수 있도록 나아가자"며 입적한 껠상갸초 스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게쎄 껠상갸초 스님은 1931년 티베트에서 태어나 8세에 출가, 1959년 인도로 망명하여 남인도에 재건된 쎄라사원의 강원에서 수학했다. 이후 1977년 영국 북서부에 세워진 불교센터인 '만주쉬리 연구소' 의 상주법사로 부임했다. 이후 1979년 동일 센터를 완전히 인수하고, 1991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티베트불교 교단인 '신 까담빠 전통(New Kadampa Tradition)' (이하 NKT)을 창설했다 생전 영미권과 아시아에 1300개소 이상의 불교센터를 개설하고 영어로 된 25권의 불교저술을 남기는 등 서구에 티베트 불교를 전한 1세대 스승 중 한 명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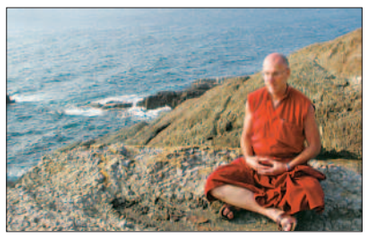
그러나 스님의 입적에 대해 해외 티베트불교 교단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NKT를 비롯해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단체와 교단들은 애도를 표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을 비롯한 많은 불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표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NKT의 창설로 인한 티베트 교단의 분열과, 도르제 슉댄(Dorje Shugden)문제로 알려진 티베트 불교 내의 갈등을 증폭시킨 중심인물이란 것이다.

스님의 부고를 전한 '트리사이클' 은 "껠상갸초 스님이 처음 서구권에 부임한 영국의 만주쉬리 연구소는 본래 대승불교유지재단(FPMT)이 영국에 불교를 전하는 거점으로 설립했던 곳이다. 그러나 FPMT 지도부와 불화를 일으켰고, 독단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FPMT와 분리됐다"고 덧붙였다.

껠상갸초 스님은 이후 1991년에 전통 교단과 완전히 갈라서 NKT를 창설하고 독자적인 교단체계를 운영하면서 분열을 일으켰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또 스님과 NKT가 '도르제 슉댄' 이라는 호법신을 예경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 서양인 불자는 스님의 부고에 대해 "불교를 서양에 전한 공로는 크지만, 그만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 인물임도 부정할 수 없다. 불교의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공보다는 과가 크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 주치의 컬진 교수 번아웃 빠진 의료진 위한 이타행

美서 비영리단체 'AIMI' 운영



달라이라마 주치의 배리 컬진 교수. 사진제공=유대인신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 피로가 자살 충동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발표할 만큼 전 세계 의료 종사자들이 육체적 ·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던 지난 2년. 팬데믹이 휩쓸고 간 후 의료 종사자들은 어떻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을까. 여전히 우울과 번아웃을 해소하는 의료 종사자들의 마음은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

여기 의료 종사자들의 심신을 달래기 위해 이타심을 실천하고 있는 한 비영리단체가 있다. 14대 달라이 라마의 개인 의사인 가정의학과 교수 배리 컬진(Barry Kerzin)이 설립한 AIMI다.

영국 런던에 기반한 유대인 주간지 '유대인신문(jewishchronicle)' 은 9월 22일 피츠버그에 기반한 비영리단체로서 탈진과 우울증 등 의료 종사자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AIMI를 소개했다. 이 연구소에는 1만8000여명의 UPMC 간호사, 정부관리, 교육자 및 지역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컬진은 "코로나 대유행은 전 세계 사람들의 심리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며 "AIMI는 '감정위생' (emotional hygiene)뿐만 아니라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사람들의 행복과 관용,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정위생을 통해 분노를 관용으로, 질투심을 감사로, 자존심이나 오만함을 겸손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을 인식하고 줄임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컬진이 AIMI를 설립한 것은 지난 수 년 간의 여행과 탐구의 결과다.

캘리포니아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컬진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를 졸업한 후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33년 전인 1989년께 인도에 머무는 동안 티베트 의사들의 연구를 도왔다.

그는 "당초엔 1년 만 티베트에 있을 계획이었으나 나는 떠나지 못했다. 불교를 더 공부하고 명상을 시작했다. 나는 불교 철학과 심리학이 내 존재의 더 깊은 핵심과 공명한다는 것을 알아챘다"라고 회고했다. 결국 그는 티베트 불교에 귀의했고, 달라이 라마의 주치의가 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NGO "비할랄제품 판매 확대하라"

"불교인들 할랄 제품 비싸게 살 필요성 못 느껴"



비할랄 제품 판매 확대를 외치는 태국 불교도들. 사진제공=더타이거

전 세계적으로 할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태국의 비영리단체가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에 할랄 라벨이 없는 제품을 파는 매대를 제공하라고 요청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태국 매체 '더타이거' (The Thiager)의 9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불교평화수호'(BPP)는 9월 20일 방콕 실롬로드에 위치한 CP타워 앞에서 "할랄 라벨로 인해 상품이 더 비싸진다"며 "할랄 라벨이 없는 제품을 따로 판매하라"라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에 따르면 태국중앙이슬람위원회에서 승인한 16만개의 할랄 라벨 제품은 라벨이 없는 제품에 비해 더 비싸다. 인구의 대다수가 불교도인 불교국가에서 같은 제품을 할랄 라벨이 붙었다고 해서 더 높은 가격에 사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BPP의 대표인 프라팟 키트류디쿤(Praphat Kittiruedeekun)은 "할랄 라벨이 붙은 제품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은 불교도의 의무"라며 "할랄 라벨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를 검색하시면 상세 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02·720·9600 maumtour.com



한국인을 위한 2022년도

달라이라마 친견법회

자비심의 가르침을 생생히 보여주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법문이 2022년 11월 25일부터 2일간 인도 북부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왕궁 앞에 있는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법회장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최** | 여수 석천사 진옥(061-662-1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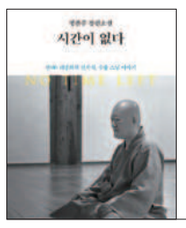
문의 및 접수 |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법회 동참 일정 (상세한 일정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C 팀 달라이라마 법문 및 인도성지순례15일 (11월 22일 출발 – 12월 6일 도착)
(동참금 35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달라이라마 법문 및 인도 불교 7대 성지순례-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나란다 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

D 팀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성지 순례와 달라이라마 법문 11일 (11월19일 출발 – 29일 도착)
(동참금 309만원-보시금 30만원 포함)
그 옛날 실크로드 파미르고원으로 가는 길목이며 불상이 최초로 조성되고 불교가 번성하였던 간다라는 부처님 고행상으로 유명한 라호르박물관과 탁실라의 사원들 그리고 페샤와르까지 순례하고 달라이라마 법회에 참가하는 일정입니다.
11월19일 인천-델리-암라차르 / 20일 암리차르-파키스탄 라호르 /21일 라호르-탁실라 박물관,사원 순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바마드 / 22일 이슬라바마드-세계문화유산 탁티바히 사원-페샤와르-이슬라바마드 / 23일 이슬라바마드-라호르-암리차르 24일 암리차르-다람살라 25일-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 2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 27일 다람살라-행복한 계곡 따시종-캄툴린포체 사리탑 기도 및 법문-찬디가르 / 28일 찬디가르-델리 / 29일 인천공항 도착

“온몸으로 의심하면 7일 안에 체험하리라”



시간이 없다
정찬주 지음
불광 펴냄/1만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수행자의 삶과 정신세계 탐구해 온 정찬주 작가가
10여년의 세월을 응축해 써 내린 또 한 편의 역작

간화선의 현대화 세계화 선구자이자 이 시대 선지식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삶과 수행을 소설로 만나다

“잘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답을 구하기 어렵다
그 모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선지식의 역할이다”



“만일 한정된 날짜에 공을 이루려면 마치 천 길 우물에 빠졌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이나 낮이나 천 생각 만 생각이 오로지 다만 한낱 우물에서 나오려는 마음뿐이고 끝끝내 결코 다른 생각이 없는 것과 같이하여라. 진실로 이렇게 공부하기를 3일 혹은 5일 혹은 7일 하고도 깨치지 못한다면 서봉은 오늘 큰 망어를 범했으므로 영원히 혀를 뽑아 밭을 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고봉원묘 선사〉

고봉원묘 선사의 말은 간화선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간화선이 얼마나 신속하게 핵심을 파고드는 수행법인지를 설명한다. 간화선은 달마 대사로부터 시작된 선(禪) 불교에 뿌리를 둔 한국불교 정통 수행법이자 최상승의 수행법이라 불린다. 하지만 지도 방식과 수행 과정의 난해함으로 인해 보통 사람은 접근하기 힘들다거나 평생 참선에 몰두한 스님조차 쉽사리 하지 못하는 수행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이러한 선입관을 180도 뒤바꾸어 놓은 선지식이 바로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다. 현대 간화선의 선구자라 불리는 수불 스님은 출가자든 재가자든 마음을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 7일이면 체험할 수 있는 수행으로서 간화선을 지도하고 널리 알려 왔다. 지난 30여 년간 수만 명의 사람이 스님의 가르침 아래 돈오(頓悟)를 체험했다.

이 책 〈시간이 없다〉는 수불 스님의 출가 전 이야기부터 출가 후 의심을 타파하는 과정, 그리고 간화선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진력해 온 과정을 주요 일화를 중심으로 써내려갔다.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간화선이 어떤 수행법이며, 왜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지에 맞춰져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수불’ 이라는 한 출가 수행자의 삶을 읽어 나가면서, 또 간화선이라는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에 대해 알아가면서, 점점 더 강하게 내면 깊은 곳에서 샘솟는 의문과 마주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묻게 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책은 그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전 세계 불교 전통에 전해지는 여러 가지 수행법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최상승 수행법이라는 간화선(看話禪)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아무나 시도할 수 없는 고난도 수행이라서일까? 아니면 타고난 근기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신묘한 수행이어서일까? 모두 아니다. 간화선이 어려운 수행으로 오해받고 점차 사람들한테서 멀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수행을 지도해 줄 선지식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불자들에게 간화선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수행은 조사선(祖師禪)의 방식으로 지도해 왔다.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배워도 간화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었다. 이 책의 주인공 수불 스님 역시 처음 사람들에게 수행을 지도할 때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수행하러 온 이들에게 ‘부모한테 몸 받기 전에 나의 본래면목은 무엇인가?’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군가?’ 와 같은 조사들의 유명 화두를 던져주었지만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과 흥미를 잃어갔다. 이에 스님은 스스로를 성찰해 문제를 직시하고 단호하게 결심했다. 수불 스님은 단호했다. 일상생활이 바쁜 신도들에게 1주일 안으로 화두 체험 시키지 못할 실력이라면 포교당을 접어야겠다고 결론 내렸다. 신도와 자신을 속이는 포교당 운영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수불 스님은 옛 조사들의 공안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활구를 제시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수불 스님이 찾은 답은 ‘활구(活句)로써 체험케 하기’ 였다. 의심만을 지속하게 하는 조사선 방식을 버리고, 의심을 바깥의 벽으로 여기고 이를 타파해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 있는 화두를 던져주는 것이다. 방편으로 삼은 것은 이른바 탄지(彈指) 화두였다.

책에서 저자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들을 현실감있게 조명했다. “수불은 집게손가락을 튕기면서 신도들에게 말했다. 무엇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중략) 새롭게 제시한 화두는 신도들에게 작년과 달리 집중력을 불러일으켰다. 수불은 이때다 싶어 신도들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흐느끼는 사람, 비명 지르는 사람, 눈에 핏발이 터진 사람 등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다들 온몸으로 화두를 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하나둘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수불 스님’ ‘안국선원’ 은 현대 간화선의 대명사처럼 한국불교계에 회자되었다.

나와 세상 알게 해주는 간화선의 힘

이 책에는 간화선을 대중화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수불 스님의 행보가 다채롭게 그려진다. 그 과정서 여러 이름난 이들과 만난 사연도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혜민 스님, 로버트 버스웰 교수(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 회원, 前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차드 멍 탄(구글 엔지니어), 베누 스리니바산(TVS모터스그룹 회장)이다. 혜민 스님과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수불 스님의 지도 아래 안국선원에서 직접 간화선 체험을 했고, 차드 멍 탄과 스리니바산 회장은 수불 스님을 만난 뒤 스님을 스승으로 삼았다. 수불 스님에게 간화선에 대해 듣고 배운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불교 간화선이 가진 힘에 놀라워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대한 수불 스님의 의지 역시 더욱 견고해졌다.

선은 인간 속의 이기적 배타주의를 돌려 자기의 본래면목에 사무치게 하고 세계와 역사를 자기 생명 속에서 합일하는 대승의 눈을 열어준다. 그래서 선은 궁극적으로 자기와 남을 둘로 보지 않는 절대 평등의 세계를 열어 더불어 사는 자비문과 원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안국선원은 조계종 종지종풍에 의거해 인류에게 진리의 외침이 울리게 하고, 세계만방에 지혜의 눈을 밝히는 선의 범세계화로 만민평등의 세계일화를 우주법계에 가득 꽃피우고자 한다.

수불 스님이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안국선원을 개원하면서 제시한 선원의 이념처럼 여기에는 상호 존재하는 생명의 본질을 바로 보게 해주는 선으로써 현대 사회가 겪는 여러 가지 병폐의 근본 원인이 자타의 구별과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리란 결의가 담겨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세월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겨져 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붓다로부터 시작된 불교는 이제 국가와 인종을 넘어 많은 사람의 내적 · 영적 성장 지침이 되어 가고 있다. 선의 가치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수불 스님의 바람처럼 선(禪)의 선한 영향력이 서서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시간이 없다’는 간곡한 당부를 전하다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살기를 바란다.” 대쪽 같은 삶을 살아간 인물과 수행자들의 정신세계를 탐구해 온 정찬주 작가가 밝힌 이 책의 집필 의도다. 10여 년 전 처음 수불 스님을 만난 작가는 아내와 자녀의 변화를 목격한 이후 간화선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수불 스님과 간화선을 주제로 책을 쓰리라 다짐했다. 이후 2019년 스님과 함께한 부처님 성지순례 길에서 자신의 뜻을 전하고 2021년 겨울부터 올해 7월까지 집필에 몰두했다. 긴 시간을 거쳐 탄생한 이 책은, 오랜 시간 글 짓는 수행자로 살면서 선지식들을 만나고, 그들의 가르침을 깊이 배우고, 그들의 삶과 가르침을 이야기로 전해온 정찬주 작가가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고 길어 올린 또 한 편의 역작이다. “부처님께서 방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수행은 안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서야 되겠냐는 거지요. 어차피 한정된 시간을 살다가 가는데 어떻게 보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기회가 왔을 때 공부해야지요. 이런 의미에서 시간이 없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도 신도들한테 가르쳐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시간이 없는 거지요. 앞으로 내가 몇 번이나 가르치겠어요?”

정찬주 작가의 말에 따르면, 수불 스님은 법문 때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이것이 ‘시간이 없다’ 로 제목이 정해진 이유다. 소설가로서, 선지식의 삶과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뜻을 둔 전법사(傳法師)로서, 어쩌면 정찬주 작가 역시 수불 스님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선지식의 삶과 가르침을 글과 이야기로 전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전통과 문화에 존재하는 뛰어난 스승과 가르침을 드러내는 일을 업(業)으로 삼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보면 이 책은 소설 속 주인공인 수불 스님과 정찬주 작가의 간곡한 마음이 겹겹이 담긴 따듯한 당부와도 같다.

▲정찬주 작가는?

오랜 기간, 불교적 사유가 배어 있는 명상적 산문과 소설을 발표해 왔다. 1983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작가가 된 이래, 자신의 고유한 작품세계를 변함없이 천착하고 있다. 호는 벽록(檗綠). 195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상명여대부속여고 국어교사로 교단에 섰다가 십수 년간 샘터사 편집자로 법정스님 책들을 만들면서 법정 스님은 저자를 재가제자로 받아들여 ‘세속에 있되 물들지 말라’ 는 뜻으로 무염(無染)이란 법명을 내렸다. 현재 전남 화순 계당산 산자락에 산방 이불재(耳佛齋)를 짓고 2002년부터 자연을 스승 삼아 벗 삼아 집필에만 전념 중이다.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소설 무소유〉 〈암자로 가는 길〉(전 3권)을 비롯해, 이 땅에 수행자가 존재하는 의미와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를 일깨우는 수십 권의 저서를 펴냈다. 장편소설로는 인간 이순신을 그린 대하소설 〈이순신의 7년〉(전7권) 〈광주 아리랑〉(전2권) 〈천강에 비친 달〉 〈조선에서 온 붉은 승려〉 〈다산의 사랑〉 〈칼과 술〉 〈못다 부른 명량의 노래〉 〈니르바나의 미소〉 법정스님 일대기 장편소설 〈소설 무소유〉 성철스님 일대기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하늘의 도〉 〈나는 조선의 선비다〉(전3권) 〈천년 후 돌아가리-茶佛〉 등이 있다. 산문집 〈행복한 무소유〉 〈부처님 8대 인연 이야기〉 〈암자로 가는 길〉(전3권) 〈법정스님 인생응원가〉 〈법정스님의 뒷모습〉 등이 있다. 행원문학상, 동국문학상, 화쟁문화대상, 류주현문학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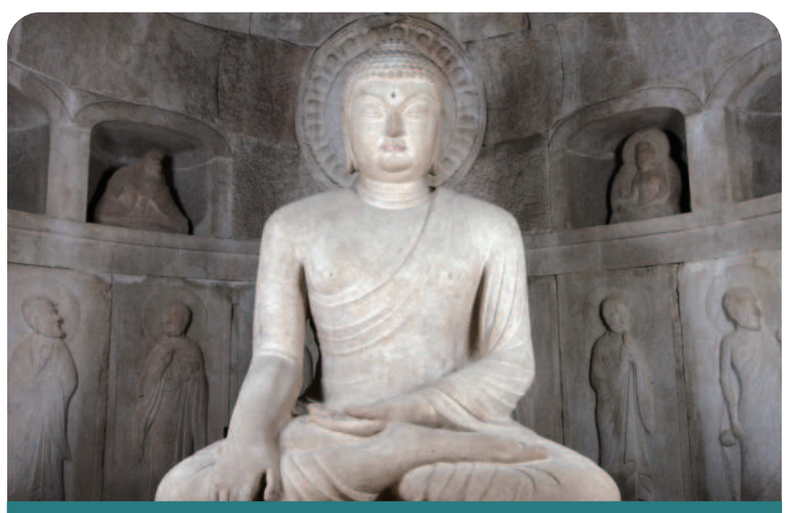
중국불교의 교과서이자 필독서!
승조의 『조론』과 감산덕청의 『조론 약주』 완역!



조론 역주

진정한 중국불교의 문을 연 위대한 승려 승조의 『조론』과 명나라 고승 감산의 주해, 이 두 저서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번역과 상세한 주로 그 정수를 드러내보인다.

승조 지음/감산 약주/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760쪽/값 38,000원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보리심을 일깨우는
대승 수행의 지침서!
게송으로 이루어진
입보리행론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쓰다

산티데바와 함께 읽는 입보리행론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간명한 게송으로 전하는, 티베트불교에서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수행자들이 반드시 배우고 수행하는 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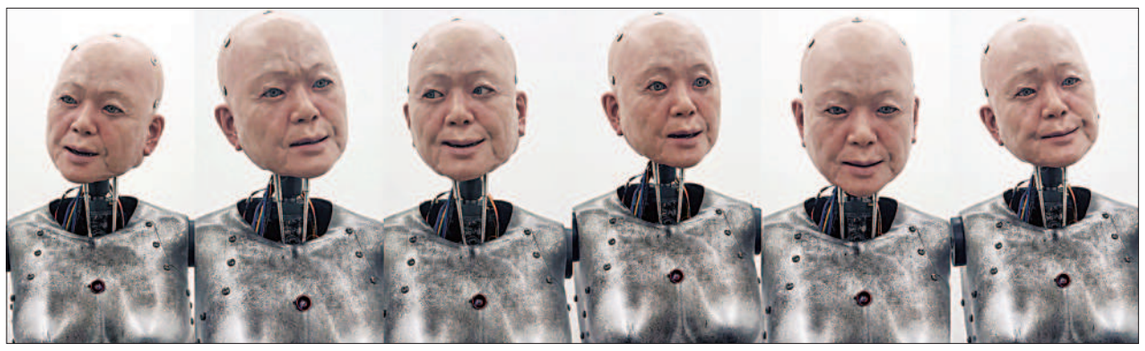
산티데바 원저/하도겸 편역/국판/240쪽/값 15,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어르신 삶의 서사 미디어아트로…

탑골미술관 첫 미디어아트 기획전
'남겨둘 시간이 없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노인의 날' 맞아 노인 · 시간 조명
"우리 삶에서 남겨둘 시간 없다"
인공지능로봇 · 인터랙션 설치 등
어르신 이야기 담은 미디어아트
노진아 · 다프네 라이트 등 총 5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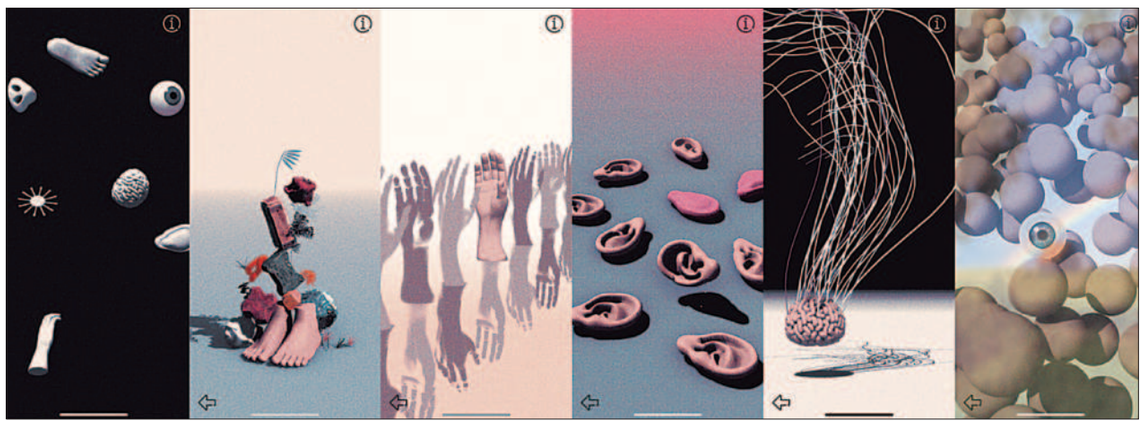


사진 위-노진아, '나의 기계 엄마' 2019, 60×50×180cm / 사진 아래-우박 스튜디오, '몸의 우주' 2021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탑골미술관 첫 미디어아트 기획전 '남겨둘 시간이 없답니다(No Time to Spare)'를 개최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문화예술 향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감각할 수 있는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합적인 전시 향유 경험을 제공하고 예술적 기능성을 찾고자 마련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마련한 이번 전시는 삶의 여정으로서 개인이 갖는 '시간의 이야기'에 주목하며, 노인 혹은 주변부에 머무른 이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감각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미디어를 매개로, 미디어가 갖는 매체성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개인의 서사와 몸이 품고 있는 시간을 재조명함으로써 전시의 시간이 경유하는 길로 관객을 유도한다.

전시의 제목인 '남겨둘 시간이 없답니다'는 어슐러 르 귄(Ursula Le Guin)의 생애 마지막 선집 〈No Time to Spare〉를 참고했다. 우리의 삶에서 할 일이 없는 시간을 찾아낼 수 없고, 그 때문에 남겨둘 시간도 없다는 책의 표현에서 늙고 스러지는 것 대신 끈기 있고 명료한 삶의 시간을 보내는 노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자신만의 온전한 시간으로 시간의 겹을 쌓아 몸의 지식을 갖고 있는 노인에게 남겨둘 시간은 없다. 전시는 이러한 '이야기의 시간'을 경유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의 축을 만들고 있다.

전시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사전 워크숍을 통해 미디어아트 작업으로 재탄생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인공지능 로봇, AR, 인터랙션 설치 등 노진아, 다프네 라이트(Daphne Wright), 무진형제, 아르동(남기륭), 우박 스튜디오, 5팀의 미디어 아티스트 작품을 과거 흔적의 시간과 현재의 이야기로 나누어 소개한다.

△노진아와 다프네 라이트(Daphne Wright)의 작품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여 관객과 감정적으로 교감하며 현재의 이야기를 담는다. 노진아의 시간이 쌓여 학습된 인공지능 로봇엄마는 상황에 맞는 표정과 말을 인간과 유사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작가와 엄마의 시간은 켜켜이 쌓여 현실과 연결 관계를 만든다.

이와 달리, 다프네 라이트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낯선 외모와 순서를 뒤바꾼 발화 방식을 택하여 몰입을 위한 관계를 끊어낸다. 그럼에도 두 작품은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과 함께 소통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감정적 공감을 현재로 이끌어간다.

△무진형제, 아르동(남기륭), 우박 스튜디오는 시간의 과거, 흔적을 발견하는 데 주목한다. 먼저 아르동(남기륭)은 사물간의 관계를 묘사하며 과거 시간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애장품이 갖는 개인의 서사를 바탕으로 사물의 시간성을 눈과 귀, 몸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무진형제는 오랜 시간 개인의 몸과 언어로 기억되는 장소를 자연스럽게 담아 삶의 흔적을 살피고, 그 순간을 함께하길 제안하며, 시간의 감각과 물성을 연결하여 흔적을 발견하고 펴내길 반복한다.

끝으로 우박 스튜디오는 몸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 자체에 주목하며 과거 시간의 쌓임을 신체 데이터로 치환하여 보여준다. 주름, 목소리 등 수집된 신체 데이터는 자신을 증명하는 고유한 인증서로 발급된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선보이며, 작품의 시간 또한 그 자체로 의미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더불어 전시는 서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주변 참여적 시선을 함께 갖고, 전시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10월 14일 오후 2시에는 아르동 작가와 함께 애장품에 얽힌 스토리를 공유하고 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보는 '애장품의 대화'가 마련되어 있다.

끝으로 10월 15일 오후 1시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이번 전시의 디자인을 맡은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들과 디자인 자문을 맡은 일상의 실천이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실천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생각을 나눈다.

탑골미술관 관장 희유 스님은 "이번 탑골미술관의 첫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 그동안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이 미디어아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깨고, 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품을 느끼고 감각하며 다양한 예술 경험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탑골미술관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02)6220-8502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 특별 공개

9월27일부터 한 달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불교중앙博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 두 번째 괘불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미등)은 9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의 두 번째 괘불로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보물)'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특별 공개한다. 불교중앙박물관과 고운사(주지 등운)는 지난 8월 26일부터 고운사와 소속 말사의 성보를 선보이는 특별전 '등운산 고운사'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는 고운사에서 온전히 보존 전승해온 국가지정문화재급 성보들의 문화재적 가치를 알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봉정사와 부석사를 비롯한 영남 북부의 불교문화를 살펴보는 자리이다. 특히 고려 시대의 귀족적인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과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보물)'이 처음으로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고운사 말사의 괘불 3점을 교체 전시하고 있는데, '안동 봉정사 영산회 괘불(보물)'이 그 두 번째이다.

괘불은 사찰의 야외에서 설행되는 의식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대형 화폭에 제작되었으며, 당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성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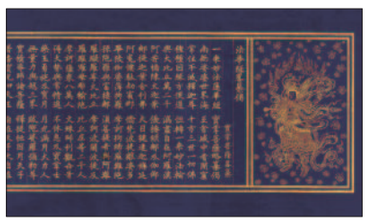
'봉정사 영산회 괘불(1710)'은 높이 742m, 너비 585m 크기의 대형 불화이다. 중앙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여덟 보살과 십대제자가 함께 그려져 있다. 전각 내부에 봉안되는 후불도와 비슷한 구성이나 본존이 서있는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의식이 설행되는 도량에 강림하시는 부처님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존상의 상호는 분홍색으로 바림하여 생동감과 입체감을 표현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김경호 사경전 '묘법연화경 권제3'

10월 5일~10일 아리수 갤러리

국가무형문화재 제141호 사경장 김경호가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아리수 갤러리에서 사경전 '묘법연화경 권제3'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6월에 개최했던 '묘법연화경 권제1'에 이은 것으로, 김경호 사경장이 2019년 1년 동안 조성한 역작들을 선보인다. 김경호 사경장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부처님을 조성하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한다. '묘법연화경' 권제3 한 작품만 볼 때도 약 1만의 부처님을 모신 셈이다. 0.1mm의 붓 끝에 초집중한 가운데 '묘법연화경' 권제3의 경문 서사에 소요된 시간만 해도 온전히 1000시간 이상이 걸렸다.



김경호 作, 감지금니 법화경약찬게 일부

권제3을 먼저 선보이는 것은 재료(자주색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묘법연화경〉 권제2는 자주색지에 금니로 사경을 할 계획이었는데, 당시 시중의 자주색지의 질이 좋지 않아서 좋은 자주색지가 확보될 때까지 권제2의 조성을 미루고 권제3을 먼저 조성하게 됐다고 한다.

박재완 기자

다연기획과 함께 2023 불교카렌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독판 달력 제작 상담 및 카다로그가 필요하신 사찰은 문의 바랍니다.



봉축 행사 용품 및 현수막 제작
각종 불교 용품 판매합니다.



달력 종류 : 벽걸이 특호 / 벽걸이 대 / 벽걸이 소 / 탁상 / 미니 차량 / 메모 수첩

도서출판 다연기획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4길 14(조계사 옆) Tel. 02)723-4301 Fax. 02)723-4303 E-mail. lotus4301@daum.net 농협 053-12-162413 (남정숙)

고려 만두 · 불교윤리…불교계 가을학술대회 '풍성'

대학 · 학회 · 연구소 등 학술대회 잇달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학계가 가을을 맞아 불교 음식부터 윤리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준비 · 개최한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은 10월 13일 오후 1시 교내 5층 강당에서 제5회 음식문화학 학술대회를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그동안 그 실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고려시대 만두 식문화의 전체상을 고찰하는 연구논문 발표와 재현된 고려 만두를 전시 · 시식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1부 학술발표에서는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가 '고려시대 만두문화의 두 흐름: 불교사찰 채식만두와 왕실 · 일반사회의 육식만두' 를, 김수현 박사(고려대 중국학연구소)가 '이야기 속 두부와 국수: 〈유림외사〉에 그려지는 18세기 중국의 음식문화와 계층의 문제' 를, 김순이 박사(동국대 미술사학과)가 '한국불교 선원청규와 수륙재의문에 보이는 국수와 만두' 를 각각 발표한다.

2부 행사에서는 고려 채식 · 육식 만두 전시와 시식이 이뤄진다. 재현 · 전시되는 불교 채식만두로는 △칠보산함(酸餡) △무피산도(酸餺) △채식혼돈(餛飩) △일반산함(酸餡) △콩산함(酸餡) △징사탕산도(酸餺) 등이 있다. 왕실과 민간 육식만두로는 △고려왕실 쌍하(雙下) △쌍화점의 쌍화(雙花) △원천석의 돼지고기만두(豚饅頭) △최이의 육식혼돈(餛飩) 등이 소개된다.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는 "그동안 한국 만두문화에 대한 인식은 고려후기 가요인 '쌍화점' 에 등장하는 '쌍화(雙花)' 를 한국 만두의 기원으로 삼는 오류 속에서 제대로 된 학술연구가 부재한 채 기존 주장이 재생산돼 왔다" 면서 "하지만 고려와 송나라 등의 불교 문헌과 문집류, 사서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고려가 두 가지 뚜렷하게 대비되는 불교 채식만두와 왕실과 일반사회의 육식만두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고찰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어 "학술대회를 통해 '쌍하(雙下)-혼돈(餛飩)-산도(酸餺)-쌍화(雙花)-만두(饅頭)' 라는 고려시대 시대별 만두명칭을 바탕으로 고려 불교사찰의 채식만두의 전통과 왕실과 일반사회의 육식 만두문화, 그 전체상을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에서 개최하는 제5회 음식문화학 학술대회에서 재현 · 시식되는 고려 사찰 · 왕실 만두들.

동방대학원大 음식학 학술대회
고려 사찰 · 왕실 만두 재현해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선
사회 문제들 불교윤리로 논의
경허선사 사상 조명 세미나도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탈종교' 이다. 하지만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은 종교윤리의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불교윤리로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불교학회(회장 백도수)는 11월 4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윤리' 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기조강연 '불교윤리란 무엇인가-최근 연구동향 소개를 중심으로' 로 시작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 양성평등, 생태 등 현대사회의 문제와 불교윤리의 접점을 모색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장성우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의 기업경영윤리' 를, 지혜경 연세대 철학연구소 연구원은 '양성평등 사회와 불교윤리' 를 발표한다.

이어 이은영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인간적인 의료를 위한 불교적 모색' 을, 동국대 객원교수 공일 스님은 '동물의 생태에 대한 불교의 생명윤리' 을,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수행체험 복제 시도의 불교윤리적 문제-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를 중심으로' 를 각각 발표한다.

발표논문 논평자로는 김한상(동국대), 김제란(고려대), 양영순(한국외대), 이명호(경희대), 김성옥(동국대) 등이 참여한다.

백도수 한국불교학회장은 "우리는 무종교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에 온통 관심을 기울일 뿐,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불교윤리적 관점에서 경영 · 젠더 · 생명 등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펼치고자 한다. 불자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10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경허, 받을 것도 전할 것도 없는 외로운 시대의 선사'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근대한국불교컨퍼런스 시리즈의 일환으로 경허 선사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논문으로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인문학센터 연구교수 문광 스님이 '경허 선사의 선시에 나타난 성(惺)과 성(醒)의 이중주-20세기 한국불교의 일착자(一着子), 그 불이(不二)의 여정' 을, 동국대 불교학술원 경완 스님이 '〈경허집〉으로 보는 한국불교의 수행문화' 를,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가 '경허 선사의 간화선에 대한 소고' 가 발표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을 좌장으로 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 이진영 동국역경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염불사지 동 · 서 석탑 '보물' 지정된다

문화재청 29일 지정예고
통일신라석탑 전형, 양식
흐름 파악하는 중요 성보

경주 (전)염불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경주 (전)염불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을 비롯한 사묘(祠廟) · 재실(齋室) 등 10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한다" 고 9월 29일 밝혔다.

이번 보물 지정 예고한 '경주 (전)염불사지 동 · 서 삼층석탑' 은 통일신라시기인 8세기 전반에 건립된 5.85m 높이의 석탑이다. (전)염불사지는 2003년과 2008년에 걸쳐 진행된 발굴조사를 거쳐, 8세기 초반에 창건돼 12세기에 폐사된 사찰로 추정된다.

동 · 서 삼층석탑은 상, 하 2층의 기단으로 구성돼 있고, 탑신(몸돌)과 옥개석(지붕돌)은 각각 1매의 석재로 이뤄져 있다. 두 탑 모두 상륜부는 대부분 사라지고 노반석(탑의 상륜부를 받치는 돌)만 남아 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경주 (전)염불사지 동 · 서 삼층석탑 전경.

동탑은 1963년에 불국사역 광장으로 이전됐던 것을 2009년 사지 정비와 함께 원위치에 이전 · 복원했다. 탑지 발굴조사 결과 서탑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기초부를 추가로 조성했음이 확인됐다. 기단의 받침기둥에 날개벽을 두어 면석을 끼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시도된 이후 신라로 계승되어 감은사지 동 · 서 삼층석탑에서 확인되는 전통적 기법이다.

2층과 3층 탑신에는 사리장치를 봉안하기 위한 사리공(舍利孔,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홈)이 있으며, 노반석은 2009년 복원시에 새로 제작하여 설치했다.

서탑은 무너져 있었던 것을 2009년 사지 정비와 함께 원위치에 복원했다. 서탑은 전체적으로 동탑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돼 있으나, 옥개석의 귀마루에 장식과 풍경을 달기 위한 구멍이 없으며, 상륜부로 판단되는 부재 파편이 인근에서 출토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경주 (전)염불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양식을 잘 구현하고 있다. 특히 석탑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탑의 기초부를 높인 점은 다른 석탑에서 볼 수 없는 특징" 이라며 "전체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은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전형과 양식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 라고 지정예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한 '경주 (전)염불사지 동 · 서 삼층석탑' 을 비롯한 10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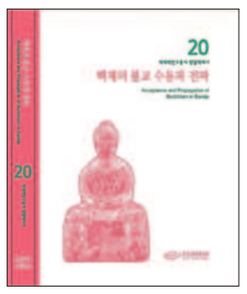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백제는 불교를 어떻게 수용했을까

한성백제박물관 '연구총서 쟁점백제사 20' 발간

백제가 불교을 어떻게 수용하고 전파했는지를 살핀 연구총서가 발간됐다.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유병하)은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제20권 〈백제의 불교 수용과 전파〉를 발간했다" 고 9월 28일 밝혔다.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제20권 〈백제의 불교 수용과 전파〉는 지난 4월 열린 '쟁점백제사 학술회의' 에서 발표된 논문과 종합토론문을 정리 · 발간한 것으로, 백제불교 수용과 전파에 대해 불교 미술사, 사상사, 고고학의 측면에서 논의했다.

소현숙 원광대 교수는 '백제와 중국의 불교 교류' 에서 백제 한성 도읍 시기의 불교 수용에서부터 웅진과 사비 도읍 시기에 이뤄진 불교 교류의 쟁점 사항을 불상을 비롯한 미술사 자료를 적극 이용해 살폈다.

길기태 국가기록원 연구사는 '불교가 백제 사회에 끼친 영향' 에서 백제 사회에서 불교 사상이 끼친 영향을 토착 산신 신앙과의 관계를 다뤘다. 이병호 공주교대 교수는 '백제 불교 사원의 전개와 주변 국가의 교류' 를 통해 부여 정림사지와 익산 미륵사지 등 백제 불교 사찰의 편년과 석탑의 건립 연대에 대한 쟁점 사항은 물론, 일본 등에 전파된 불교 사원의 모습까지 다양하게 살폈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이번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제20권 발간을 계기로 백제의 불교 수용과 전파에 대한 연구와 일반인의 관심이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4

▶ 85회 예고
아쇼까왕은 붓다가 성도한 삡팔라나무 아래서 하룻밤을 보낸다. 우빠굽따는 붓다가 깨달은 십이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한다. 우빠굽따의 제안에 따라 순례 일행은 네란자라강으로 간다. 그때 아쇼까왕은 수자따탑을 세우도록 명한다.



순례일행, 삡팔라나무를 참배하다

네란자라강과 모하나강 사이에 있는 장군촌은 마을이라기보다는 큰 농원이었다. 우루웰라 고행촌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우루웰라 집들은 대부분 거적때기를 두른 움막들이었고, 네냐니가마(장군촌)에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 저택도 있었다. 모하나강 강변의 모짜림마을도 우루웰라와 달리 부유했다. 모짜림마을에는 농수(農水)로 사용하는 무짤린다(Mucalinda)연못도 있었다.

네란자나강 너머 네냐니가마에서 이동법당 수레는 또 멈추었다. 우빠굽따가 아쇼까왕에게 제의했다.

"대왕님이시여, 이곳 네냐니가마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러시오?"

"태자께서 6년 고행하셨던 고행림도 있고, 수자따 처녀에게 유미죽 공양을 받으신 곳인 아자빨라나무도 있습니다."

우빠굽따는 아자빨라니그로다나무를 줄여서 아자빨라나무라고 했다. 우빠굽따에게는 태자가 깨달음을 이룬 보드가야의 삡팔라나무도 성스러웠지만, 태자의 6년 고행을 지켜보았던 아자빨라니그로다나무도 소중했던 것이다.

"장로시여, 태자가 유미죽 공양 받은 이야기를 설해주시오."

"알겠습니다. 대왕님이시여."

우빠굽따는 싯다르타 태자가 고행림에서 6년 고행을 끝낸 뒤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자가 네란자라강 모래밭으로 내려가 목욕을 한 뒤 분소의를 입고 네냐니가마 농원에 있는 저택으로 탁발을 나갔던 것이다. 저택의 주인인 장군은 1천 마리가 넘는 소와 염소를 가지고 있었고, 소젖과 염소젖을 짜는 어여쁜 딸 수자따가 있었다. 수자따는 하녀들과 함께 새벽마다 소젖을 직접 짰다. 그런 뒤 신선한 소젖에 쌀이 들어간 유미죽을 쑤었다. 아침마다 수행자들에게 보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날도 수자따는 유미죽을 쑤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죽 위에 만(卍)자 문양이 나타났다. 수자따는 '상서로운 문양이 나타난 이 죽을 먹는 수행자는 붓다가 될지 모른다.' 라고 생각했다. 수자따는 황금바리때에 죽을 담아놓고 수행자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침이 다 지나가는데도 단 한 사람의 수행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수자따는 조급한 마음에 시녀 웃따라를 밖으로 보내 수행자가 오는지 살펴보라고 시켰다. 이윽고 웃따라를 따라 들어온 싯다르타 태자는 수자따가 만든 죽을 공양받았다. 죽을 끓이는 동안 만(卍)자 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은 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 죽으로 힘을 얻은 나는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태자는 수자따의 공양을 받고 나서는 감사의 표시로 합장을 했다. 태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수자따가 말했다.

"황금바리때를 드리겠으니 가지고 가십시오."

비로소 태자는 한 벌의 누더기 옷과 한 개의 바리때를 갖추었다. 네냐니가마 농원에서 나온 태자는 네란자나강 강변으로 가서 수염을 깎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런 뒤 강물에 머리와 얼굴을 씻었다. 이를 지켜본 다섯 명의 수행자는 극도로 실망했다. 태자가 고행을 극한까지 밀고 갈 때만 해도 깨달음이 가까워졌다고 기대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들은 태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스스로 알아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사르나트(녹야원)로 떠나버렸다. 그러나 태자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6년 고행기간에 우기 때마다 비를 피해 정진했던 쁘락보디산 동굴을 한 번 둘러본 뒤 모짜림마을에서 북쪽 저편에 있는 삡빨라나무를 향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태자는 걸어가는 도중에 소년 목동 솟티야(Sotthiya)가 보시하는 꾸사(Kusa, 길상초)풀 한 단을 받았다. 드디어 태자는 삡팔라나무 밑에서 동쪽을 향해 꾸사풀을 깔고 앉아 맹세했다.

'여기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리.'

삡팔라나무 아래서 결가부좌를 튼 태자는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마라 파피야스를 불러냈다.

'욕계의 왕은 마라 파피야스다. 그가 모르는 사이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떳떳치 못한 일이다. 마라를 불러내 나를 시험해보자. 마라를 항복시키면 욕계의 신들은 모두 내 가르침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욕계의 왕 마라는 세 명의 딸을 보내 태자를 유혹했다.

"꽃 피는 봄이군요. 나무와 풀도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요. 사람에게 봄이 있다면 젊은 시절일 것이에요. 젊음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죠. 당신은 젊고 풋풋하군요. 우리들이 어여쁘지 않은가요? 싯다르타여, 우리와 함께 놀아요."

태자는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씨로 그녀들을 타일렀다.

"그대들의 몸은 비록 아름답지만 온갖 악으로 더러워져 생로병사가 따른다. 손에는 팔찌, 귀에는 귀걸이를 흔들면서 교태 섞인 웃음으로 욕망의 화살을 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대들의 욕망을 독약으로 여긴다. 칼날에 발린 꿀은 혀를 상하게 하고 사악한 욕정은 독사의 머리와 같으니 내 이미 모든 유혹을 뛰어넘었다. 그대들은 곧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물러갈 것이다."

그래도 마라의 세 딸들이 물러가지 않자 태자가 다시 말했다.

"그대들이 천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까닭은 옛날에 선업을 한 번 닦았기 때문이다.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 어서 물러가라."

태자의 이 한 마디에 마라의 세 딸들은 모두 추한 노파로 변해 탄식하며 물러갔다. 그러자 마라는 화가 나 삡팔라나무를 향해서 태풍과 함께 폭우를 쏟았다. 뿐만 아니라 악귀를 보내 온갖 악행으로 태자의 선정을 방해했다. 그래도 태자가 삡팔라나무 아래서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마라가 직접 나타났다.



"사끼야족의 아들, 싯다르타여. 그대는 속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대에게는 전륜성왕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어 사람들을 지배하고 오감의 쾌락이 주는 미묘한 맛을 마음껏 즐기라. 사끼야족의 아들이여! 그대가 추구하는 도(道)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피로만 더할 뿐임을 어찌 알지 못하는가!"

이에 태자가 말했다.

"마라여, 그대는 단 한 번 공양으로 욕계의 왕이 되었소. 반면에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애를 두고 내 몸까지도 중생을 위해 베풀어 왔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붓다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오."

마라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전생에 내가 공양한 것은 방금 그대가 말한 바와 같소. 그런데 그대가 전생에 공양한 것을 증언할 자는 아무도 없소. 그러니 이 승부는 그대가 진 것이오."

태자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대지에 댄 채 말했다.

"만물이 의지하는 대지여,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에 공평한 대지가 나를 위해 진실한 증인이 될 것이오. 자, 대지여. 나를 위해 증언해다오."

그러자 대지의 여신인 수타바라가 나타나 증언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인간과 하늘의 스승이 되실 분입니다."

결국 태자는 마왕 마라를 굴복시키므로 해서 선정에 들 수 있었다. 첫 번째 선정과 두 번째 선정, 세 번째 선정, 네 번째 선정에 차례로 들었다. 그날 밤 초저녁에는 전생을 아는 지혜, 즉 숙명통을 얻어서 윤회하였던 수많은 생을 돌이켜 기억할 수 있었다.

한밤중에는 무량한 중생들이 업에 따라 오고가는 것이 보이는 천안통을 얻었다. 또한 번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혜가 나타났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던 무명에서 벗어났다. 고통의 원인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보니 모든 고통에는 무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른바 십이연기(十二緣起)의 도리를 관했다. 붓다가 게송으로 읊조렸다.

이것이 존재하면 저것 또한 존재한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 또한 생긴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 또한 소멸한다.

마침내 붓다가 되는 생사해탈의 순간이었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내 마지막 생애이고, 앞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생사윤회의 지배를 벗어난 붓다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깨달음을 확인한 뒤 선언했다.

다시 태어나야 할 일은 끝났다.
높은 수행을 하여 마쳤다.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다.
해탈을 얻기 위해
다시 더 수행해야 할 일은 없다.
이러한 것을 스스로의 지혜로 알았다.

새벽이 되어서는 인간의 미세한 고뇌까지 말끔히 씻어버리는 누진통을 얻었다. 먼동이 트기 전, 샛별이 반짝이고 있을 때였다. 그날 아침에도 수자따는 삡팔라나무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 시녀 웃따라를 보냈다. 그러나 웃따라는 어제와 달라진 태자의 모습에 놀라 집으로 돌아와 수자따에게 알렸다. 잠시 후 웃따라를 앞세우고 삡팔라나무까지 달려온 수자따는 깨달음을 얻은 붓다에게 유미죽을 올리며 기뻐했다.

"웃따라여, 내 공양을 받은 분이 세상에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네란자라강에서부터 걸어서 온 아쇼까왕은 삡팔라나무 주위를 합장한 채 돌았다. 우빠굽따와 마힌다, 상가밋따, 악기브라흐마, 수마나는 삡팔라나무 앞에서 연신 오체투지하며 참배했다. 이윽고 우빠굽따가 그 옛날 붓다처럼 삡팔라나무 밑에서 결가부좌를 틀었다. 아쇼까왕도 우빠굽따와 같은 자세로 앉았다. 정비 아상디밋따는 감격하여 소리 내어 흐느꼈다. 아쇼까왕도 삡팔라나무와 한 몸이 되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 하늘로 치솟은 삡팔라나무의 키만큼이나 신심이 솟구치고, 무성한 삡팔라나무 이파리들만큼 담마에 대한 확신이 섰다. 아쇼까왕이 우빠굽따에게 말했다.

"나는 이곳의 불탑을 두 배로 키우고 석주를 세우겠소."

"석주에는 어떤 칙령을 새기시겠습니까?"

"싯다르타 태자가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는 글을 새길 것이오."

"준비해온 석주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곳 부근에 있는 사암으로 기둥을 만들어 세우시겠습니까?"

"이곳의 사암이 좋을 것 같소. 가지고 온 석주보다 더 컸으면 좋겠소. 여기서 더 순례할 곳이 있소?"

"그렇습니다. 붓다께서 이곳에서 사르나트로 떠나시어 고행림에서 함께 수행했던 다섯 비구에게 깨달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곳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오?"

"10요자나쯤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는 거리와 비슷하오. 빠딸리뿌뜨라에서 가지고 온 석주는 사르나트로 보내시오. 때를 보아 그곳으로도 순례하겠소. 단 이곳의 불탑은 두 배로 키우고 석주는 붓다의 위대함과 걸맞게 만들어 세우시오. 가지고 온 석주는 네 마리의 사자상이 정교하기는 하지만 이곳에 세우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소. 나는 석주 위에 코끼리를 조각해서 얹히고 싶소."

아쇼까왕은 싯다르타 태자가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한 곳인 만큼 거대한 불탑을 조성하고 싶었다. 또한 마야 왕비가 하얀 코끼리 꿈을 꾸고 붓다를 잉태하였으므로 코끼리 형상을 조각해 석주의 연화좌대 위에 얹히는 장대한 것으로 세우기를 바랐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⑲ 북종선(北宗禪)의 창립자, 신수(神秀)



▶ 한줄 요약
신수는 홍인으로부터 도신의 선사상을 수습했으며, 모든 경전 운용으로 종합적 불교 수행체계를 제시했고, 예종, 측천무후, 중종의 삼제로부터 귀의를 받았다.

홍인의 동산법문 잇고 삼제 국사로 불려

〈三帝〉 〈國師〉

도신(道信)이 황매(黃梅)의 쌍봉산에 도량을 개설하고, 홍인(弘忍)이 그를 계승한 동산법문(東山法門)은 당시 불교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천하의 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운집하였다. 전적에 따라 다르지만, 도신 문하에 5백 혹은 7백 명, 홍인 문하에 1천 2백 명의 승려들이 운집하여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불교사에서도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동산법문이 이름을 떨치자 홍인의 제자들도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최초로 황제의 주목을 이끈 이가 바로 신수(神秀, 606~706)이다. 당시 당조(唐朝)는 개국 76년 만에 중대한 변국(變局)을 맞았는데, 그것은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인 측천무후(則天武后: 재위 690~705)에 의하여 국호가 주(周)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비록 측천무후 사후에 다시 '대당(大唐)'의 국호를 회복하였지만, 한차례 국성(國姓)이 바뀐 치욕을 겪었다고 하겠다.

측천무후는 태종(太宗)을 모시던 궁녀였기 때문에 태종의 사후 당시 관습에 따라 감업사(感業寺)에 출가하였던 경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인연 때문인지 황제에 즉위하기 위하여 〈대운경(大雲經)〉이라는 위경(僞經)을 이용한 것은 불교사에 유명하다. 황제에 즉위한 이후 도교를 중시한 당조와의 차별을 두기 위한 까닭인지 불교의 고승들을 궁전으로 초청하여 법문을 듣는 등 불교를 도교보다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때 동산법문 출신인 신수가 측천무후의 초청을 받아 제도(帝都)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삼제(三帝)의 귀의를 받았기 때문에 후대에 "양경(兩京: 長安과 洛陽)의 법주(法主), 삼제의 국사(國師)"라고 칭해진다. 사실상 동산법문은 신수와 그의 제자인 보적(普寂)이 제도인 장안과 낙양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더욱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인의 사상을 계승하여 북종선(北宗禪)을 건립한 대통 신수(大通神秀)의 생애와 선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신수의 전기는 〈송고승전〉, 〈경덕전등록〉 등 후대에 찬술된 많은 승전에 실려 있지만, 북종선이 단절되어 간략하게 되어 있고, 비교적 상세한 전기는 같은 홍인의 제자인 현색이 찬술한 〈능가사자기〉에 실려 있다. 그러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신수에게 귀의한 장열(張說, 667~730)이 선사의 입적 후 작성한 〈대통선사비명(大通禪師碑銘)〉이며, 이는 〈전당문(全唐文)〉 권231, 〈융흥불교편년통론〉 권14, 〈불조역대통재〉 권12 등에 온전하게 실려 있다. 따라서 그를 중심으로 신수의 생애와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통선사비명〉에 따르면, 신수는 속성은 이(李)씨이고, 변주(汴州) 위씨(尉氏: 현 河南省 尉氏縣) 출신이라고 한다. 신수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제생(諸生)이 되어 "〈노자(老子)〉, 〈장자(莊子)〉의 현묘한 취지와 〈서경(書經)〉, 〈주역(周易)〉의 핵심을 파악하였고, 삼승경론(三乘經論)과 〈사분율(四分律)〉 등에 정통하였다."라고 한다. 따라서 신수는 출가 전부터 유불도 삼교에 모두 뛰어났으며, 특히 불교의 경율론에도 해박했음을 알 수 있다. 신수의 출가에 대해서 20세인 무덕(武德) 8년(625) 낙양(洛陽)의 천궁사(天宮寺)에서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겠다.



624년 도신에 의하여 창건된 호북성 황매현 소재 사조정각선사.

신수는 46세인 영휘(永徽) 2년(651)에 홍인의 동산법문 문하로 들어가 6년 동안 밤낮으로 정진하였기 때문에 홍인으로부터 "동산의 법은 모두 신수에게 있구나!"라고 찬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수는 홍인 문하를 떠나는데, 〈대통선사비명〉에서는 "그리하여 눈물을 흘리며 물러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은거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홍인의 문하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신수가 국가의 승록(僧錄)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사도(私度)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은 수조(隋朝)로부터 승려들의 승적(僧籍)을 철저하게 관리하였고, 스스로 출가하는 이른바 '사도'를 금했는데, 이를 위반하면 사형까지도 받는 중죄로 규정하였다. 이는 당조(唐朝)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역사에서 시행된 국가의 불교 정책이라 하겠다. 사실상 신수뿐만 아니라 혜능(慧能)도 홍인의 문하를 홀연히 떠난 이유가 '사도'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신수나 혜능이 홍인 문하를 떠난 후에 은거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도신도 처음엔 '사도'였기 때문에 동산법문에서는 '사도'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사도승'을 받아들이면 사찰도 관방의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측천무후 초청으로 제도에 입성
46세 때 홍인 문하서 6년 수학
'오방편문', 도신 '오문선요' 유사
핵심사상 일심이문 · 본각과 시각

〈대통선사비명〉에서는 신수의 은둔했던 과정은 생략하고, 의봉(儀鳳) 연간(676~679)에 형초(荊楚: 현 湖北省)의 당양(當陽) 옥천사(玉泉寺)에 머물렀는데, 이때 비로소 국가의 '승록'에 등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연유인지 이 시기에 앞에서 언급한 20세에 천궁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것으로 소급하여 등록되었다고 하겠다. 더욱이 당시 당양의 대중들이 옥천사의 주지로 추대하였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는 신수의 명성이 널리 퍼졌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수는 옥천사 동쪽으로 7리(七里) 떨어진 곳에 뛰어난 경관을 보고, "이곳은 바른 능가(楞伽)의 고봉(孤峰)이며, 도문(度門)의 난야(蘭若; 사찰)이니, 그늘진 소나무 아래 풀을 깔고 앉아, 나는 늙어가는구나."라고 하였다. 따라서 신수는 옥천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찰을 세워 주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통선사비명〉에서는 "이로부터 신수에게 배우러 온 이들이 넘쳐 마치 도시와 같았으며, 당(堂)에 오른 이가 70명이고, 도(道)를 맛본 이들이 3천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구시년(久視年, 700) 측천무후가 신수를 궁으로 불러 법문을 들었으며, 이때부터 신수는 성가(聖駕)를 타고 낙양과 장안의 양경을 왕래하였다. 이후 측천무후가 죽자 옥천사로 돌아갈 것을 청했지만, 오히려 중종(中宗)은 그에게 전국의 승가를 통섭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신수는 제자인 보적(普寂)에게 양보하였다. 다음 해인 신룡(神龍) 2년(706) 2월 28일에 낙양 천궁사에서 101세의 나이로 입적하였고, 중종은 '대통선사'라는 시호를 내렸다. 〈능가사자기〉에서는 "굴(屈) · 곡(曲) · 직(直)"의 세 글자를 유촉하였다고 한다. 여러 정황상 '사도'로 46세에 홍인 문하에 들어가 6년 동안 수학했지만, 홀연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후에 옥천사에서 비로소 승적에 등재되어 제자들을 교계(敎誡)하면서 생을 마치고 싶었지만, 측천무후의 칙명에 제도로 들어가 '삼제의 국사'라는 영예를 얻어 낙양에서 101세로 입적한 모든 회한을 "굴 · 곡 · 직"에 담은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신수의 사상은 어떠한가? 돈황의 자료로부터 신수의 저술로 확인된 〈대승무생방편문(大乘無生方便門)〉에서 그의 선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대승무생방편문〉의 첫머리에 '오방편문(五方便門)'으로 "제1 불체를 모두 드러내어 밝힘[第一總彰佛體], 제2 지혜문을 엶[第二開智慧門], 제3 부사의법을 현시함[第三顯示不思議法], 제4 제법의 정성을 밝힘[第四明諸法正性], 제5 자연무애해탈도[第五自然無碍解脫道]"를 열거한다. 이는 일견에 동산법문을 창립한 도신의 '오문선요(五門禪要: 知心體 · 知心用 · 常覺不停 · 常觀身空寂 · 守一不移)'와 상당히 유사한 구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하게 홍인으로부터 도신의 선사상을 수습했음을 여실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수의 '오방편문'은 도신과는 다르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논해진다. 예컨대 '제1 총창불체'는 〈대승기신론〉, '제2 개지혜문'은 〈법화경〉, '제3 현시부사의법'은 〈유마경〉, '제4 명제법정성'는 〈사익경(思益經)〉, '제5 자연무애해탈도'는 〈화엄경〉을 전거(典據)로 사용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수는 당시에 유행하던 중요한 경전을 모두 운용하여 종합적인 불교의 수행체계를 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수의 사상적 핵심은 바로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一心二門)'과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승무생방편문〉에는 "각(覺)의 뜻이란 심체(心體)가 생각을 떠남[離念]이요, '이념'은 불(佛)의 뜻이고, '각'의 뜻이다.", "법계(法界)는 하나의 상(相)으로, 바로 여래의 평등법신(平等法身)이다. 이 법신의 명칭이 본각(本覺)이다.", "간심(看心)하여 만약 청정하다면, 정심지(淨心地)라고 한다."라는 구절들이 보인다. 이를 정리하자면, '심체'를 〈대승기신론〉의 '심진여문(心眞如門)'의 입장에서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으로 설정하고, 그에 도달하려는 수행을 모든 객진번뇌를 떠난 '이념(離念)'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심간정(看心看淨)'할 것을 제시한다. 엄밀하게 논한다면 신수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에 이르는 중국불교의 종합이라고 평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홍인의 제자이면서 남종선(南宗禪)을 창립한 혜능의 사상에 비추어 본다면, 신수의 사상은 '체용일여(體用一如)'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혜능이 강조한 '돈오(頓悟)'의 입장에서는 '정망(淨妄)'과 '정박(淨縛)'에 떨어진 미진한 사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입장에서 〈육조단경〉에서는 신수와 혜능의 게송으로 대비하고 있지만, 신수와 혜능은 결코 만난 적이 없다. 신수가 홍인 문하를 떠난 지 4년 이후에야 혜능이 홍인의 문하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조단경〉에서 "신수의 몸은 보리수이고, 마음은 명경대와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는 게송은 비록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북종선의 사상을 명료하게 드러낸다고 하겠다.

비록 후대에 남종선에게 밀려 그 명맥이 단절되었지만, 신수의 공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모든 권력이 황제에 집중된 전제국가에서 예종(睿宗), 측천무후, 중종의 삼제로부터 귀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동산법문이 불교의 주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했다고 하겠다. 더욱이 비록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조정 고관들이 신수에게 귀의하였고, 그의 제자 보적은 승가를 통섭할 지위를 얻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선종의 성립에 신수의 작용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2일













지도법사 : 대연스님
한국 유일의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의 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이 직접 안내와 설명을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출발일 : 2022년 11월 1일~12일 동참금 : ₩2,990,000



주요일정
1일 : 인천 - 델리(인도항공 AI 0313) 인천국제공항 1청사 10시 05분 출발
2일 : 델리 - 국내선 - 바라나시 - 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 박물관 관람
3일 : 바라나시 겐지스강 보트 유람 - 항하사 - 부다가야
4일 : 보드가야 순례, 보리수, 마하보디 대사원, 전정각산, 수자타탑, 네란자라강
5일 :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 영축산 여래향실, 칠엽굴, 날란다 대학 순례, 바이샬리 도착
6일 : 바이샬리 : 부처님 진신사리탑, 대림정사 중각강당, 원숭이 연못, 아소까 석주 순례, 께사리아 발우탑 순례, 열반성지 꾸시나가르 도착 - 열반지 쿠시나가르 : 열반당
7일 : 쿠시나가르 - 인도 - 네팔 국경 통과 -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랑그람 순례, 룸비니 도착
8일 : 탄생성지 룸비니, 석가족의 왕궁 카필라바스투, 네팔 - 인도 국경 통과, 삐쁘라흐와 진신사리탑 순례, 쉬라바스티 도착
9일 : 기원정사, 사위성, 앙굴리말라 회심처, 천불화현탑 순례 럭나우 경유 아그라 도착
10일 : 타즈마할, 아그라성(城) 관광, 뉴델리로 이동
11일 : 국립박물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꾸뚭미나르, 연꽃사원, 뉴델리 관광 뉴델리 국제공항 출발(인도항공 AI 0312) 21시 50분
12일 : 인천국제공항도착 08시 15분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

구광국의
화엄으로 본 보로부두르대탑
1 보로부두르대탑 사상은 무엇일까

▶ 구광국 대표는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보로부두르대탑에 나타난 화엄사상 연구'로 동국대 일반대학원 응용불교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배재대 관광학과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아제여행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보로부두르대탑엔 '화엄경'이 담겼다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대탑 전경. 밀교탑으로 알려져 있지만 '화엄사상'이 담긴 탑이다.

현존하는 세계 最大 불탑은 印尼 '보로부두르대탑'
간다라 · 안다라 불교건축, 대승사상 조형화 걸작
1814년 네덜란드 총독 라플즈 발견해 세상 알려
학계 정설 '밀교탑'이나 부조 조각 '화엄경' 담겨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불탑을 보로부두르대탑(이하 대탑과 혼용 사용)이라 칭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대탑은 방대하고 다양한 소재를 정교하게 표현하는 예술성, 지정학적인 역사성, 간다라와 안드라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은 불교 건축학적 특성, 석가 세존의 이야기와 본생담을 모티브로 제작한 부조상의 종교 미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대승 경전의 불교 사상을 극적으로 조형화한 경전탑으로서 세계 종교 건축물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역사적 기록과 구법승들의 언급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탑의 조성 시기, 조성 목적이 새겨진 석판이나 금석판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언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은 대작 불사를 이루었는지 역사적인 근거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 대탑이 건설된 직후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주변 머라피(Meripi)산의 폭발로 화산재에 덮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로부두르대탑은 어떤 탑인가

대탑은 화산재에 덮여 약 1000여 년 이상 잊혀진 후 1814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부총독인 토마스 스템포드 라플즈(Thomas Stamford Raffles)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라플즈는 'Boro(위대한)' 'Budur(붓다)'라는 의미를 넣어 대탑의 이름을 지었다. 이 작명이 대탑의 현 이름 '보로부두르(Borobudur)'이다.

대탑의 본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탑을 지칭하는 역사적 비문 2개가 발견되었다. 이 중 카랑텐가 비문(Karangtengah inscription)은 824년에 세워진 것으로 당시 사일렌드라왕 사마라퉁가(Samaratungga)의 딸이며 후에 산자야 왕조

왕비가 되는 프라모다와르단니(Pramodhawardhani)가 신성한 건물을 깨달은 경계에 든 분을 뜻하는 '지날라야(Jinalaya)'이란 건물의 개관식을 했다는 기록을 담고 있다. 이 건물이 대탑일 가능성이 있음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비문은 트리 테부산(Tri Tepusan) 비문으로 842년에 세워졌는데 카훌룬난(Kahulunnan: Pramodhawardhani)이 기증한 테푸산(Tepusan) 마을은 부미삼바라(Kamūlān called Bhūmisambhāra)라 불리는 곳의 자금과 유지를 위해 세금을 면제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미삼바라(Bhumi Sambhara)의 'Bhumi'는 '십지', 'Sambhara'는 '언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10지의 언덕, 깨달음으로 가는 언덕 즉, 보살의 경계를 의미하는데, 이곳이 10층 대탑 보로부두르를 지칭한다고 또한 주장되고 있다. 이 주장들에 근거하여 '지날라야'나 '부미삼바라'가 보로부두르대탑의 본래 이름일 가능성이 상당이 높아 보인다.

1000여년의 긴 시간 후 화산재에서 나온 대탑과 여러 고고학 자료들에 대한 학자들의 열정적인 연구로 대탑의 부조상의 이야기 소재와 내용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 그 중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이야기와 부처님의 본생담, 그리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은 부조상이 해석되어 종교적 미술적 설명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대탑의 불교사상적 기능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의 해석이 시도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보로부두르대탑은 대승불교 탑으로 사일렌드라 왕국에 의해 대략 775~835년경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앙 자바의 케두(Kedu) 평원에 조성됐다. 10층 구조로 높이 42m이며, 건축석(길이 25cm, 넓이 10cm, 높이 15cm)이 200만개가 사용됐다.

대탑의 벽면에 부착된 총 1460패널(120cm×90cm/장당) 중에 조각된 부조상은 1212장으로 면적이 600㎡에 달하며, 1층 기단 둘레가 1.2km로 전체 층 회랑 둘레는 전체 약 4km에 이른다.

기단부 위에 1층과 2층은 회랑이 없으며, 3층부터 6층까지는 각 층에 회랑이 있고 안쪽 벽 주벽과 바깥쪽 벽인 난순(欄楯, 돌 울타리)에 불교 경전 이야기가 주요 소재로 부조되어 있다. 1층은 선악의 분별과 권선징악 내용의 부조상이며, 2층은 신들의 이야기, 3층은 부처님 일대기와 본생담 4층 2회랑(주벽128, 난순100)은 〈화엄경〉 '입법계품'의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재동자 이야기, 5층 3회랑(주벽88, 난순88)은 미륵보살이 선재에게 보리도를 설하는 내용, 6층 4회랑(주벽72, 난순84)은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설하고 있는 장면의 부조상이 있다. 각 층의 주벽과 난순에 돋을 새김된 부조상은 마치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과 같다.

대탑의 불상은 동서남북 4면의 회랑 난순 외벽에 있는 감실과 8 · 9 · 10층 상륜부에 총 504불상이 나누어 모셔져 있다.

보로부두르대탑 연구의 시작

보로부두르대탑이 발견된 이후 최초의 연구자는 크롬(N.J.Kroc, 1883~1945)이다. 그는 네델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통치 시절 초대 인도네시아 고고학연구 감독(1913~1916년 활동)으로 보로부두르대탑 복원 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대탑과 인도네시아 고고학에 지대한 관심과 연구 활동을 통해 방대한 자료와 연구 성과를 남겼는데, 그의 보고서 'Barabudur(1927)'에서 대탑이 금강계만다라 구조로 된 밀교탑이라 주장했다. 그 후 제자인 보쉬(F.D.K. Bosch, 1887~1967), 폰테인(Jan Fontein, 1927~2017), 하카타(Hikata Ryuso, 1892~)등이 많은 학자들이 그 학설을 받아들이고 뒷받침하면서 대탑이 밀교 만다라탑이란 주장이 공식화돼 가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보로부두르대탑과 관련된 여러 박물관과 관련 서적들 그리고 대탑 내 안내판에서도 이들 연구 결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공표되고 있다. 그 결과로 대탑의 3~6층까지의 동서남북의 불상과 8~10층 불상에 금강계만다라 방위 불상의 명호를 사용하고, 대탑의 평면도를 밀교금강계 만다라와 배대해 공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탑이 금강계만다라를 재현한 탑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대두된다. 이유인즉, 대탑의 10층 구조와 불상 그리고 수인 등이 금강계만다라와 완전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4회랑 주벽 부조상이 '보현행원찬'이라는 주장은 밀교탑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보현행원찬은 화엄부 경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엄경〉 '입법계품'으로 조성됨이 확실시 되는 2회랑 주벽과 난순, 3회랑 주벽과 난순과 서로 수행 단계인 계위적 측면에서 상응의 문제가 대두된다. 〈화엄경〉에서 52수행계위는 경전의 핵심적 구조임을 간과할 수 없다.

탑은 근본적으로 한 경전의 사상과 세계관, 불타관을 표현하는 시각적이며 입체적인 경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로부두르대탑에 금강계만다라와 '보현행원찬' 그리고 〈화엄경〉 '입법계품' 등 여러 사상이 동시에 적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로부두르대탑은 많은 부분에서 '화엄경 탑'임을 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계에서는 밀교탑이란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탑이 화엄대탑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탑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구조적인 특징을 〈화엄경〉의 품 구성의 구조적 특징과 사상적인 성격과 의미를 서로 배대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또한 대탑 각 방위의 불상의 배치의 의미와, 각 회랑의 부조상 내용분석과 각 회랑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밀교 위주의 인도네시아 불교문화 해석을 극복하고, 해상 실크로드 왕국들과 당시 인도네시아 영향권의 동남아 왕국들에 대승경전인 〈화엄경〉의 유통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불탑은 부처님이다. 불탑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부처님 설법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다. 〈화엄경〉을 설법하시는 부처님의 법문을 왜곡 없이 듣기 위해 보로부두르대탑이 '화엄경 탑'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아제여행사 대표〉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조선후기 경기 비구니 법맥 발굴하다

조선후기 경기 서북부 일대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의 활동

한국 비구니의 역사는 한국불교사와 궤를 같이 하지만 전근대 비구니 연구는 빈약하다. 조선 왕실 사찰과 비구니사를 연구하는 탁효정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연구교수가 최근 한국불교학회 학회지 〈한국불교학〉에 '조선후기 경기 서북부 일대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의 활동'을 발표했다. 조선후기 강화 · 개성 일원에서 활동했던 비구니 스님들의 면면과 법맥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 일부를 발췌 ·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강화 청련사 전경. 조선 후기 중창 비구니 포겸 스님이 중창해 현재까지 비구니 도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 비구니의 역사는 한국 불교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정도로 유서 깊지만 전근대 비구니 연구는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다. 조선시대 비구니 사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지(寺誌)와 불서(佛書)의 시주질, 사찰 관련 고문서, 불화 화기(畵記) 등 조선시대 사료에 등장하는 단편적인 비구니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비구니 사찰의 분포와 비구니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시대 각종 사료에 등장하는 비구니 법명을 DB화하고 이에 기반해 비구니들이 거주하는 사찰을 유추하는 토대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기 서북부의 비구니 사찰을 파악하기 위해 전등본말사지와 전등본말사에 남아있는 고문서, 불화의 화기, 불복장(佛服藏) 발원문 등을 조사했고, 이들 기록에 실린 비구니 명단을 토대로 경기 서북부 일대에서 비구니들이 거주한 사찰을 파악했다. 특히 '전등본말사지'에는 비구니사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료가 수록돼 있는데, 사지 편찬 당시 전등본말사에 속한 비구니들의 계파를 정리한 '전등본말니중파계(傳燈本末尼衆派系)'가 실려 있다. 이 비구니 계파도는 현재까지 알려진 근세~근대 비구니 법맥(法脈) 관련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전등본말사의 비구니 분포

'전등본말사지'와 강화 사찰 문헌자료의 조사 연구, 한국의 불화 화기집, 한국의 사찰문화재 등에 수록된 니승(尼僧)의 명단은 총 414건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사미니 13건, 행자는 1건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400건은 니(尼) 또는 비구니(比丘尼)로 표기됐다.

이중 조선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나타난 니승의 명단은 177건,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명단은 121건, 활동연대가 기재되지 않은 명단은 116건이다. 17세기 이전에 활동한 사례는 1건도 확인되지 않았고, 18세기에 활동한 비구니 명단은 13건, 19세기는 130건, 20세기 초는 29건으로 조사됐다. '전등본말사지'에는 정확한 활동시기를 알 수 없는 비구니 명단이 다수 기재되었는데, 전등본말사에 속한 비구니들의 계보를 정리한 '전등본말니중파계'에 113명의 명단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계파도 내에 이들의 출가 및 활동 시기가 기재되지 않아 조선시대 비구니 명단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조선시대 니승 177명의 명단 중 중복되는 법명을 정리하면 총 114명이다. 이 가운데 사미니는 3명이고, 니 또는 비구니로 기재된 인물은 111명이다.

전등본말사 문건에 나타난 비구니들의 활동은 대체로 19세기에 집중돼 있다. 정수사, 원통암, 대흥사, 청련사, 전등사, 화장사 등에서 비구니들이 화주 또는 시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의 문건들은 강화 정수사의 문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초 비구니 정일의 주도 하에 건물 중수 및 불상 개금 등 사찰의 일신이 이뤄졌기 때문에 많은 문건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전등본말사 사료에 수록된 117명의 니승 가운데 비구니는 114명, 사미니는 3명으로 조사됐다.

비구니들이 담당한 소임은 대부분 화주 또는 시주였으며, 별좌(別座) · 공사(供司) · 별공(別供) · 봉다(奉茶) · 공양주(供養主) 등 공양물을 담당하는 소임을 맡기도 했다. 177건의 니승 명단 가운데 화주로 등장하는 내역은 총 103건에 달한다. 시주는 21건, 공사 4건, 도감 3건, 별공 8건, 별좌 5건, 봉다 1건, 공양주 1건을 확인했다.

비구니의 소임 중에서도 화주가 가장 많이 조사된 것은 사지에 실린 대부분의 사료가 중수기이기 때문이다. 중수기에는 불사의 경제적 주축을 담당한 화주의 이름을 반드시 기입했다. 시주자의 명단은 지면상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화주로 역할을 한 인물들은 대부분 중수기 말미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다수의 화주 비구니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의 사회적 분위기상 여성 신도와 비구니의 대면 접촉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점도 비구니 화주가 많았던 요인으로 추측된다.

'전등본말사지' 사료 분석 통해
강화 · 개성 등 비구니 활동 조명
청련사 등서 독자적인 수행 생활
사지 부록 '전등본말승니계파'서
1930~40년대 비구니 법맥 확인

전등본말사 비구니 거주 사암

전등본말사 관련 자료에서 비구니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암은 총 8곳으로, 강화 전등사, 정수사, 청련사, 원통암, 장단 화장사 미타암과 극락암, 개풍 원통사 내원암, 대흥사 등이다. 강화 전등사와 장단 화장사, 개풍 원통사는 비구들이 주요 소임을 맡았고, 비구니 활동에 관한 문건은 매우 적다. 비구니들의 독립 사암으로 확인되는 곳은 강화 청련사, 원통암, 정수사, 장단 화장사 미타암, 개풍 원통사 내원암이다.

강화 청련사는 오늘날까지 비구니 도량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찰이다. 조선시대 청련사의 첫 기록은 1821년(순조21) 비구니 포겸(包謙)이 화주로 역할해 청련사를 중건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1906년(광무10) 화주 비구니 계근(戒根)이 단청불사를 진행했으며, 1909년(융희 3)에 화주 비구니 선혜(善慧)가 산신각을 새롭게 지었다는 기록을 통해 청련사가 비구니 사찰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련사에는 19세기에 조성된 다수의 불화 화기가 남아있는데, 비구니뿐만 아니라 비구들이 화주와 시주, 공역을 맡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강화 원통암은 오늘날 청련사에 합사돼 원통전이라는 전각 이름으로만 그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까지 원통암과 청련사는 각각 개별 사찰이었고, '전등본말사지'에도 원통암이 청련사의 부속암자가 아닌 전등사의 독립 말사로 분류돼 '원통암지'가 별도의 장으로 실려 있다. 하지만 청련사와 원통암이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32년에 간행된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청련사가 국정 아랫절로, 원통암은 국정 윗절로 기재돼 있다.

강화 정수사가 비구니 사찰로 처음 확인되는 것은 19세기 중반이다. 함허의 중창 이후 약 400년간의 기록이 끊어졌다가 1848년(헌종 14)에 화주 비구니 법진(法眞), 만흥(萬興) 등이 법당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1878년(고종15) 비구니 성수(性修)의 탱화 불사, 1883년(고종20) 비구니 근훈(根訓)의 사찰 수선, 1888년(고종25) 비구니 정일의 관음상과 후불탱의 조성, 1916년 정일의 불상 개금 및 신중탱 불사 등이 이어지는 등 비구니들의 정수사 운영은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미타암은 장단 화장사의 부속암자이다. 조선후기 화장사는 비구들의 주도로 운영되었지만, 화장사의 산내암자인 미타암은 비구니들의 독립 암자로 운영됐다. 화장사의 산내암자인 극락암도 비구니들의 거주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통사는 경기도 개풍군(現 황해도 장풍군) 성거산에 있던 사찰로,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통사는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거주했으며, 비구니들은 원통사 산내암자인 내원암을 중심으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등본말사의 비구니 법맥

전등본말사지 제5편에는 '전등본말승니계파'(傳燈本末僧尼派系)가 실려 있고, 부록으로 '전등본말니중파계'(傳燈本末尼衆派系)가 수록돼 있다. '전등본말니중파계'는 현재까지 알려진 비구니 법맥 관련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조선말~근대에 이미 비구니 법맥이 계승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등본말니중파계'에는 청련사, 화장사, 원통사, 정수사 등 네 사찰별로 비구니 113명의 명단이 계파별로 수록돼 있다.

'전등본말니중파계'는 이미 1930~40년대에 비구니승가의 계파 및 법맥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전등본말니중파계'에 수록된 비구니 계파 가운데 오늘날 비구니 문중으로 소개된 계파는 단 한 곳도 없다. 하지만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청련사의 박영함(朴榮含)의 5세손인 한성탄(韓聖坦, 1911~2007)의 제자들이 현재 강화 백련사를 중심으로 법맥을 계승해오고 있다. 조선후기~근대 전등본말사의 비구니 법맥이 오늘날까지 강화도에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계파의 후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등본말사의 고문서에 나타난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 활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기 서북부의 비구니들은 강화도와 개성 주변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 비구니의 활동이 확인되는 8곳의 사암은 모두 강화도 내에 있거나, 개성 주변에 위치한 사찰의 부속암자였다. 이들 지역은 고려의 수도 또는 임시수도의 인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비구니들은 해당 지역의 사찰과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강화도 내에 위치한 비구니들은 전등사의 불사에 빈번하게 화주로 참여했고, 자신이 소속된 사찰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의 불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셋째, 비구니들은 독립된 비구니 법맥을 유지했다. 전등본말사지에 실려 있는 '전등본말니중파계'을 통해 4곳의 사찰에서 각각 비구니들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조선후기 경기 서북부 일대에 비구니들의 수행 문화가 이어져왔고, 비구니들이 독자적으로 사찰을 운영하며 비구니 승가를 유지했음을 확인했다.

탁효정 연구교수는

안동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보신문 기자, 미디어붓다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원당,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처〉, 〈조선 왕릉의 사찰〉이 있다.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승만경〉 받아 지니는 법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㊲ 승만 부인의 사자후

〈원문〉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 경은 여래의 진실한 가장 으뜸가는 공덕(功德)을 찬탄한 것이니 그렇게 알고 받아 지녀야 한다. 불가사의한 큰 공덕을 받는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 지녀야 하며, 일체 소원을 거두어들인 대원(大願)이라 하나니 그렇게 받아 지녀야 하며, 불가사의한 바른 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녀야 하며, 일승(一乘)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녀야 하며, 끝없는 성제(聖諦)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녀야 하며, 여래장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녀야 하며, 법신(法身)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녀야 하며, 공한 뜻이 진실한 이치를 밝힌 것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녀야 하며, 한 가지 진실한 법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녀야 하며, 항상 머물고 편안한 한 가지 의지할 데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녀야 하며, 뒤바뀐 법과 진실한 법을 설한 것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녀야 하며, 제 성품이 깨끗한 마음이 가려진 것을 설한 것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녀야 하며, 여래의 진실한 제자에 대해 설한 것이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녀야 하며, 승만 부인의 사자후라 하니, 그렇게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강설〉

〈승만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은 다른 경전들과 달리 제석천인 교시가에게 특별 부촉을 한다. 제석은 불법 수호에 앞장서는 천왕이다. 석가모니가 성불한 이후 제석천은 그의 수호신이 되었으며, 석가모니가 도리천에 올라가 어머니 마야 부인에게 설법할 때 보개(寶蓋)를 손수 들고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고 한다. 그 모습은 보통 천인(天人)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하얀 코끼리를 타고 오른손에는 삼고저(三鈷杵)를 들고 있으며, 왼손은 허벅다리 위에 올려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신화〉에도 석제환인(釋提桓因)이라 하여 제석의 이야기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태조 왕건은 제석원을 설치, 제석도량을 개설하여 재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고려불교사에 나온다. 제석이 천신을 대표하는 신으로 받들어져 민간신앙에서도 제석을 숭배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품반야경〉 '천제품(天帝品)' 에는 수보리와 교시가가 문답을 주고받는 내용이 있다. 거기에도 제석천을 교시가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대품반야경〉을 해석한 용수의 지도론에는 일찍이 마가다국에 바라문이 있었는데 성은 교시가(憍尸迦)이고 이름은 마가(摩伽)였다고 한다. 그가 인간 세상에서 복덕을 많이 닦아 목숨을 마친 다음 도리천에 태어나 천주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천상에 있는 천왕들이 과거생에 인간 세상에서 사람으로 있으면서 복을 많이 지은 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있을 때의 이름을 썼다고 했다. 비록 중생의 세계를 여섯 갈래(六道)로 나누기도 하고 삼계(三界) 이십오유(二十五有)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 중심 세계는 인간 세계이다. 인간 세상에서 지은 업이 나머지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많은 나라가 있는 지구를 지구촌이라 부르는 말처럼 여러 갈래의 세계를 모두 중생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윤회를 거듭하는 중생이지만 그 중심이 인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윤회는 인간에서 비롯되고 인간에서 끝난다는 것이다. 윤회가 끝나면 해탈의 세계요 부처의 세계다. 불교를 인본주의 종교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처님이 〈승만경〉을 받아 지녀야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승만경〉의 수승함을 15가지로 말씀하셨다. 공덕으로부터 대원(大願), 일승(一乘), 성제(聖諦), 정법, 여래장, 법신, 공의 참뜻, 진법(眞法), 의지처, 여래의 참된 제자 등이라 하다가 끝에 가서 승만 부인이 사자후한 경이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승만경〉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뜻을 나타낸 말들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생멸 않는 부동심으로 생사윤회 벗어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㊿ 중생심 바로 알고 자성불 깨닫자

3. 중생의 마음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중생들의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인 생멸심(生滅心)과 생멸하지 않는 무분별심(無分別心)을 함께 갖춘 이중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이 분별하는 생멸심으로 인해 다차원의 마음을 만들며 일체의 생각 · 감정 · 분별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중생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근(六根)과 육경(六境)이 접촉을 할 때마다 견문각지(見聞覺知)하는 촉경(觸境)의 인식내용을 취사(取捨) 선택하며 애착과 집착을 일으킨다. 그리고 악한 업을 지으며 그에 따른 과보로 괴로움을 받고 살아간다. 만약 육근이 육경을 접촉할 때 촉경의 내용을 취사선택하지 않고 집착과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악한 업을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과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금강경〉 '제10 장엄정토분' 에서 보살의 위없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 · 향 · 미 · 촉 · 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라.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라고 한 것처럼 보살의 위없는 삶은 바깥 경계에 마음이 머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본성은 진여의 참모습

우리 중생들의 마음 본성은 진여(眞如) 그대로이다. 진여란 우주 만유의 실체로서 진리 · 실상 그 모습 그대로라는 뜻이다. 진여인 본성은 항상 상주불변(常住不變)하며 그 모습 그대로 오고 감이 없이, 생멸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부동(不動)이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듯이, 부동(不動)한 진여본성이지만 한 생각 일으키면 인연을 따라서 마음이 일파만파(一波萬波)가 되어 갖가지 분별심을 만들어 낸다. 바람이 불면 바닷물에 파랑이 일어나듯이 중생의 마음에는 무명의 바람으로 인해 업식이 일어난다. 중생의 무명(無明)은 마음이 진여본성과 상응(相應)하지 못하게 만들며 마음을 불각(不覺)의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생멸하는 마음이 되어 분별심을 일으키며 집착과 갈애(渴愛)를 낳게 한다.

만약 육근이 육경을 접촉할 때 견문각지(見聞覺知)하여 인식되는 정보들을 마음이 분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마음은 그대로가 진여본성인 것이다. 그러나 육근이 육경을 접촉할 때마다 생멸하는 마음으로 촉경(觸境)을 취사(取捨) 선택하며 집착과 분별을 일으킨다면 업을 지어 그 과보를 피할 수가 없는 중생이 되는 것이다.

△여래와 같은 성품 갖추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래(如來)와 똑같은 불성(佛性)이 있다. 중생들의 마음에 여래와 똑같은 불성이 함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래장경〉에서 중생의 마음을 '여래장(如來藏)' 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열반경〉에서는 이 여래장을 불성(佛性)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래장은 '본래부터 중생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청정한 여래의 성품' 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여래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처인 것이다.

무시이래의 태초부터 갖추고 있는 여래의 성품은 찾을 필요가 없다. 그냥 그대로 진여본성과 항상 상응(相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중생은 무명 때문에 마음이 진여본성과 상응하지 못하고 불각(不覺)의 상태가 되어서 업식이 일어나 생멸심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움직이는 마음이 되어 집착과 분별 망상을 일으키며 습기를 쌓아 중생심만 더 키워가는 것이다.

따라서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육근이 육경을 접촉할 때마다 촉경에 마음이 머물지 않도록 잘 지키고 챙겨서 무분별심으로 부동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생멸하는 분별심으로 인해 계속 집착과 갈애를 일으키며 악한 업만 쌓아가기 때문에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㊲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 3

'나〈無〉'가 '나〈我〉'란 착각서 벗어나야

"라훌라여, 이렇게 호흡새김을 닦고 이렇게 반복하면 커다란 과보와 커다란 공덕이 있다. 라훌라여, 이렇게 호흡새김을 닦고 이렇게 반복하면, 심지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사라질 때에도 알아차려지는 것이고 모른 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물질은 버려지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물질이 느끼는 과대망상이다. 물질은 버려지는 것이 없다. 물질은 덩어리가 아니다. 물질을 덩어리라 착각하고 있는 한 두려움은 사라질 수가 없다. 물질이 덩어리로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대한 나[我]라는 생각의 집착 때문이다. 그 집착이 강해지면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낳고, 나의 존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다. 그러한 집착은 물질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계속하여 요구하는 자발적 순환을 가지게 한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든 덩어리를 나[我]라고 알아버린다. 이 함정에 한 번 빠지고 나면, 딛고 일어나 벗어나려고 해도, 디디고 일어설 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무엇을 디디고 일어나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늪에 빠져 땅을 디디고 싶지만 디디면 디딜수록 물렁거려 더 빠져들기만 하지, 나올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빠진 것을 알았다면 무엇을 디디고 나올지를 바르게 듣는 것이 지혜이다.

아난은 오랜 세월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지만, 정작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가섭 존자에게 "세존께서 금란가사를 전해주신 이외에 무슨 법을 전해주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가섭 존자는 아난을 불렀다. 이에 아난이 대답하자, "문밖에 서 있는 *찰간(刹竿)을 뽑아 던져 버려라"라고 말하였다. 아주 직설적이지만 핵심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틈 없이 붙어있는 그 틈을 알면, 그 틈은 하늘과 땅 만큼이나 넓다.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물질이 아니니, 서로 옆에 있는 듯 하나 옆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옆을 떠나 알아내는 것도 아니다. 나[我]를 가지고 '나[我]아님' 을 아는 것이다. '나[無]' 를 알았다 하여 무엇을 알아낸 것도 없다. 그러니 뽑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난은 일주일 동안 참구하고 나서야, 그동안 자신이 들은 것이 없음을 알고, 들은 자를 던져버린다. 듣는 것이 분별에서 나왔다면, 듣는다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아야 한다. 듣는 것은 양변의 상황일 뿐이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듣는 들음은 상황에 따른 기울임이므로 바르게 들은 것이 못 된다. 상황은 누구에게 이롭거나 이롭지 않거나 하는 것이 없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전체의 조망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다. 세상에 들은 것과 본 것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잠시 머무는 것인데 그 잠시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나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은 대상과 대상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대상은 머무른 적이 없으므로 시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난은 자신이 어디에 머물러 누구에게 들었다는 망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섭 존자는 아난에게 "문밖에서 분별하는 자를 던져버려라"고 한 것이다. 문 밖이 오온이다. 지금까지 '나[無]' 를 옭아매었던 것은 '나[我]' 라는 생각의 그림자이지 실재하는 어떤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나[我]는 듣는다, 나[我]는 본다, 나[我]는 말한다, 나[我]는 느낀다, 나[我]는 의식한다.' 라는 그 '나[我]' 는 실존하는 '나[無]' 가 아닌, 근심과 두려움에서 나온 업의 산물인 '나[我]' 이다.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만들어진 '나[我]' 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존하는 '나[無]' 가 드러난다. 실존이 드러나게 되면 '본다, 듣는다, 말한다, 느낀다, 의식한다' 라는 제한적인 모든 감각 기능들은 쇠퇴하여 필요 없어지고 둔화되어 버린다. 실존하는 '나[無]' 와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我]' 의 관계는, 오답은 선명하고 정답은 없는 것과 같다. 오답을 오답으로 분명하게 알고, 오답에 시비분별하지 않는 그를 '나[無]' 로 알면 '나[無]' 를 '나[我]' 로 아는 착각은 사라진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나는 이렇게 붓다가 되었다
– 깨달음의 경 –

『붓다자나 아카데미』는 붓다를 완성한
"깨달음의 경" 전법으로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수행 불사입니다.
정법을 선양하고 붓다의 혜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청정 수행자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수강과목	붓다자나(깨달음의 경) 수행체계 (141아디까싸라 : 118싸띠, 21보디, 2쌈보디)
수강인원	16 아라한(선착순 마감)
수강대상	만 50세 미만, 비구 · 비구니 (종단 구별 없이 신청 가능)
수강기간	1년(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수 강 료	월 10만원 (농협 843173–51–026991, 예금주 : 길상암) ※입금시 "보궁 00(법명)"로 하시고 문자 바람.
전법교수	보궁선원장 수완나
수강문의	010–9176–7000
개 강 일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수료혜택	붓다자나 전법인증서 수여
수강장소	해인사 길상암 선인당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645–8(치인리)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길상암 감원 광해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탱)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2019년10월31일(목요일)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 방영
■ 2022년2월16일(수요일) KBS1 저녁6시 내고향 지리산 함양 해발1000m 자생「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탱)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06호 | 17 | 전면광고

아름다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듣는 이로 하여금 목욕을 한 듯
상쾌하게 한다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을 직접 찾아뵙고 무료 교육과 상담을 진행

의처증과 의부증, 악몽 빙의, 모든 신경성 질환에서 오는 여러 증상, 질병치유 심리학, 한의학과 철학, 정확한 원인 분석 치유, 부부문제 전문 상담

문자 010-4078-7810

天文神功 천 문 신 공

• 백여권 저자 직접전수 •
• 최다목록 무료 검색 •

Daum Cafe.daum.net/yokhak

역학대통령 ▼ 역학수상 동방진인비결

02-907-5858
010-2693-771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010-8721-2198

50~60대 비구니스님과 보살님 모십니다. 자격 : 운전, 컴퓨터로 사찰사무 할 수 있는 분

010-4968-3251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행자 하실 분 모십니다.

010-2078-9595

울산태화영산회 회원모집

◈ 제1기생 학인모집 00명
◈ 수료후 영산회 회원 가입 자격 부여
◈ 작법무 천수바라 서울 소리 범음 범패
◈ 각종 사찰 행사 전담 문의
◈ 승속 종단 불문 가입, 재가불자 가입가능
◈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010-9190-5896
010-4147-199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제사·명절·기제사

◈ 저렴한 금액 ◈
여법하게 지내드림

❊ 제사 줄이는 법도 알려 드림 ❊

경남 010-2093-804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 장기간 공양주 하실 분, 부부 환영
•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에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내에서 요양원 운영할 분
• 장기간 부전이나 절을 운영할 스님

연락처 010-8945-1424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법정사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 기도스님
• 공양주
• 불목(사찰관리자, 처사, 부부환영)
• 평생 함께하실 사부대중을 환영합니다!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539-4(은적사)
전화 : 055)854-3353 010-8961-5489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사주명리, 상담 가능한 "비구니스님 및 보살님" 특별대우 모십니다.

대전시내 중심 원광사 ◈ 출가자 상담환영 ◈

042)252-2034, 010-3422-323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06호 | 18 | 전면광고

너그럽게 살아라.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고
이익을 얻으면 대중과 함께 나눠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유행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전국 사찰 양도 접수 받습니다.

사찰 양도를 결정하셨다면
저희 다래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신속하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및 상세내용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안내가람"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공기 맑고 아늑한 절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양도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지 : 90평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 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가액 : 7억원(절충 가능함)

010-2458-6655

포교원안내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 (150m)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도시가스, 난방,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0-9231-6825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 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급)안내

●위치 : 경남 진주시 작고 아담한 사찰
●건평 : 약 50평
●건물 3동, 대웅전, 방3개, 스님큰방, 용왕당, 산신당
●스님 몸이 건강 안좋음
●가액 : 7천5백만원(조정가능)

주지 010-7506-8604

암 자 안 내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내 산세, 경치, 공기 맑고 수련하기 최고
●부지 : 1400평(봉화 시내버스 다님)도로옆
●대지 : 200평(마당 강자갈, 주차 15대)
●법당 15평, 산신각 6평, 정자, 그네, 요사채 25평, 콘크리트 건물, 큰거실, 큰방2개, 수리완벽, 지하수, 집기보시
●가액 : 2억5천만원

010-7144-7846

사찰전세안내

●감곡사찰 1000평 전세
●감곡전철 10분 거리
●청주사찰 전세 9층 건물 중 6, 7층 각100평

010-5883-2255

사 찰 터 안 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산56-1
●대지 : 17,670평
●도로 및 토목공사 정비
●절터, 휴양지, 목장 최적지
●가액 : 2억원

주인직접 010-5641-1911
010-7635-0201

포교원안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앞산(큰도로변 2층)
●사찰 이전관계로 급 임대
●보증금 : 3천만원
월 : 110만원(부가세 포함)
●시설비 상담후 조정

010-6302-3823

포교원안내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층중 2층
●법당34평,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방1개, 화장실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몸 만 오시면 됨

010-7476-9002

사 찰 안 내

●위치 : 전북 익산시 (시내에서10분거리)
●대지 : 종교부지 500평, 밭 포함, 약 1,000평
●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현대식건물), 법당집기 일체 포함
●가액 : 4억5천만원

010-5581-308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대지 : 실평 246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태양광 20칸, 손볼 곳 없음
●대형마트, 농협, 시내10분, 막힌 곳이 없고 경관이 매우 수려함
●가격 : 2억5천만원(절충)
●스님 건강상 문제

010-7572-8526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바닷가 근교
●부지 : 510평(대지 220평, 전 29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토지 : (전)신축 가능
●가액 : 2억5천만원

010-3871-2210

사 찰 안 내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603번지) ●대지 : 700평 외 전(실사용 천평) ●건물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용왕당 ●요사채 : 황토방 2동, 슬라브 2동, 해우소 1동(문 5개) ●유실수 다량 ●따뜻한 남향, 도로 포장, 차량진입, 주차장(10대), 주변에 개발지역 ●가액 : 5억원

010-9203-1165
010-9564-1165

절터(급)안내

●위치 :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5분거리 42번 국도 옆
●임야5,000평, 대지300평, 암자6평, 약초농원
●산정상까지 길, 관수, 전기 시설 완료, 산삼급 약초 있음, 산 정상에 평탄작업 가능
●가액 : 급양도(상담 후 결정)

010-7922-2077

사 찰 안 내

●위치 : 양산 물금신도시
●사용대지 : 250평 중 개인땅 93평
●산속에 아담한 암자
●가액 : 3억5천만원

010-3497-1471

지리산 명당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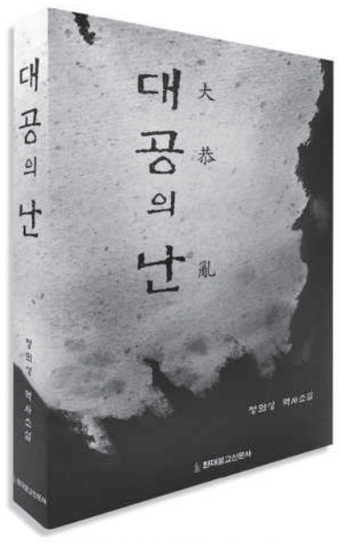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소재
●대지 종교부지 전 임야 총 16,000평 택지개발 3,000평 분할매도 가능
●건물 36평 2동, 8평 2동, 지리산 웅석봉 아래 백두대간 정혈 큰터, 청계호수를 바라보는 정남향 절경
●답사 상담 협의 후 가격 결정

010-4752-0459

사찰(급)안내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건강상 시가 이하로 7억 5천만원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 ⇨19,800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⑱ 설탕의 위험성

우리 차 알리기 우리 차 마시기

깜짝 놀랄 인공음료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요즘 현대인들을 병들게 하는 설탕과 감미료의 정체에 대해서도 약차를 마시기 전에 알아야 할듯하다. 내가 만든 약차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서 만든 약차에는 이런 유해한 인공감미료, 합성보존료, 방부제, 인공당분의 성분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덱스트로오스(dextrose), 프럭토스(fructose), 글루코스(glucose) 모두가 단당류이다. 차이점은 인체에 흡수되었을 때 이들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인 대사 작용에 있다. 덱스트로오스와 글루코스는 근본적으로 같은데, 식품 회사들은 영양정보를 표기할 때 주로 덱스트로오스를 써 넣는다. 설탕 절반은 글루코스, 나머지 반은 프럭토스로 이루어진 당류이다. 2가지 단당류로 만든 복합당분이다.

액상과당 HFCS High Fructose Com Syrup 프넉토스 55%, 글루코스 45%로 구성된다. 모든 당분들 중 제일 해롭다고 한다. 현대에 들어 있는 물질들은 번번이 이 당분이 사용되며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요인이 바로 이 당분의 정체 때문이다. 청량음료, 인스턴트음료, 빵 모든 제품, 식품 등에 첨가되어 있다.



에탄올 술을 만들 때 사용되는 알콜의 한 종류인 맥주와 와인에는 당분과 탄수화물이 존재하지만 에탄올은 당분이 아니다. 당알코올(sugar alcohol)에는 자일리톨(xylitol), 글리세롤(glycerol), 솔비톨(sorbitol), 말티톨(maltitol), 에리트리톨(erythritol) 등이 있다. 감미료로 각광받고 있는 이 성분들은 당분도 알콜도 아니다. 인체에 흡수율이 불완전하므로 당분보다 열량이 현저히 낮다. 섭취 시에는 몸이 붓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며 때로는 설사를 일으킨다.

수크라아제(sucralose) 화학처리된 인공감미료는 왠지 당분처럼 보이는 이름과 당분으로 만든 광고 문구 때문에 오해받지만 실은 당분이 아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등과 비슷한 성분으로 건강에는 매우 해롭다.

아가베 시럽(agave syrup)은 천연이라는 허위광고와 달리 심하게 가공된 물질로 보통 80%가량의 프럭토스로 이루어져 있다. 아가베나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한다. 그와 반대로 차는 우리 몸에 천연의 건강한 성분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보이차가 많은 폭넓은 세대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과연 차속의 어떤 성분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는가? 녹차 청차 홍차 보이차에 들어 있는 공통적인 폴리페롤, 카페인, 데아닌의 세가지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 티폴리페놀 티타닌은 차나무의 화합물질이다. 폴리페놀물질은 플라바놀 플라본 플라보놀 안토시아닌 류코안토시아닌 페놀산 탭시드 등이 있다. 이 중 페놀산과 탭시드를 제외한 기본적 2-페닐벤조피란이 주체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플라보이드로 칭한다. 티폴리페놀가운데 카테킨 함량이 가장 높고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페놀산 등은 건물질 중량의 5%가 넘지 않는다. 카페인 양은 차나무 산지의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쇠한 잎보다는 여린 잎이 많이 들어 있으며 새싹 뒷면에 있는 융모세포의 카페인 함량이 높다. 씨앗과 뿌리에는 들어 있지 않다. 차를 마셨을 때 각성되고 흥분되는 것은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진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 세차를 하는 이유가 바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을 위한 배려이다. 데아닌 성분은 일종의 신경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에게도 심신의 안정을 주며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혈압조절 진통 효과 등이 있어 약처방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데아닌은 L형 아미노산이며 L데아닌 찻잎에 들어있는 특수한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유리아미노산의 40%를 차지한다. 차나무의 뿌리와 줄기에 많이 들어 있으며 차를 우렸을 때 신선하고 상쾌한 단맛을 선물한다. 항산화 물질은 특히 차중에서는 보이차에 많이 들어 있다. 폴리페놀의 수많은 페놀성 수산기는 매우 강한 환원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된 채 세포 내 활성산소와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며 자유기를 제거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초의 선사의 동다송, 범해 각안 선사의 다약설 다가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다. 우리 몸의 대사가 일어나는 과정 중 자유기라 해서 활성산소라고 하며 동식물의 체내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소화합물로 노화나 동맥경화 암등의 발생원인과 관계가 있다.

항방사능 차의 폴리페놀, 차다당, 차단백, 비타민 등의 성분이 체내에 자유기를 제거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폴리페놀은 방사능이 초래하는 면역세포의 손상을 완화시키고 손상된 면역세포 및 백혈구의 회복을 촉진시키며 골수세포가 방사능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한다. 차다당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해를 막아주며 조혈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뛰어난 항암효과가 있어 다당류 등은 세포의 손상을 줄여준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천연의 성분이 아닌 인스턴트음료를 마신다는 것이 필자는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과당음료와 커피 마니아들에게 현재 심각한 건강의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다. 우리 차 알리기 우리 차 마시기를 통해 건강한 DNA도 유지하고 외화유출도 막았으면 좋겠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⑱ 좋은 물과 소금이 건강의 출발점

좋은 소금, 질병 막아준다

모든 생명체는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물을 찾고, 좋은 물을 찾아 먹기 위해 애를 쓴다. 물을 조금 먹는 작은 생명체부터 물을 수십L씩 한꺼번에 먹는 거대 동물까지 물은 매일 매순간 흡수되고 사용이 된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 생명체는 진정으로 살아있게 된다. 바짝 마른 씨앗도 물을 만나면 싹이 트고, 목말라 기진맥진하던 생명체도 물을 만나면 활력을 회복한다. 그런 물을 많이 먹는다고 질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물을 만나야만 비로소 살아있게 된다. 소금은 인체에 있어서 물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소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매일 먹어야 하고, 모든 생명체가 먹어야 한다. 사람도, 동물도, 곤충도, 식물도 소금을 먹어야 살아간다. 그런 소금이기에 소금을 먹는다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 물을 먹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같다. 다만 오염된 물이 건강을 해치듯이 잘못 만든 소금, 오염된 소금이 건강에 해로울 뿐이다. 물이 어떤 물이냐에 따라 다르듯이, 소금 또한 어떤 소금이냐에 따라 그 해로움과 유익이 결정될 뿐이다.

오염된 물이 좋을 수 없다. 그렇다고 미네랄이 없는 물이 몸에 좋은 물일 수 없다. 물은 그 물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혹은 들어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해로운 물이 되기도 하고 좋은 물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같은 물이라도 물 성분이 99%이고 설탕 등 다른 성분이 1%인 탄산음료라면 나머지 1%로 인해서 몸에 다른 영향을 만들어 낸다. 또한 0.1% 정도의 아주 작은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나머지 물 99.9% 가 아무리 깨끗해도 그 0.1%의 오염원으로 인해 오염된 물이 되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나쁜 물이 된다. 요즘 논란거리인 설탕음료의 폐해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같은 물이라도 그 물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이처럼 달라질 수가 있다.



미네랄 소금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물, 옛날부터 마셔온 우물물, 계곡물에는 자연스럽게 미네랄이 녹아 있다. 천연 미네랄수를 마시면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왔다. 그런 물을 마셔왔기 때문에 물을 먹어도 탈이 없었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물은 대부분 인공적으로 가공한 물이다. 수돗물이 그렇고 각종 정수 장치를 거친 물이 그렇다. 정수 장치를 거친 물이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는 것은 그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 물에서 미네랄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공적인 처리를 거치지 않는 물, '미네랄워터'를 사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미네랄워터 병의 성분표시를 살펴보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나트륨 등 미네랄 함량이 표시되어 있다. 아주 작은 양이 들어있다. 몇 mg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 작은 차이가 물의 차이를 만들고 좋은 물과 나쁜 물을 구별하게 한다.

인공적인 처리를 거치지 않는 자연의 물에는 나트륨을 비롯한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된 균형 잡힌 물을 선택하여 먹어야 한다. 그런 물은 좋은 물이기에 아무리 먹어도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암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런 물 때문에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린다면 인류는 진작 멸종했을 것이다. 물은 모든 생명체를 만드는 핵심원료이고 살아있게 하는 필수품이다. 물이 그렇듯이 미네랄 역시 그런 인간을 위해 자연이 준 위대한 선물이다.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린 이유가 납중독 때문이라고 한다. 납으로 수도관을 만들고 물을 끓이는 주전자를 납으로 만든 결과였다. 좋은 물을 잘못된 처리 과정을 통해 죽은 물, 독성이 가득한 물로 만든 것이다. 결과는 참혹한 죽음이었다.

소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 제조방식을 통해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어 왔다. 미네랄이 들어있는 우물물을 자연스레 마시듯이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어 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네랄을 제거한 순도 높은 염화나트륨만의 소금을 먹도록 한 것이다. 그 소금을 먹기 시작한 시점부터 어쩌면 각종 암, 고혈압 등 질병들이 증가하는 것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좋은 물을 아무리 먹어도 질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지 않듯이 좋은 소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좋은 소금을 먹는다면 말이다. 물을 먹고 살라고 만들어진 생명체는 물을 마신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 소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소금의 성분으로 신체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소금을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 예로부터 좋은 약수를 먹어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약수와 일반 물의 차이는 미네랄 함량의 차이이다. 그 작은 차이의 미네랄이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좋은 소금은 미네랄의 집합체이다. 나트륨도 들어있고, 칼슘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칼륨도 들어 있다. 수많은 미네랄을 품은 소금이 건강에 좋은 소금이다. 우리는 소금별에 사는 소금인간이다. 소금인간이 소금을 먹는다고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 깨끗하게 만든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소금을 먹는다면 질병을 예방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좋은 물이 그렇듯이, 좋은 소금 또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주)오씨아드 이사〉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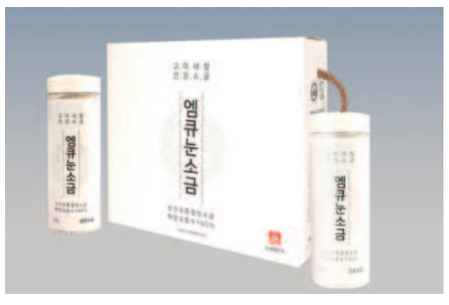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책 다시 읽기 스님의 그림자 4 고통 직시

▶ 한줄 요약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의 간사함을 이겨내야 한다.

깨우침의 여정 '고통 경험', 그리고 '자유'



고통은 경험되어져야 하고, 경험되면 자유로워진다.

2017년 1월 5일 새벽 인도 첸나이 공항에 도착했다. 시내의 한 게스트룸에서 휴식을 취하고, 6일 아카데미 (Oneness & Oneworld Academy)에 도착했다. 다음 날 드디어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한국 참가자들은 십여명 정도 되었고, 전체 참가자는 대충 백오십 명이 넘어 보였다. 약 열여섯 개의 나라에서 참가했다고 들었다. 나는 OPC(Oneness Partners Course) 1,2,3 단계를 신청했다. 각 단계별로 5일 진행하고 하루 쉬었다가, 다음 단계를 넘어갔다. OPC 1,2,3단계 전체 참석자가 있는가 하면, 1,2단계만 참석하는 사람, 그리고 2,3단계만 참석하는 사람 등 인원이 들쭉날쭉했다.

나는 이어폰으로 흘러나오는 통역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아카데미 선생님이 전하는 지혜의 말을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쉴 새없이 받아 적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어로 쉽게 설명해줘서 기뻤고 흥분되었다. 지금껏 접해보지 못했던 문장과 표현이 많았기 때문에 충격적이었고 놀라웠다. 선생님은 필기하기 보다는 직접 체험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 덕분에 돌아와서도 꺼내어 볼 수 있었고, 지금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수업은 대개 아침식사 전 태양 경배 요가로 시작했다. 영상자료를 포함하는 이론 수업이 있고, 이론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 다음, 명상 실습(숙고), 감사와 축하(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체험을 이야기하며 나누는 방식이었다.

선생님들이 말하는 어떤 경지에 닿기를 기대하는 조급한 마음이 생겨, 안내하는 아름다운 상태를 누구나 경험하는지 궁금했다.

"선생님이 똑같이 가르쳐도 학생들의 등급이 달라지듯이 열정이나 집중도에 따라 다른 위치로 갑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직면하세요. 직면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는 열정이 있었고 집중할 수 있었지만,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까지 수개월이 걸린 것 같다.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어떤 종류의 체험이 일어났다. 그것은 단지 생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몸에서 감각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이 '정서적 접촉'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안 것은 한참 지나서였다.

첫 단계는 자신의 틀 패턴, 조건화, 자유롭지 않은 상태, 감옥상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것-화, 질투, 두려움, 죄책감, 상처 등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있기'를 배웠다. 매일 하루 온종일 깊은 무의식의 초월적인 신비 체험을 하기도 했다. 단지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가를 통해 몸을 깨우고, 지혜를 통해 이해를 넓혔으며 그리고 위빠사나와 같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인 어떤 측면과 접촉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 과정에 대해 내가 이해한 바는 이러하다. 태내에서부터 출생까지 그리고 성장 과정 동안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어떠한 틀-조건화, 미해결 과제, 억압된 그것,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들, 내면의 프로그램 등을 만들게 된다. 너무 많은 틀은 감옥과 같아서 자유가 없게 된다. 이 틈이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삶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틀이 무엇인지 만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첫날 배운 여러 가르침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고통은 경험되어져야 하고, 경험되면 자유로워진다는 가르침이었다. 나는 외로움과 같은 고통을 바라지 않아서 지금껏 그것을 없애려고만 했었다. 그런데 가르침은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 하지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는 이치였다. 어떤 불쾌한 내면의 그것들(틀, 조건화, 미해결과제, 억압된 그것, 쌓인 것,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들, 내면의 프로그램)과 함께 있고, 그것을 수용하면 성장이 빨라지고 점점 자유로워지며, 즐겁고 사랑하게 된다는 원리였다.

"무엇이든지 그 감정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면 행복하게 됩니다."

"뭐라고?!" 나는 그동안 고통은 집착에서 일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팔정도로 수행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며 노력을 했지, 고통과 함께 머물러 볼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고통

상황 직면해야 돌파구 생겨
감정 변화 직시, 명상 추천
마음의 본질은 '탈고통' 추구
"마인드 게임에서 벗어나자"

그것과 함께 있으라!' 고 하였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이 가르침이 심리학은 아니라고 말했으나, 나는 불교와 심리학 그리고 명상과 영성을 접목하는 장으로 이해되었다. 자아초월상담학에서 배웠던 이론을 이곳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 같아서 환희에 찼다.

관계의 뿌리는 부모

아카데미에서는 깨달은 여성을 '암마(amma)', 깨달은 남성을 '바가반(bhagavan)'이라고 불렀다. 바가반은 과거 역경승(경전을 번역했던 승려)이 세존(世세상의 존귀한 분)이라 번역한 바 있다. 인도에 갔을 때, 암마나 바가반으로 불리는 성인이 몇 분 있는 것 같았다. 아카데미의 바가반은 '삶은 관계'라고 가르치며, 관계의 원형을 부모와의관계로 본다.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없고, 당신은 관계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부모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연구를 우리는 알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실시한 '그랜트 연구'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한 장기적인 종단 연구)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들어 갈지를 결정짓는 것은 지적인 뛰어남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계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에 부모와 따뜻한 관계였던 사람들, 즉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 중에는 70세에 이르러 폭넓은 사회 봉사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노년의 경제수준을 결정짓는 지표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이 아니라 부모의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데미 선생님은 '모든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의 반영이기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를 명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나는 연꽃 자세를 취하고 호흡에 집중한 다음, 의식 안으로 부모님을 초대했다.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 먼저 숙고하고, 감은 눈앞에 그들을 초대해서 어릴 때 내가 받은 분리불안과 두려움, 공포, 불신, 분노 등과 마주했다.

자식 없는 부잣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리불안, 사랑스럽고 귀여운 막내딸에게 '다리 밑에 사는 너희 부모 찾아가라'며 한겨울 마루로 내몰았을 때의 공포와 두려움, 안전하게 돌봄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불신과 분노와 접촉했다.

그때 그 아이가 느꼈을 상처에 가 닿아 있는 그대로 느꼈다. 그 아이가 부모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마음속으로 말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안전이 필요했는지, 얼마나 많이 떨었는지, 얼마나 눈치를 보았는지, 그러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비위를 맞추며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를 이야기하며 흐느껴 울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에게 주었던 상처-무관심, 무시나 경멸 등을 떠올렸다. 나는 지금껏 한 번도 부모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내 의식 밖으로 밀어냈던 부모님, 무능했던 아버지에게 품었던 무의식적인 불만과 접촉하며 깊이 참회하면서 목놓아 울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나 혼자만 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울었다. 내가 준 상처와 접촉하였는데, 신기하게도 두 분에게 뜨거운 사랑과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우주지성, 신령스런 본성, 집단의식, 집단지성, 아미타불, 주인공, 진아, 대아 등에게 나와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의 상처가 다 사라지도록 기도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그래서일까? 그날 밤 꿈에 언니들이 내 방으로 와서 함께 춤을 추며 신나게 놀았다.

아카데미 선생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과 함께 있으라"고 가르쳤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감정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면 행복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통의 해결 방법에 대해 이와 반대로 이해한 것 같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과 함께 있기보다는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명상, 미술치료, 선치료 등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애씀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발버둥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고통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다.

나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질투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질투를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 했으며, 뭔가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화, 질투, 두려움 등 모든 고통은 나쁘다고 밀어냈더니, 하나로 뭉쳐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질투하는 것도, 질투하지 않으려는 것도, 질투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는 것도 다 마인드(mind, 생각과 감정으로 구성, 말나식)의 속삭임 (언어)이고 모두 다 고통이었다.

마인드의 본질은 고통을 싫어해서 뭔가 좋을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타인을 탓하며 조종하려고 했고, 계속 상황과 상대를 판단했다. 마인드는 내면에서 끊임없이 재잘거렸다. 나는 마인드의 놀이(게임)에 속고 산 것 같았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내가 아카데미에서 배운 방법은 마인드와 친구 되기 그리고 의식의 변형이었다.

저자 : 효록 스님(운주사)

일일시호일

뇌에서 7mm 종양…
제거했지만 두통·경련 시달려

2003년 한국 온 스리랑카 출신 사만씨…농장·축사·공장서 노동
계속된 통증에 진단 받아보니 뇌수막종…남은 병원비도 13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인간으로서 좀 더 진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여) 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초발심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산이 좀 깊은 곳에 가서 삼천배라는 것을 해 봤는데, 열 시간 동안 삼천배를 하고 딱 끝내고 나니까 왜 그렇게 울음이 나는지요.

큰스님 삼천배를 하셨다는데 그 삼천배는 한 사이가 없죠. 그런데 마음으로 '내가 여기 가서 삼천배나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극한 그 마음 때문이지 몸뚱이로 절을 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몸으로 삼천배를 해야만 된다 이런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이런 바쁜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시공이 없는 마음이며 체가 없는 마음이며 자유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체가 없는 건데 만약에 일배가 삼천배고 삼천배가 일배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둥글려서 한마음으로서 일배를 지극하게 했다면 삼만배 한 것보다도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도인들이 "왜 무거운데 염주를 목에다 지고 다니느냐? 목탁을 들고 다니느냐? 가죽 속에 다 넣어 가지고 다니면 가벼울 텐데."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 마음이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내가 절을 하든 법당에 가든 부처님의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둥굴려서 부처님 한 군데로 대고 절을 하든지 그 부처님을 끌어다 내 속에 놓고 그냥 하든지, 둘로는 보지 마세요. 만 불의 부처님이 있더라도 그 만 불을 휘어잡아서 전체를 한 주먹에 넣고 뭉쳐 거기에 넣고선 절하라는 겁니다. 주인공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삼정례를 올리고 칠정례를 올리고 팔정례를 올려도 그것이 진정한 일배만은 못하다 이겁니다. 진실한 일배!

질문자2(남) 저는 스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마는 책을 통해서 접견을 했는데요. '모든 것을 주인공한테 놓아라' 이런 걸 강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쁜 것은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것은 거기 자꾸 끄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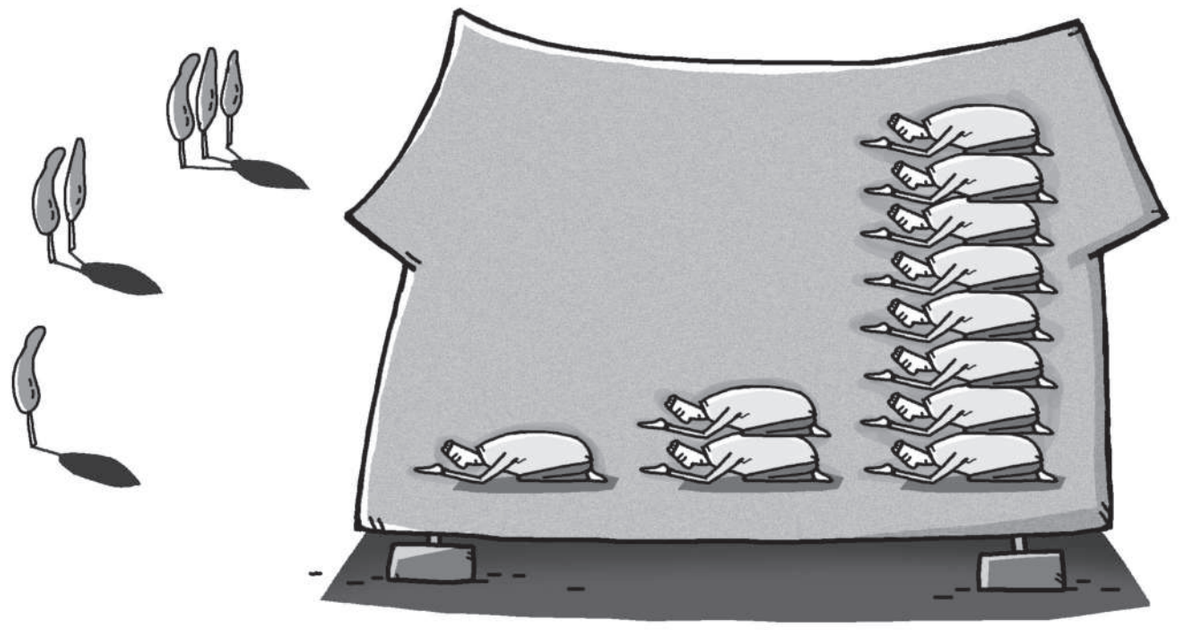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큰스님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입니다, "좋은 것도 부처님 법이 아니요 언짢은 것도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럼 뭐가 부처님 법입니까?" 하니까 "이리 오너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래서 가니까 말입니다, 주장자로다가 그냥 골통을 치니까 "아이구, 아이구" 하거든요. 그래서 "이놈아, 누가 '아이구' 하느냐?" 하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그 한생각을 잘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법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행입니다. 우리가 움죽거리면 행 아닙니까? 생각을 하면 보살이고 생각을 안 하면 부처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렵게 하시지 말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되는 거는 '내 주인공, 참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놓는 겁니다. 또 안되는 거는 '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하겠지. 거기서밖엔 해결 못 해.'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게 놓는 겁니다. 놓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놔야지 어떡합니까, 네?

나로 인해서 세상이 벌어졌고 나로 인해서 고가 벌어지고 나로 인해서 부처님이 있는 줄도 알고 우주 천하가 있는 줄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잘못된 거든 잘한 거든 모두 내 탓으로만 돌린다면, 원망할 게 없고 증오할 게 없고 밉게 보는 게 없고, 더욱 이쁘게 볼 것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부터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돈도 연방 따라오구요.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큰스님 그럼 함이 없이 말후구 질문을 하실 분 있으시면 또 나오시죠. 허허허. 모든 것을 한데 합친…, 옛날에도 이런 시가 있었죠.

부처는 없기에 온 것이 없어서
흘러 도는 물에 우뚝 솟은 연꽃
연꽃의 향기뿐이로세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그대로 옛날의 시 한 구를 읽든 지금 한 구절을 짓든 그것이 전부 부처님 말씀입니다.

질문자3(여) 영가 천도에 대해서요, 저는 법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얘기로는 해마다 조상 천도를 해야 되고, 그런 행사를 각 사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백중 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개 성씨의 일체 조상' 그러고 그 기도를 접수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체 조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많은 성씨들이 거기 다 같이 결합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어느 조상이든지 내 조상이 아님이 없다 하는 데 공감을 가졌습니다.

큰스님 아유! 참, 도인이 나셨네요, 또.

질문자3(여) 죄송합니다.

큰스님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 하시기가 어렵죠.

질문자3(여) 그래서 저는 천도를 부탁하고 제가 다니던 사찰 도반에게 "나는 이번에 큰스님한테 조상 천도를 부탁드렸는데 틀림없이 천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믿음을 갖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는 바로는 법력이 크신 분은 그 근원을 찾아서 천도를 하시기 때문에, 스님이시라면 완전히 천도를 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다음 해부터는 조상 천도를 안 할 거냐?"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천도된 영혼이라면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부터는 일체의 유주 무주 고혼을 위한 천도의 방법은 택하겠지만 내 조상을 위해서 하기보다, 부모나 형제 친척이 죽기 전에는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길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보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제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거는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참 생각 잘하셨습니다. 틀렸다는 사람은 자기 소견이지 보살의 소견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니 전부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부처님이 다 건져 놓으셨는데도, 여러분이 벌써 인간이 됐으니까 99%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때문에 모두 중생인 것입니다. 아까 '일체 유주 무주'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체 조상과 부처의 조상, 자기 전생의 조상도 전부 일체입니다. 유주 무주를 말할 건덕지도 없죠.

그러니 만약에 떡 한 그릇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놓고 내가 밥을 먹다가 천도를 시켜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그렇게 호탕하게 "얼씨구절씨구 좋을씨구!" 이러는 겁니다, 하하하. 이, 말을 해도 함이 없이 하게 되고 그냥 그대로 말을 하면 법이 되고 그대로 움죽거리면 행이 되니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 알뜰살뜰한 말, 내가 끝으로 한마디 해 드리겠는데, 지금 보살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렇습니다. 절에서 상을 크게 차려 놨습니다. 차려 놨는데, 고여서 놨죠? 그런데 먼저 스님네들이 음식들을 그렇게 고여 놓고

☞ 22면으로 계속



죽고 사는 것도 다 자기 근본에다 놓고 믿어 보세요

☞ 21면에서 계속

크고 작은 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아, 이만큼 차렸으면 영가도 마음이 풍족하겠지.' 요렇게 생각합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그 상에 차린 것밖에는 영가가 모릅니다.

만약에 영가를 천도시킬 분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를 그 한 손에 쥐고선 이걸 한 떡이라 생각할 때 그 영가도 '아! 그 떡이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가 천도는 그냥 스스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이 그렇게 물질로만 생각을 하니까 영가들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못 받고 그거밖에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 넓어져서 항상 그저 이리로 가도 둘이 아니요 저리로 가도 둘이 아니요, 이렇게 주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도 천체물리학으로도 보세요. 얼음 속에 생명을 넣었다가 다시 살리는 실험이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겨울에 물고기들이 얼음 속에 있다가 봄이 와서 물이 녹으면 그냥 살아납니다. 그러한 걸로 봐서도 그렇지만 이 부처님 법이란 깨달으면 다 알게 되는 이유가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못 잊어서 참 애쓰길래 그 가족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아, 그분이 참 착하더란 말이죠. 산 자식들도 착하고 그분도 착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착한 것만 아는 게 아니죠. 그분을 만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 천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세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한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그 집에다가 세워 놓고 그 집을 위해서 심부름하게끔 하기 위해서죠. 살아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했는데 죽어서도 모습 없는 모습으로서의 그 마음을 심부름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요걸 잘 들으세요. 그 아버지가 착하니까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내 주장자를 그쪽으로 주니까 그분이 고만 나하고 똑같이 알게 됐더라 이거죠. 또 그분이 모른다면 그분 주장자를 내가 뺏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도리를 모른다면 항상 세균에 끄달리지, 영계에 끄달리지, 업보에 끄달리지, 윤회에 끄달리지, 여러분이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없이 들어오고 나가거든요. 영계가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거든요. 가정을 온통 그냥 막 뒤집어 놔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생이라 하지요. 그러니 그것을 다 해결하고 녹이고 막고, 둘이 아니게 모든 것을 법바퀴로 둥글리고 불바퀴로 굴려서 새로 생산해서 보살로 화해서 나가도록 해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뭐냐. 아까 고거 얘기했죠. 네가 그 마음을 알면 내가 주장자를 줄 것이로되…. 예전에 임제 스님도 그랬어요. "만약에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네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고…. 네 주장자가 없다면 일체 모든 세균이나 영계가 털구멍을 통해서 너의 집을 드나들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도 너는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느니라. 네가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네게 주장자를 줄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 그 마음이 통하니까, 힘을 저기다가 줘도 저 사람은 그 힘을 악의로써 쓰지 않고 선의로써 만법을 들이고 내면서 보살행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행하는 거를 알려면 여러분도 나와 같이 알아야 내 속을 바로 꿰뚫어 볼 거 아닙니까? 내가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지, 구름도 안 타고 가고 옴이 없이 돌아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다니는지 그것도 알 거 아닙니까? 왜 저이가 저렇게 못났는지 그것도 알 거고요. '아니, 그렇다면 저이가 잘 그려 가지고 나오지 왜 저렇게 못나게 그려 가지고 나왔어?' 한다면 내 속을 알아야 왜 이렇게 그려 가지고 나왔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잘 그려 가지고 나왔다면 난 이러지 못하거든요. 안 그래요? 미인으로 아주 잘생기게 태어났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차라리 못 그려 가지고 나오는 게 좋겠지요?

못 그려 가지고 나왔는데도 젊어서 한때는 남이 더러워서 피하게끔 얼굴에 진흙을 발랐거든요. 어때요? 그 방편도 좋죠? 그래서 볕에 말리니까 진흙과 같이 말라서 피부가 쩍쩍 갈라져서 피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모두 "미쳤다, 미쳤다" 또 그냥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니까 "아, 미친 사람인데 갓 미쳤나 봐. 그런데 왜 산에까지 올라왔지?" 이러거든요. 만약에 그럭하지 않았더라면, 키도 크고 미인이었더라면 날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도 또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마음대로 못 했을 거다 이겁니다.

나는 잠깐 동안이라도 안 해 본 게 없어요. 하다못해 맷돌질 키질 모심는 것까지도 조금씩 안 해 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잔뜩 붙들고 몇 해씩 나가겠어요? 잠깐 잠깐이지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 본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더 당차지고 믿음이 옵디다. 그러니 여러분도 각자 자기가 자기를 진짜로 믿고 실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믿어야 해요. 왜?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있었던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부터 알라." 이랬더니 죽였다지 않습니까? 허허허.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아까 천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천도를 꼭 상을 차려 놓고 해 줘야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잘 잡숫고 가시게 해 드렸으니까 잘됐겠지.' 요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차려 놓고 해 주고, 어떤 분들은 "스님, 제 성심으로 부모를 위해서 마음을 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해 드린 것도 없고, 또 그렇게 고생만 하셨는데 살 만하니까 돌아가셨으니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그러니 천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고는 가거든요. "그러면 주소하고 이름도 써 놓고 가고 뭐, 물건을 해 와야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름도 성도 없어도 부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라. '야, 참! 저이가 부처구나, 하하!' 이러고선 말입니다, 얼마나 껄껄대고 웃었는지…. 그래 그 돈을 받아서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눠서 누구를 줘 버렸어요. 그냥 줘 버렸죠. 난 그렇게 쓰는 돈이 한 달이면 아마 꽤 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그냥 움죽거릴 뿐이고 그냥 말할 뿐이고 그냥 살 뿐이에요. 모두가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위로는 내 부모 아님이 없으니, 우리가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것이 저 뜬구름 한쪽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와 같죠. 그처럼 흘러내리는 물과 같고 스쳐 가는 바람과 같고 가을에 나뭇잎 떨어지는 거와 같고 꽃이 피었다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거와 같은 것이 인생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모른다 안다' 그걸 떠나서 '저 스님은 도인이야, 도인이 아니야' 이런 거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좀 더 진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유(有)의 법으로써 남을 돕는다고 자기 먹을 것도 다 갖다가 주라는 게 아니라 나와 그와 둘이 아니게 생각한다면 바로 내가 줄 수 있는, 콩 한 쪼가리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마음을 내되 남에게 해롭게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이 없이 무(無), 공(空)에 빠지거나 유(有)에 끄달리거나 이래도 안 되죠. 유의 법으로 물질세계로 끄달리거나 그래도 안 되고 무의 세계, 공에 빠져도 아니 되고, 나만 참선을 한답시고 안주해도 아니 됩니다. 이거는 천체가, 변소간에 가도 부처는 거기 있으니 참선이요, 어디든 내가 가는 족족 부처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참선이라. 그것이 행선입니다. 일체 만법이 다 행선이며 참선이에요. 여러분 생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를 이루지 못하고 환상천을 넘지도 못하고, 바로 불사천을 넘지도 못하는 것이고 무명천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복으로 끄달린다면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한 말과 같은 겁니다. "나는 절도 짓고 또 물건도 많이 장만해서 스님네들한테 보시했고 옷도 해 드리고 쌀도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달마 대사한테 양 무제가 물어보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은 아실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 천도시켜 주세요." 하고 갖다 준 돈이 바로 그분이 다시 태어날 때 통장을 해 가지고 나오는 그 돈이 돼 버렸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마음이 둘이 아니게 되어서 그분도 그냥 한 찰나에 부처의 도리를 알게 됐으니 부처님이 됐고 보살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돈은 그렇게 공덕이 됐으니 그냥 그분의 무의 통장이 돼 버렸어요. 유의 통장이 아니고 무의 통장 말입니다. 그 무의 통장이 미래의 유의 통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도를 깨쳐서 나올 사람을, 즉 말하자면 미륵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재림하신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생활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이 그만큼 그렇게 됐으면 벌써 그건 보살이요 부처입니다.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내가 보시를 했으니까….' 이러면서 아무개는 얼마 했고 아무개는 얼마 했고 이렇게 주렁주렁 써 붙인다면 어떻게 자기 미래의 통장을 갖겠습니까? 그러니 공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러 가서 '이 돈은 내가 줬으니까 내 돈이요.' 하고 돈을 쥐고 있으면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가져와서도 '요 돈을 내가 갖다 줬으니까'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돈을 못 받았으니까 가게에서 물건 주는 사람이 물건을 안 주죠. 돈을 만져 보기만 했지 그게 준 돈입니까, 어디? 이거는 '아주 너 써라.' 이러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시주를 하면서 함이 없이 하지를 않고 '시주를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 요렇게 하고 보시한단 말입니다. 요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걸 주고 끝끝내 줬다는 거거든요. 줬다고 아주 써 붙여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물건을 가져갈 수가 있어야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 놓고도 "나는 이렇게 주인공을 믿고 이랬는데도 안 됩니다. 믿었는데도 그렇거든요." 이래요. 믿긴 뭘 믿었습니까? 세상에 죽고 사는 것도 다 거기에 놓고 믿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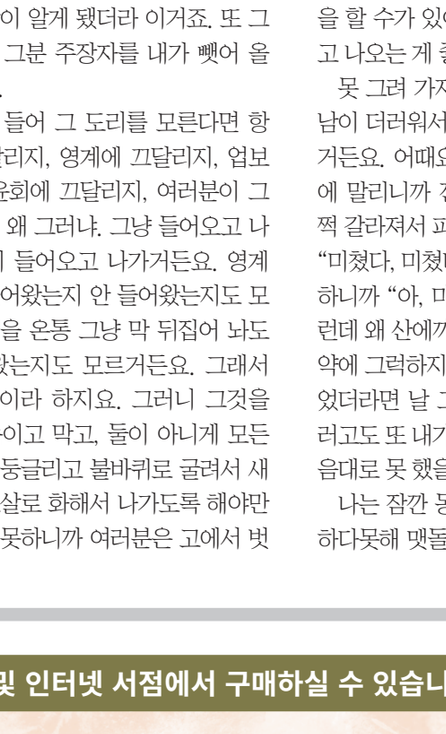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내일 죽으면 어떻고 오늘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 금방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묘지를 쓰고 나서 무척 앓았습니다. 그 집안의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식들이 그냥 내리내리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소 묘지가 잘못됐다고 갖다 옮기려니까 돈이 없어서 산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화장을 시켜 버린다니까 또 가족들이 야단들이고요.

그래서 "산을 사서 이쪽으로 묻자니 돈이 없고, 그냥 놓아두자니 자꾸 집안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쩌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더러 그런 소리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거기에 산소 잘못 썼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의식 자체만 딱 들어내면 그거는 그냥 고깃덩어리고 흙덩어리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탁 오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인공에 그냥 놔 버리면 될 것을….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곤 울면서 가더니 그 뒤에 그 집안이 다시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 우리가 잠시잠깐 살다 가는 것이
> 저 뜬구름 한쪽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와 같죠.
> 그처럼 스쳐 가는 바람 같고 가을에 나뭇잎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10월 1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 특별 기고 |

김성동, 눈물로 쓴 현대사

안재성
소설가



9월 25일 '만다라' 김성동 작가 별세
농민운동 매진하던 중 행방불명된 부친
선친 그리움에 유독 눈물 많았던 선생
75년 그의 삶은 현대사 상처 극복 시간
질곡 가족사는 김성동 문학 本末이었다

후배들과 술자리서 본인 출가담 이야기
파문됐지만 선생은 늘 수행자로 살았다
자신의 집 앞 돌에 새겨놓은 '非寺蘭也'
본인의 삶이 곧 '수행의 길'임을 보여줘

9월 25일 유명을 달리한 김성동 선생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 가장 눈물이 많았다. 이유는 대개 선친 때문이었다. 술자리에서 선친 김봉한 선생과 그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날은 거의 어김없이 눈물을 쏟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만나 그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선생과 만난 이유가 바로 그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으니 말이다.

외로워서 우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양평 우벚고개 험한 산중에 살 때 그랬다. 나와 후배들이 긴 술자리에 지쳐 일어서려면 몇 번이나 붙잡다 못해 헤어지는 현관 앞에서 기어이 눈물을 쏟았다. 거의 매번 그랬다. 양평 용문사 앞으로 이사를 하고는 한결 나아졌고, 우리의 권유에 따라 충주로 오신 후로는 김인국 신부와 임종헌 한의사가 더없이 따뜻한 벗이 되어 눈물 흘릴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생애 마지막 한 해는 참으로 행복하고 의욕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다행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선생의 75년 생애는 불행했던 우리 역사가 준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힘겨운 시간이었다. 식민지 시대 대일투쟁으로 시작해 해방 후에는 농민운동을 하다가 경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아버지, 남편과 뜻을 함께했다가 두 차례에 걸쳐 긴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김성동 문학의 시작이요, 끝이었다.

선생의 생애 후반기 18년 간, 가장 가까운 문학의 후배이자 말벗으로 살아온 내게도 고스란히 전달된 선생의 아픔을 이 짧은 지면에서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런가?

김성동 선생은 나와 후배들을 만나기만 하면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쉬지 않고 사회주의 항일운동가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가끔은 본인 이야기도 했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은 이야기, 젊은 수행자로서 고민했던 이야기, 또 이를 소설로 써서 작가가 된 과정, 그 소설 때문에 승적도 없던 조계종에서 파문당한 이야기도 여러 번 했다.

비록 절에서는 쫓겨났지만, 작가가 되어 많은 사람의 사랑도 받았지만, 선생은 여전히 수행자였다. 선생은 이사를 간 집마다 제일 볕이 잘 드는 실내에 뭉툭하니 못생긴 돌덩이를 모셨는데, 미완성인채로 버려져 땅에 파묻혀 있다가 장맛비에 드러난 돌부처였다. 양평 산중에 살 때는 대문 옆에 세워진 돌에 이렇게 새겨 놓았다.

'비사란야(非寺蘭也).' 절 아닌 절이란 뜻이니, 본인의 삶 그 자체가 수행의 길이었음을 말해준다. 선생의 이름을 문단에 알린 소설 '만다라'는 한국 구도소설의 백미(白眉)로, 구도자로서 선생의 면모를 알 수 있게 한다.

'만다라'는 출가한 지 6년째 '병 속의 새'라는 화두를 풀지 못하던 수좌 법운 스님이 지산이라는 파계승을 만난 뒤 수도 생활에 변화를 맞는 과정을 그렸다. 파계승 지산은 술과 여자를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거침없는 언동을 일삼는다.

하지만, 상식을 깨는 지산의 언동에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힘이 깃들어 있다. 법운은 지산의 영향을 받아 그동안 얽매여 있던 이분법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소설은 두 승려의 방황을 통해 불교계의 모순과 인간의 위선을 드러내며, 개인의 자유와 해탈의 의미를 묻는다. 어찌보면 한국전쟁 중 처형된 아버지를 둔 법운은 선생의 분신일 수도 있겠다.

성정이 올곧아 불의를 참지 못한 부모를 만난 죄로 평생을 통한에서 벗어날 수 없던, 본인 역시 세속의 더러움을 참지 못해 쓴 소리 바른 소리만 하다 외롭게 살아야 했던 김성동 선생이 부디 정의로운 새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외롭지 않게 사시기를 빈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한라산과 노인성

찬바람이 분다. 숲이 아름다운 길을 열어 놓았다. 무채색 억새의 물결을 따라 산길을 오르다 보면 유채색 화장세계 영실이 나온다. 바위와 나무들과 계곡의 물이 어우러져 세상을 장엄하고 있다. 그곳에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오백아라한이 머무는 아란야 존자암이 있다.

홍유손의 〈소총유고〉 '존자암개구유인문'에 의하면 "존자암은 삼성(三姓)이 처음 일어설 때부터 비롯되었으며, 이는 삼읍(三邑)이 정립된 이후에도 오래도록 전해져 왔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산천 숭배 사상은 일찍부터 발달했다. 더욱이 나말여초에는 산천의 부족한 기운을 보강하여 국가와 백성의 안녕과 복리를 기원하는 비보신앙이 크게 발달하였다. 한라에는 비보사찰로 법화사, 수정사, 원당사(불탑사) 그리고 존자암이 있었다. 특히 존자암은 조선의 불교탄압 이후에도 오래도록 '국성제(國成祭)'를 지내왔다. 이에 조선시대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목사나 어사들은 이곳에 들러 백록담에 올라 제를 지냈다.

한라산은 전설상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예로부터 부악(釜嶽)·원산(圓山)·진산(鎭山)·선산(仙山)·두무악(頭無嶽)·영주산瀛洲山)·부라산(浮羅山)·혈망봉(穴望峰)·여장군(女將軍) 등 많은 이름으로 불려 왔다. 이름에서 한(漢)은 은하수를 뜻한다. 산이 높아 산정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한라산 영실의 존자암에서는 노인성(老人星)을 볼 수 있다. 노인성은 남극성(南極星)·수성(壽星)·수노인(壽老人)·남극노인 등의 별칭이 있는 별이다. 또 이 별은 북극성에 대칭되는 천구의 남극에 존재하는 항성이다. 〈사기〉 천관서(天官書)에 춘분과 추분에 이 별을 볼 수 있으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군주의 수명이 연장되는 반면, 보이지 않으면 전란이 일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추분 새벽과 춘분 저녁 때 남교(南郊)에서 그 출현을 기다렸다. 이 별을 남두(南斗)라고 칭하고 경배대상으로 삼아 기복을 축원한다. 이 신앙은 북의 북두(北斗)와 대칭되는 남의 칠성 신앙이다.

이러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담아 수많은 시인 묵객들은 노래를 남겼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다.

연하 덮힌 골짜기 오백 바위 /기묘한 모습이 예사롭지 않네/ 스님이 탑에 기대어 구름을 보는 듯 /요대에서 신선이 달빛 소매로 춤을 추는 듯/ 한나라 나그네 황하 근원을 찾다가 북두를 범하고 /진나라 아이들 바다를 보며 배를 멈추지 못했네/ 장군들은 하늘의 기밀 샐까 두려워 /신령한 곳 굳게 지켜 입을 다물었다

이 시는 추사 김정희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한우(1818~1881)가 제주를 노래한 '영주십경가' 가운데 '영실기암'이다. 영실이란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펼친 영산(靈山, 영축산)의 여래향실(室)을 닮은 골짜기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이 이야기는 다음을 기약한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소통 · 포교' 조계종, 변화 기대한다

조계종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 불교계 내부 여론은 이미 기대감으로 들썩이는 분위기다. 새롭게 출범한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9월 28일 취임 첫날부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광폭행보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첫 공식일정은 청년세대 포교간담회다. 청년들과 점심공양을 함께하며 소탈한 대화를 이어갔다. 자칫 긴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편안하게 풀어내는 역할도 진우 스님이 자처했다. 농담과 웃음이 오가는 가운데, 젊은 세대 포교의 나아갈 방향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그리고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 포교의 새로운 장을 펼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소통으로 이어진 셈이다. 진우 스님은 구시대적 포교전략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했다. 그리고 불교의 본질적인 역할에 포교전략을 대입했다. 바로 마음 치유, 힐링이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 이미 존재하는 가치가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불자 인구 감소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신도단체 임원단 예방에도 '소통' '포교'는 핵심주제였다. 포교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역할이 강조됐고 이에 대한 의견을 소통으로써 교류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과도 만났다. 기조강연에서 종책기조에 대한 강연을 펼친 진우 스님은 공감을 묻고 책임감을 강조했으며, 종무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제37대 집행부의 출범 이후 행보는 남다른 측면이 있다. 소통을 통해 종책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는 원력을 모아간다는 점이 그렇다. 조계종의 변화가 기대되는 이유다.

'행자 수계교육 30년사' 발간에 부쳐

조계종 행자교육원의 역사와 교육변화 등을 망라한 백서인 〈행자 수계교육 30년사〉가 발간됐다. 1991년 8월 개원한 행자교육원의 30년 역사와 그 면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행자 수계교육 30년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 내 기초 승가교육사를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행자교육원은 조계종으로 출가한 모든 행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교육기관이다. 1991년 1기를 배출한 이래 2021년까지 61기가 행자교육원을 수료하고 사미·사미니가 돼 출가 수행자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곳을 거친 인원만 지난 30년 동안 9795명이다.

〈행자 수계교육 30년사〉 발간은 현재는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진우 스님이 제8대 교육원장으로 활동하며 세운 원력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특히 진우 스님은 "수행의 첫 걸음인 종단 행자교육의 역사와 그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백·율사들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중앙기록관의 협조를 받아 보관 서류를 열람·기록하며 발간 작업을 진행해왔다. 출간 예정일은 지난 7월이었으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열·수정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 9월에 발간하게 됐다.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나날이 출가자는 급감하고 있어서다. 탈종교화·무종교화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에서 출가자 수급은 한국불교의 당면과제다. 이번에 발간된 〈행자 수계교육 30년사〉는 향후 시대에 맞는 승가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이 자료를 활용한 승가교육 관련 새로운 연구들이 발표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참 수행자를 찾아서
(대회 및 즉문즉설)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여명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 H·P 010-3466-9991



당신은 길에서 환우(말기 암, 전이된 암, 희귀병, 백혈병, 조현병)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화엄경(華嚴經)에서 병든 이를 만나면 마땅히 그를 자비심으로 돌봐주는 어진 의사가 되라고 하셨고, 법화경 여래수량품(法華經 如來壽量品)에서 좋은 의사는 지혜가 뛰어나고, 가지가지 약의 처방에도 밝아 여러 가지 병을 잘 낫게 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성직자라 일컫는 이들은 어떠한가?

세계 ○○대회, 종교방송○○, 공영방송 스타○○ 등이 즉문즉설에서 조현병 환우를 만나면 어떻게 할 건지 물으니 정신병원에 보내어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고... 이건 세속에 있는 이들의 답변이지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이가할 말이 아니다.

반면에 유명한 큰 ○○께서는 사부대중 앞에서 법문 시 "나는 수행 결과인 법력(신통묘유)이 없어 환우를 만나거나 찾아오면 나의 수행력 부재로 말로 위로하거나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참회와 더불어 평생을 두고두고 마음의 짐이었다고 했다. 지금 한국 불교는 수행 끝에 얻은 법력(신통묘유)을 득한 이는 없고, 연일 크든 작든 말 잘하는 앵무새들만 득실거린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절집에 오는 이는 없고, 그 많든 불자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 지금은 드문드문 노보살님 뿐이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하루종일 하는 것이라곤 불교와 무관한 잡상인에 불과한 것들만 하고 있다. 이것은 현 정치판에 회자되고 있는 양두구육(羊頭狗肉)과 다를 바 없다. 그 중에서도 각종 재와 기복, 잡귀 행상을 일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재를 지내려면 수행의 결과인 수행력(법력, 신통묘유)이 있는 자가 주관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재의 목적은 영가를 스님의 법력(신통력)으로 일깨워 사후세계로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조현병 환우 역시도 영가 장애로 대부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조현병 환우를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하는가? 똑같은 영가인데 스님의 법력으로 보내면 될 것이다. 제발 사찰은 불조사의 영험신통 선전은 그만하고 지금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바른 수행력 부족으로 득한 것이 없음을… 어느 큰○○처럼…

그래서 소납은 영가 재비로 불우이웃, 장애인 단체, 요양원, 수술비가 없어 생을 포기한 사람 등등에게 망자의 이름으로 보시하라는 것이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앵무새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헌행자의 실천행이 중요한 것이다.

〈사례 : 생명〉

대구에서 전화가 왔다.

스님 저희 어머니(90세)가 ○○큰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에서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한다고 집에 모시고 가서 평소 좋아하던 것 해드리고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여 모시고 왔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 어머님이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스님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하길래 바로 대구로 갔다. 환자를 보니 거동은 아예 불가능했고, 고통 속에서도 겨우 사람만 알아볼 정도다. 그래서 바로 가족 분들과 같이 기도를 해주고는 바로 왔는데, 시간이 일주가 지나자 환우가 일어서고, 걷고, 식사도 잘하며 이삼주가 지나 정상이 되자 그때 법회에 오는 자매가 하는 얘기가 스님 우리 어머니가 편안히 가시게 기도 부탁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다. 사실은 내가 그분을 보니 임종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기도를 했노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는 3년 넘게 더 사시다가 결국은 또 다시 병원에서 고통과 더불어 사경을 헤맨다며 기도를 부탁하기에 이제는 정말로 가족 모두가 어머님을 놓아드려야 한다며 병원 도착하니 저녁이었다. 가족들과 같이 기도를 마치고 바로 1인실에 옮길 것을 얘기하고는 나왔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편안히 주무시는 듯 임종을 했고…

가족 합의로 매장을 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정산을 하니 형제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이 돌아갔고, 여기 신도 자매에게도 각각 ○백만원이 돌아왔다. 그때 이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다. 스님 49재를 지내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수없이 똑같은 법문을 했는데 나한테 물을 필요도 없이 이제 그것을 실천할 때다 하니 즉시에 인근에 있는 ○○구 사회복지과를 찾아 불우이웃, 장애인단체, 요양원 수술비가 없어 생명이 위급한 이들을 위해 이 돈을 써달라며 철저히 당부의 말도 전했다고 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찾아오는 이나 전화 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며 나왔단다.

여기서 49재, 천도재 등 재를 지내야 소위 천당,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나 산자 모두가 선행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망자의 이름으로 기부한다면 그 공덕과 복덕이 어디 가겠는가? 불보살이 우리 모두의 행을 보고 있다며 법문을 참 많이도 했고, 지금도 하고 또 하고 있다. 제발 영상이나 사진 찍는 일 좀 그만하자.

기부하고 보름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웬 전화와 함께 유튜브를 확인해보니 미담 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때마다 본인들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며 일관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49일이 다가오자 이 자매분이 49재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극구 손사래를 쳤으나 스님 덕에 3년 이상 더 사시다 가셨는데 그 은덕을 어떻게 갚아야 하냐고 하며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없이 그럼 자매분이 공양물을 조금씩 올리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49재를 해 주었다. 참고로 각종 재는 값비싼 공양물이 아닌 재를 지내는 이의 수행력(법력)으로 하는 것이다. 누구든 불보살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할 때가 되어 생기는 가피력(법력, 신통묘유)이다.

〈사례 : 임종〉

금 번 초파일 직전 본 사찰의 신도이자 사례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오래전부터 이 신문 지면을 통해 스님을 알게 됐다고 하며 사연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어머니가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형제분들이 간병을 하고 있으나 날로 고통만 가중되어 아픔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자식으로서 더 이상 넋 놓고 볼 수 없어 실례를 무릎 쓰고 전화를 했단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잊고 편안히 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며… 가족과 협의하며 염원하는 차에 지면을 통해 한결같이 정법만을 외치는 스님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제발 스님의 원력(법력)으로 고통을 멎게 해 주시고 편안히 가실 수 있게 도와달라며 청을 하자 사례자(신도)가 스님 이분은 환우분의 장남이며 불자랍니다. 사실 여러 번 전화와 문자가 왔는데 스님 사정을 잘 알기에 이제사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럼 그분 사시는 집주소와 환자이름, 병원과 호실, 나이 등을 나에게 보내게 했고 난 그것을 신도카드에 정리해서 불보살님 전에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분의 요청이 있었기에 초파일 등도 달아 드렸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기도 다음날 새벽 편안히 주무시듯 가셨다고 하면서 고맙고 감사하며, 스님의 원력(법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나무 관세음보살

법화경 묘장엄왕본사품(法華經 妙莊嚴王本事品)에 최고의 교설도 듣지 않고 외도에 빠져있는 국왕(아버지)을 제도하기 위해 부처님 제자인 아들들이 어머니의 명을 받아 국왕의 면전에서 아들이 신통으로 허공에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며 멈추기도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왕이 너의 스승이 누구냐며 바로 데려가 달라고 한다. 여기서 아들이 보인 신통은 육신통 중 신족통에 해당하고 병을 낫게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지면을 통해 설명했기에 생략한다.

지금 한국불교가 나락에 떨어져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때 국왕의 아들이 신통묘유를 보이듯이 우리 수행자들도 종교, 종파를 떠나 출, 재가자 할 것 없이 득한 것이 있다면, 늦었지만 사부대중 앞에서 입은 굳게 다물고 참 수행자를 찾는 장을 열고자 한다.

모든 경전에서 우리가 바르게 할 때 불보살과 팔부신장을 비롯 모든 수호신들이 그를 보호해 주신다고 강조, 또 강조했다. 앉거나 서서 밤낮으로 부른다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다.

제발 백주대낮에 대형 절집 산문 앞에서 오물 및 폭행 등등 하지 말고 수행자로서 신통 묘유를 보임이 어떨는지…

대회일시 : 2022년 10월 30일 10:00 ~

참가자격 : 정법 불교를 행한 이로써 수행 끝에 득한 법력으로 조현병, 말기암, 백혈병, 희귀병 등 모두를 완치할 수 있는 수행자.

◎ **참가할 수 없는 자** : 잡귀 등 비불교적인 것(삼재, 사주, 부적, 인등, 사업성취, 합격기도, 재수불공, 물고기 방생, 성지순례, 각종 재, 월급쟁이 부적, 공양주, 술, 담배, 화려한 불상, 집 짓는 불사(대들보, 기왓장, 석가래 등)만년, 평생 위패, 돌, 바위, 우담바라, ○○장 등등은 일체 참여할 수 없음.
잡귀 및 비불교적인 것은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나열하였음을 알렸기에 참조 바랍니다.

- ▶ 환자 선정 시 초기암,1,2기는 죄송하지만 사절합니다.
- ▶ 환우 분 선정시 선착순으로 상담 후 결정하며, 꼭 현대의학 불가라는 진단서 제출.
- ▶ 당일 기도하는 장면은 영상 촬영을 원칙으로 함. (혹시 방송 참여시 모든 자료를 방송에 제출함)
- ▶ 기도 완결자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 ▶ 기도시간은 30분 내로 함. 2회까지는 허용.
- ▶ 결과 검증 : 조현병은 즉시, 나머지 환우는 기도 10일후 병원 진단서(30% 이상 완치 확인)
- ▶ 기도 시 ○○○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신체를 압박하는 행위, 침술, 약 처방 등은 사절함.

※ 바른 정법을 알리기 위해 이 지면을 통해 일반 방송과 종교방송을 향해 몇 번 방송 제안을 했었고, 또 여기 일행과 같이 방송국을 방문했으나 그때마다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 불자 여러분, 말세에 바른 불교 중흥을 위해서 방송스타 성직자, 유튜브 성직자, 신통방통하다는 도사 등등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도자가 없을 시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즉문즉설)으로 대신합니다.

※ 공양 준비 관계로 참석 여부를 미리 연락 바랍니다.

※ 소승은 글 쓰고, 그림 그리며 지낼 산속 작은 암자나 토굴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례자 연락처

010-3466-9991 (김○○)
010-4807-6932 (박○○)
010-5699-3173 (박○○)
010-8291-9423 (변○○)
010-9633-7158 (조○○)
010-9108-5819 (김○○)



❖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